

석정원 원장 선혜 스님
차는 절집 대중에게 '깊은 세계'
집착 없는 바라밀
16·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5월 4일) · 주간

제944호 2013년 6월 12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아함경〉

인내는 분노를 이기고,
은혜는 인색함을 이기며
참말은 거짓말을 이긴다.

"원력보살들 명맥…더 늦기전 행동을"

6월 5일 환경의 날…한국 불교환경운동 현주소

"지금 상태의 자연이 유지되려면 우리가 자연을 돌봐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고 능력이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1986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발표된 달라이라마의 환경선언문 중 일부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소비로 나타난 환경 문제는 인류의 가장 큰 숙제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담론 형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불교계도 마찬가지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불교환경운동은 전성기를 맞았었다. 새만금 반대를 위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의 삼보일배와 지율스님의 목숨을 건 다섯 차례의 단식 · 도법스님의 생명평화 탁발순례는 우리 사회에 '환경'이라는 화두를 던져줬다. 특히 지율스님은 단식과 함께 도롱뇽이라는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소송을 처음으로 펼쳐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 정토회 에코붓다의 '빈그릇 운동',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친환경 공양미 운동' 등 대안적 실천 운동의 불을 지핀 것도 이 시기이다.

하지만 2013년 현재 한국 불교환경운동의 현주소는 '침체 일로'다. 수경 스님이라는 유명 활동가 스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불교계 대표 환경단체였던 불교환경연대는 그 동력을 완전 소진했다. 조계종, 환경부가 받아 안은 '빈그릇 운동'은 대중의 관심과 뒷심을 받지 못하고 사그러들었다, 2005년부터 준비한 '불교환경의제 21'은 아직도 조계종 환경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

이 같이 불교계 환경운동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선 전문가들은 △연이은 국책사업 반대 운동의 좌절에 대한 딜레마 △전문 활동가 양성 노력 전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 부재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유정길 前에코붓다 공동대표는 "천성산, 4대강 등 국책 개발사업의 대한 반대 운동들이 대부분 실패로 끝나면서 일선 활동가들에게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회의를 들게 했다"며 "좌절 이후 새로운 방향성을 가진 패러다임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 역시 부재했다"고 진단했다.

환경위, 윤리협, 지율 스님 등 지속적 환경운동 펼치며 분투

고요한 소리, 〈생태위기-불교 해법모색〉 전문서 출간

불교환경운동 동력 소진 상태 무분별 개발 저지 잇단 좌절 활동가 부재 등 원인 지목

이런 상황에서 불교환경운동은 몇몇 뜻 있는 원력보살들과 단체들의 활동으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불교생명윤리협회가 원전 반대 운동, 밀양 고압 송전탑 반대 운동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율 스님은 개발로 신음하는 내성천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에코붓다는 '쓰레기 제로 운동'과 '지렁이 퇴비 운동'을,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불교 생협과 '친환경 공양미 운동'을 통해 대안적 실천 운동을 장기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사찰생태연구소도 불교 수목원 건립과 〈불교 경전 속 식물 도감〉 편찬 사업에 역량을 집중 중이다.

최근에는 생태 위기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한 서적도 발간됐다. 초기불교 경전 번역 모임인 '고요한 소리'는 〈생태 위기- 그 해법에 대한 불교적 모색〉이라는 제하의 전문서를 내놨다. 총 5개의 챕터로 이뤄진 이 책에는 클라스 센델 스웨덴 칼슈타드 대학 교수, 빠드마시리 드실바 스리랑카 빼라데니야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해 생태에 대한 불교적 이해, 불교적 환경윤리에 대한 입장을 전한다. **관련기사 22면**

그렇다면 불교환경운동의 부활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실천을 담보한 아래부터의 운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생명윤리협회 공동 대표 법응 스님은 "환경은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문제로 불교의 대사회 운동의 핵심으로 자리해야 한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환경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은 "개발 반대 사업만으로는 대중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환경위원회가 원전 반대운동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도 대안 없는 비판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불교환경의제 21'과 같은 생활지침 개발도 서둘러 불교적 환경 실천 운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송월주 스님이 6월 7일 미얀마대사관에서 2013년 사따마 조디까다자(Saddhamma Jotikadhaja) 작위를 수훈했다. 월주 스님과 주한 미얀마대사관 우 뉜 흘라잉 대사.

"세계일화 구현 이어나갈 터"

월주 스님, 미얀마 종교인 최고 작위 수훈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이 6월 7일 미얀마대사관에서 2013년 사따마 조디까다자(Saddhamma Jotikadhaja) 작위를 수훈했다. 미얀마 대통령이 수여하는 이 작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빛나게 하는 분'이라는 뜻의 팔리어로 미얀마 종교부(Ministry of Religious Affairs)가 수여하는 작위 중 가장 높다.

월주 스님은 "앞으로도 지구촌공생회는 '세계일화(世界一花)'의 구현을 위해 빈곤국가지원과 주민들의 자립을 위해 힘쓰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주한 미얀마대사관 우 뉜 흘라잉 대사, 묘 딴 페이 부대사, 삐얏 띠 다 쩌이등서기관이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송월주 스님, 사무처장 화평 스님, 익산지회 덕림 스님, 영화사 상묵 스님 등이 참석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관련 인터뷰 4면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조계종 군종교구 현충원 참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과 육해공군 군승 10여명은 6월 5일 서울 동작동 현충원을 찾아 군 복무 중 순직한 故 김순남 중령과 故 이동신 대위의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김순남 중령은 해군법사로 재직하다 지병으로 순직했으며, 이동신 대위는 전방 위문 중 차량 사고로 순직했다. 자광 스님은 이날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군포교 원력이 전해져 오는 것"이라며 추모했다. 한편 이날 대전 현충원에서도 대전지역 군승 1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순직한 군법사 5명의 묘역 참배가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평화염원 실현하는 회담 되길"

조계종 등 불교계 남북대화 재개 환영 논평 발표

북한이 남북상호대화를 수용하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화해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6월 12일 남북한 당국간 대화 재개를 제안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될 전망이다. 이에 조계종,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 불교평화연대와 불교인권위원회 등 불교계에서도 각각 환영의 뜻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남북 당국자들은 갈등과 대립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대승적 자세로 겨레의 평화염원을 실현하는 회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은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남북교류와 평화를 위한 항시적인 남북대화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는 남북한 당국자 간 대화 재개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이번 제안을 계기로 개혁과 개방에 박차를 가해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나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남북한 간의 대화와 교류를 넘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불교평화연대와 불교인권위원회는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1972년에 성사시켰던 7·4남북공동선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등과 같은 남북화해의 실천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입장을 표했다.

한편,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는 6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창립 13주년 기념법회에서 향후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조계종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944호 INDEX

종합 2·3
조계종 청규 '가시화'
차별금지법제정 기자회견
포교원, 우수사례 지원
'라이프센터 연' 사실상 폐업
독일 사찰음식의 날

시방세계 5
2013 사찰음식대축제



불국토 경주 남산을 오르다 12

지상중계 13
불교평론 '의례 이대로 좋은가'

새연재 21
약이 되는 사찰음식



한마음과 대행禪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하는 한마음인 것이다

대행 큰스님 원적 1주기 기념 출판!

대행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

각고의 고행, 치열한 수행정진, 동체대비심의 무애행과 자애로운 보살행을 보여준 이 시대의 참된 대승보살!
독창적인 선사상과 수행 체계를 세우고, 참선수행의 대중화, 보편화, 현대화를 이끈 시대의 큰 스승!

나라는 경계가 있다면 아직도 죽지 못한 것,
상대가 어떻게 행하여도 모두가 주인공 나툼일 뿐이다.
모두가 주인공!

慧禪 저/신국판양장/624쪽/2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탐심 진심이 나타날 때,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아야 하리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거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족, 소유물, 지위 등에 집착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나 해하려는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이때 외부적인 대상들로부터 관심을 돌려, 대상을 좋다거나 나쁘다고 파악하는 그 마음을 살펴보려 노력하십시오. 탐욕이나 혐오가 형체, 색깔, 실체 혹은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째서 그리도 쉽게 이러한 감정에 휘둘릴까요?

그것은 당신이 이 감정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이나 감정들이 스스로 떠오르고 사라지게 내버려둔다면, 그것들은 드냥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새가 하늘을 날 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듯이 말입니다.

이는 비단 집착이나 분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라, 명상 중 체험에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체험은 수행에 정진한 결과로 오는 것이며, 마음 속에 내재돼 있는 창조성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개처럼 나타나는 것이며, 그러한 체험에 매달리는 것은 무지개를 옷으로 지어 입고 싶은 마음에 무지개를 뒤쫓는 것 처럼 헛된 일입니다. 그저, 생각과 체험이 오가게 놔두시고, 결코 붙잡지 마십시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자가용 규정 등 현대적 청규 제정 '가시화'

조계종 종단쇄신위 9차 회의, 승가 청규 제안 결의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시대에 맞는 현대적이고 보편적인 승가 청규 제정이 가시화됐다.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이하 쇄신위)은 6월 4일 제9차 전체 회의를 열고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 청규 제정에 관한 제안서'를 수정 의결했다.

이날 결의된 승가 청규 제정안은 자성과 쇄신결사의 5대 가치로 제시된 수행, 생명, 평화, 나눔, 문화를 범주로 △더불어 함께 행복한 공동체 정신의 회복 △참회와 수행을 통한 자정 △평화로운 사회구현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한 어떤 행위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성격의 지지계만이 아닌 권하고 격려하는 작지계의 내용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승가의 의식주 문화에 대한 현실적인 청규 조항들이다. 의복에 대해서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옷감을 피하도록 했고, 식생활은 도량 내에서는 전통적 사찰 음식을, 서민 대중과 함께 할 때에는 채식위주의 일반 음식을 먹을 것을 권했다. 개인 소유의 크고 화려한 주거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비싼 숙박시설에 묵지 않도록 했다.

스님의 개인 소유 문화에 대한 조항도 기록됐다. 승용차에 대해서는 견덕 · 계덕은 공용차를, 중덕 · 정덕은 소형 1000cc 이상을, 대덕 · 혜덕은 중형 2000cc이상을, 종덕 · 현덕 이상은 대형 3000cc 이하를 소유할 수 있도록 권했다. 차와 일용품 등도

수행 · 생명 등 5대 가치 통해

보편적 실천 내용 담아내

금지보다는 격려하도록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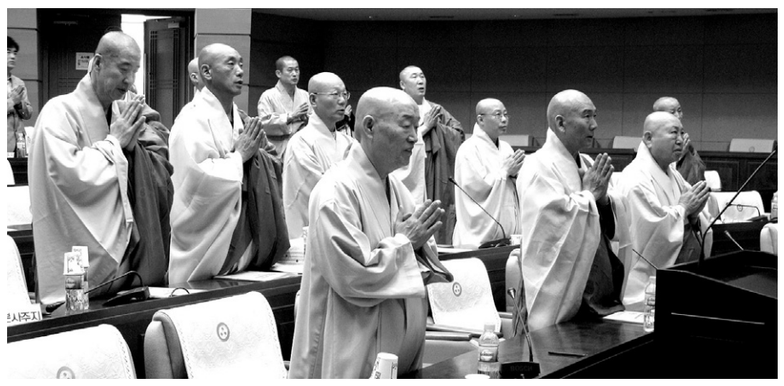
종단 첫 전 승려 대상 청규

차 · 일용품 공정거래 제품으로

고가 · 호화 문화 생활 제한해

공정 거래, 유기농 제품 등을 사용토록 했으며, 주식 등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행성 투기를 금할 것을 권했다. 고가의 장비를 활용한 레포츠 등 호화 문화생활도 지양하도록 했다.

이번 청규에 대해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



조계종 종단 쇄신위원회는 6월 4일 9차 회의를 열고 승가 청규 제정 제안서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본부장 도법 스님은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지만 대승불교이지 못하고, 한국적이지도 않다. 또한 시대에 맞지도 않다"며 "청규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평의하다. 대신 한국불교, 대승불교, 현대불교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강제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위원장 밀운 스님은 "청규 내용이 너무 부드럽다. 이번 청규 제정이 백양사 도박 사태에 비롯된 만큼 도박, 음주, 음행 등에 대해 무거운 벌을 줘야 한다"며 "청규 안에는 종단이 바로 설 수 있는 쇄신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쇄신위는 이 같은 지적 사항들을 받아들여 수정 · 보완한 후 제안서를 총무원 집행부로 송부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종단 호법제도 개선과 승려복지회 지위 격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승가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의결했다.

한편, 쇄신위 10차 회의는 오는 6월 21일 열리며, 법계직무제도 쇄신안, 중앙종회의원 선거 쇄신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시 조직인 쇄신위 활동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신중일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간성 회복하는 일"

종단협 인권위, 3일 제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는 6월 3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영공 스님(전 해인사 주지), 진관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영건 경남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연기적 세계관에 있으므로 어느 것 하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차별이란 마치 숨 쉬는 공기와 자신의 생명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딛고 서있는 땅과, 마시는 물과, 일체 생명을 살리는 햇볕이 자신의 존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음과 같다"고 전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은 어떤 이유로도 반대할 수 없는 인간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며, 인간성 회복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인권위는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제정 촉구 운동을 조계종 각 교구본사와 종단 별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는 6월 3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색된 韓日관계 양국불교가 푼다

34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6월 17~20일 공주서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6월 17~20일 충남 공주에서 '전통불교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주제로 제34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에는 협의회장인 자승스님과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일본 정토종 광명사 법주)을 비롯한 120여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009년 여주 신륵사에 건립된 '인류화합공생기원비'에 담긴 과거사 참회 및 인류화합 기원 정신을 계승하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선언문에는 한일 양국간의 학술 문야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식 행사는 18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리는 세계평화기원법회로 시작된다. 오후 2시부터는 '전통불교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리는데 한국측에서는 직지사 주지 흥선스님이, 일본측에서는 오자와 겐쥬 대정대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19일에는 참가자들이 마곡사와 수선사, 동학사, 개태사 등을 참배한다. 김주일 기자

태고종 새 총무원장 7월 18일 선거

후보등록은 6월 18일부터 3일간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 선거가 7월 18일 치러진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혜일, 이하 선관위)는 5월 21일과 6월 3일 각각 1, 2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선거법 제 7조 '총무원장 선거일은 임기만료 2개월 전주(前週)일에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를 7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후보 등록은 6월 18~20일까지 3일간 이뤄진다. 선관위는 5월 21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총무원 직할교구로 분한신고를 한 승려와 교임 전법사의 분한신고는 인정하되 총무원장 선거인단에서는 배제키로 했다. 김주일 기자

社團法人 大韓佛敎 統合禪敎宗 元老 聖雲堂 靑松 大宗師

宗團葬 奉行에 대한 感謝의 말씀

귀의삼보하옵고,
본 종단은 지난 6월 2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의 원로이신 성운당 청송 대종사님의 영결식을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원근 각지에서 찾아와 주신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제방의 큰스님들, 정부 및 사회 각계 각층 귀빈들 그리고 사부대종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화 및 조전 등으로 조의를 표해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종단은 큰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양지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49재 일정

◆ 초재 : 6월 04일 (음력 4월 26일) 화요일
◆ 2 재 : 6월 11일 (음력 5월 03일) 화요일
◆ 3 재 : 6월 18일 (음력 5월 10일) 화요일
◆ 4 재 : 6월 25일 (음력 5월 17일) 화요일
◆ 5 재 : 7월 02일 (음력 5월 24일) 화요일
◆ 6 재 : 7월 09일 (음력 6월 02일) 화요일
◆ 7 재 : 7월 16일 (음력 6월 09일) 화요일
◆ 장소 : 울산 중구 태화동 321-1 청송사

※ 문의 :052)247-7280(청송사) / 041)566-2277 ~ 2278(장의위원회)

증 명 : 법해 도기, 해월 용암
고 문 : 법운, 명종, 법헌
장의위원장 : 화엄 장의부위원장 : 동봉, 성각, 삼주, 도광, 해동, 진공, 보월, 지우, 법승
장 의 위 원 : 지산, 일성, 지현, 정일, 정원, 자광, 동해, 재성, 보각, 도천, 청호, 완경
집행위원장 : 상원 집행부위원장 : 광은, 법광
집 행 위 원 : 지운, 법연, 일운, 자각, 지산, 대성, 령신, 능관, 문상철, 김유광, 광명심, 도현, 연수, 성일, 보현, 동덕, 정일, 법산, 정견, 자각, 도원, 서광, 각원, 도심, 강명, 도정, 보각, 철우, 덕문, 심오, 경오, 수영, 법경, 의해, 미산, 진성, 지공, 보성, 금비, 청정심, 지원, 정행심, 연화심, 도심, 지혜, 일월
은 상 좌 : 보적, 천웅, 법은, 심오 유 발 상 좌 : 청정심
유 발 상 좌 : 유상진, 황규철, 강차완, 송민철, 유분필, 이명자, 김상선, 김선희, 황원준, 서민선, 박경자, 고의택, 신도회장 박선옥, 신도 일동

社團法人 大韓佛敎 統合禪敎宗 宗團葬 葬儀委員會

승 · 재가 결사모임 ‘붓다로 살자’ 결성

6월 22일 조계사서 창립식

승 · 재가가 함께하는 자발적 결사 모임 ‘붓다로 살자’가 6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선언식을 개최한다.

‘붓다로 살자’는 자성과쇄신결사 추진본부장 도법 스님과 선본사 주지 덕문 스님, 불교신문사 주간 일감 스님 등 출가자와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사찰 종무원, 불교시민사회와 신행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남원 실상사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래 조계사, 봉은사 등지에서 여섯 번의 월례모임을 개최해 왔다.

22일 열리는 창립식에서는 지도법사 도법 스님의 인사말을 비롯해 박재동 화백의 ‘인간 붓다 이미지 작업’, 기념영상 상영, 김선우 시인의 축시, 원로 스님의 격려 인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교수아사리 이시대 승가상 논한다

22일 1차포럼 개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일 2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이 시대의 승가상’을 주제로 ‘2013 조계종 교수(교육)아사리 제1차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희철스님(교수아사리)이 ‘시대에 부응하는 수행자, 시대와 소통하는 종교인’을, 자현스님(교수아사리, 월정사 교무국장)이 ‘대처육식의 문제와 승가의 위상’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 후 참가자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진다. (02)2011-1817

신중일 기자

부처님 글사랑 사찰도서관 공모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문화부장 진명 스님)는 6월 21일까지 불서사랑캠페인 ‘부처님 글사랑 사찰도서관’ 공모를 실시한다. 참가신청서는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해 사찰도서관 신청 동기 △활용될 공간 설명-사찰도서관 운영 연혁 △사찰도서관 운영 및 관리 계획 등을 기술해 제출하면 된다. 2013년 부처님글사랑 사찰도서관으로 선정되면 600만원 상당의 불서 및 현판이 기증된다. (02)2011-1772

정혜숙 기자

우수 포교사례, 종단 차원 육성

조계종 포교원, 포교 각 분야 사업 지원 나서

단체 · 지역포교 3개 분야
5일 공모선정 14곳 발표
최대 800만원 지원 예정
지속적 모니터링 진행도

“현재 공무원을 비롯한 인구 순유입이 계속 되고 있는 세종시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의 물량 공세에 비해 포교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포교원 지원에 힘입어 무료 템플스테이와 쉼터 제공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펴나갈 것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6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2013 포교원 공모사업 결과발표회’에서 ‘행복도시 행복도량’ 사업을 소개하는 영평사 관계자의 발언이다.

조계종이 포교 · 신도단체와 지역포교 3개 분야의 우수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본격 진행한다. 이날 선정된 사찰과 단체는 총 14곳으로 1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포교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포교단체 분야에 △국제포교사회의 ‘이주민 한국문화체험 투어’ △불교여성개발원 ‘부처님과 함께 밝아지는 내마음’ △불교상담개발원 ‘가족소통을 위한 ‘Buddha Image 만나다’ 과정 △파라미타 ‘전통사찰에서 익히는 청소년 심성개발’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총사업비 350만원이 투입되는 불교상담개발원의 ‘Buddha Image 만나다’ 과정은 만다라를 통해 자녀와 부모간 쌍방향 대화를 통해 소통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함께 만다라를 그리며 청소년 인성발달과 가족간 대화 등을 진행한다.

지역포교분야에서는 △완도 신흥사 ‘장보고 아카데미 유청소년 감감감’ △김천 직지사 ‘천불의 미소와 함께 하는 김천 스카우트’ △송광사회복지관 ‘한여름밤의 영상음악제’ △보형청소년문화의집 ‘도예를 통한 불성기르기’ △세종 영평사 ‘행복도시 행복도량’ △양산 통도사 ‘불교전통문화 체험’가 우수사업으로 채택됐다.

이중 세종 영평사 ‘행복도시 행복도량’은 세종시 일대 이주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센터, 북까페, 워크숍 공간 제공 및 무료템플스테이로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신행단체에는 △교정인불자연합회 ‘전국 교정불서 보급’ △한의사불자연합회 ‘의료취약계층 지원’ △조계종 산악회 ‘홍보 및 조직강화’ △조계종 메트로법우회 ‘맞춤포교 인프라구축’이 우수사업으로 진행된다.

메트로법우회 ‘맞춤포교 인프라 구축’의 경우 지하철 역 인근 사찰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하철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질서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함께 벌인다.

포교원은 향후 선정사업에 대해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공모사업을 계기로 지역과 소통하고 사찰과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참여 ‘연 센터’ 사실상 폐업… 파장 우려

종관위 3일 문제 제기 감사 청구 및 보고 요구



서울 목동 라이프 센터 연 1층 입구. 엘리베이터가 봉쇄돼 있다. 동국대가 스포츠앤스파코리아와 손잡고 진행한 복합형 메디컬센터였으나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사실상 폐업 상태다.

동국대 의료원(원장 이진호)이 스포츠앤스파코리아(이하 스파코리아)와 손을 잡고 지난해 10월 서울 목동에 개원한 ‘라이프센터 연(이하 연 센터)’이 사실상 폐업 상태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연 센터는 출입 엘리베이터부터 봉쇄된 상태. 이미 5월 28일부터는 단전 조치가 들어갔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부된 공지문에 따르면 연 센터가 미납한 전기료는 4천 180여 만원. 여기에 수도세 2천여 만원과 관리비 2억여 원(월 1천1백만원) 가량이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의료원 측은 현재 ‘연 센터’의 상황에 대해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동국대 의료원 전략기획팀 관계자는 “연 센터는 단순임대해 의료 행위를 한 것이다. 사실상 우리도 피해자”라며 “스파코리아 측의 운영이 파행으로 가면서 고가의 의료기기를 방치할 수 없어 철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운영하거나 법적 대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 센터’ 문제는 단순한 의료원만의 과실이 아닌 불교계 내부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덕문)는 6월 3일 열린 회의에서 ‘동국대 의료원 목동분원’에 관련된 사안을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위원장 장명 스님은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 등을 들어 연 센터 사업을 지적했다. 장명 스님은 “이미 일반 언론들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최종 의사 결정 전에 충분한 검토 기회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연 센터 사업은 동국대 의료원과 법인사무처를 거쳐 이사회에서 사업을 보고하는 선에서 추진됐다. 의사 결정에 허술함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연 센터’ 사태가 단순한 사업 실패로 보기에는 불교와 동국대가 가져가는 피해가 너무 크다. 400명에 이르는 정회원들 대부분이 ‘동국대 의료원’이 운영하는 ‘고급 라이프센터’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꺼이 지갑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대응에 대해 종관위원장 덕문 스님은 “현재 이사회 내 감사가 이번 사태에 대해 조사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기 바란다. 보고 검토 후 대책위 구성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5월 28일 베를린 자유대학서 진행된 사찰음식 강연회 · 시식회에서 독일학생들이 사찰음식을 맛보고있다.

한국 사찰음식, 독일서도 호평

문화사업단, 베를린서 ‘사찰음식의 날’ 행사

한국 사찰음식이 독일 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독일 베를린에서 ‘2013 베를린 한국사찰음식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독일 수교 130주년과 광부 및 간호사 파독 50주년을 맞이해 베를린 시정부가 초청해 이뤄졌다. 문화사업단은 이 기간 동안 사찰음식뿐 아니라 연등축제, 템플스테이 등 한국불교문화를 소개하며 현지로부터 각광을 받았다.

일정 첫 날인 25일에는 베를린 시에 위치한 세계의 정원에서 연등축제를 거행했다. 27일에는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과를 방문해 교수진과 학생 70여 명에게 사찰음식 전문가 선재스님의 강연과 시식회를 열었으며, 28일에는 메인 행사인 ‘한국사찰음식의 날’ 공식 만찬이 진행됐다. 만찬에는 파독광부협회와 한독간호협회, 베를린 한인회 등 한인 동포 200여 명이 참여했다.

신중일 기자

주소찾기 어려워 지명 바꿔? … “궤변”

대불청 등 ‘도로명주소법’ 위헌소송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와 박호석 지명연구가, 정동채 문화행정전문가(前 문화부 장관)등 63명은 6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도로명주소법 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대불청은 “전통문화가 배어있는 법정지명을 포기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발달로 주소 찾기가 어려워서 바꾼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새 도로명주소법은 헌법제9조에 명시된 국가의 전통문화보존의무에도 명백히 반하며, 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향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나은 기자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봉 행

(사)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 49재 영가천도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암으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회향 : 1년에 한번 하늘이 열리는 음력 7월 15일 회향합니다

종 정

총무부장 정무(부산 해운대구 청운암)
재무부장 무여(부산 금정 법전사)
규정부장 정학(부산 진구 수도암)
교육부장 묘향(부산 수영 반야라마)
감사부장 청타(부산 수영 관음사)
문화부장 청오(대구 달서구 홍주암)

총무원장 유 심

원 로 원 장 대웅(부산 진구 봉주암)
무진(경주 횡용 용수암)
비구니회장 혜명(부산 진구 백광사)
비구니총무 무여(011-9509-1560)
불교전통문화원장 소현 무향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포 교 단 장 덕인
포교단 총무 법광(무량정사)

종회의장 일봉(경주 강동 관음사)
포교원장 운암(의령 봉수면 문황사)
감찰원장 서암(부산 강서구 약수사)
교육원장 봉덕(거창읍 봉덕암)
호법원장 법산(011-3011-0853)
종회사무처장 용현(경주 안강 원라사)
종회의원 일월(경주 안강 상원사)
도경. 수경. 범주. 진여. 진설. 덕행

종단고문변호사 허종범(부산) **종단사무장** 박몬비 010-4566-4504

전국 각 교구장
부산교구원장 (총무원 직할교구) 051-468-5657
서울교구원장 법안(강북 광복사 02-306-7988)
경남교구원장 운암(의령 봉수면 문황사 017-551-5143)
거창교구원장 봉덕(봉덕암 010-8582-1309)
천안교구원장 법산 010-3011-0853
대구교구원장 의광(대구 서구 약사사 016-9884-0860)
사천교구원장 무무(사천 향촌동 연지암 010-4587-2163)
불무도교구원장 수연(부산 금정구 천왕사 010-8988-9672)
경주교구원장 용현(경주 안강 원라사 010-2531-1961)
포항교구원장 수연(포항 해도동 천왕사 010-8988-9672)
양산교구원장 무천(양산 중부동 천궁사 010-2445-0160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공동 봉행위원장 혜명. 수연

총무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관음정사 (부산역) 총무국 : 051)468-5657 / 사무장 010-4566-4504 총무원 051)442-5658 인터넷주소 httpz://jogyejong.kr 팩스 051)442-5659

입종업체

신라불교미술관
- 불교문화재 기능보유자 제12-01-01호
- 2010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미술부문 수상
- 불상, 탱화, 개금, 벽화, 단청
- 조성장소 : 부산진구 초읍동 (무상 010-3557-6250)

수봉전자 (불교음향기기특수제작)
- 선거음향, cctv, 노래방, 야외앰프
- http://www.kukjeav.com
- 장소 : 부산 진구 부전동 29번지(부산전자종합시장 1F 7호문)
- 수봉 010-3832-8855

불교승복 원복사
- 가사, 장삼, 두루마기, 손누비, 모시깨끼, 승복일절
- http://www.wonboksa.co.kr
- 장소 :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276(구, 고속터미널 앞 미남로 약국 2층)
- 금봉 010-3572-4400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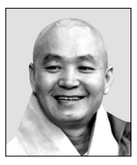
구인사 개산 기념 법요식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6월 13일 단양 구인사에서 구인사 개산 68주년 기념 법요식을 거행한다. (043)420-7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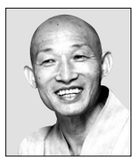
자비도량참법 10일 기도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6월 17~26일 오후 12시 경내 관음전에서 자비도량참법 10일기도를 봉행한다. (031)221-2324



노고단 트레킹 템플스테이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6월 22~23일 '노고단 트레킹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61)782-7600



문화유산답사 템플스테이

김천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7월 5~7일 '템플스테이와 함께 하는 문화유산답사' 주제 템플스테이 여름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54)429-1700



서산대제 세미나 국회회관서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6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서산대제 학술세미나를 연다. (061)534-5502



2013 청년출가학교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6월 30부터 7월 8일까지 '2013년 청년출가학교'를 개최한다. (02)2011-1812



혜원정사 음악회

부산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은 6월 15일 오후 5시 혜원정사에서 혜원음악회를 연다. (051)868-0138.



연수형 여름철 음식 강좌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 선재스님은 6월 14~16일까지 '선재스님과 함께하는 연수형 여름철 음식' 주제로 음식 강좌를 연다. (055)382-7182



안재호 영남고고학회장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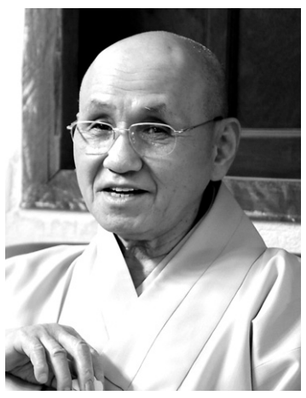
안재호 동국대 고고미술사학전공 교수는 6월 1일 영남고고학회 총회에서 영남고고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행정대학원 · 경찰사법대학원 학사운영실장 최기석 △입학처 입학사정관실장 박훈선 △문과대학 학사운영실장, 법과대학 학사운영실장 김성근 △학사지원본부 대학원팀장 겸 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장 주성재

"빈곤국가 지원은 당연한 불사"

미얀마 사따마 조디까다자 작위 수훈한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



미얀마 학교건립과 물탱크 지원 등 꾸준히 주민들 자립 위해 노력
"1만여 후원자들에게 주어진 것" 상금 전액 지구촌공생회에 기부

"오늘 사따마 조디까다자 작위 수훈은 지구촌공생회 1만여 후원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0년 동안의 지구촌공생회 활동에 대한 격려와 함께 앞으로도 지구촌공생회가 '세계일화(世界一花)'의 구현을 위한 빈곤국가에 지원과 주민들의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사진〉이 6월 7일 미얀마대사관에서 2013년 사따마 조디까다자(Saddhamma Jotikadhaja) 작위를 수훈했다. 미얀마 대통령이 수여하는 이 작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빛나게 하는 분'이라는 뜻의 팔리어로 미얀마 종교부가 수여하는 작위 중 가장 높다.

매년 사회 공익 활동을 활발하게 한 스님들에게 수여되는 이 상은 미얀마 자국 스님들 외에 외국인 스님들에게 주어진다.

2013년 수훈자로 선정된 월주 스님은 지난 2008년 나르기스태풍 재난 복구를 위해 이리와디 삼각주 지역 주민들에게 쌀을 지원하면서 지구촌공생회 미얀마 지부를 설립됐다. 이후 스님은 미얀마 지부 교육지원, 식수지원 사업에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미얀마 주민들을 위해 8개의 학교와 11기의 물탱크를 건립하는 등 꾸준히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스님은 "원래 이 상은 지난 4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직접 수여받기로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해 이번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서 수훈식이 이루어졌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미얀마 지원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앞으로의 뜻을 밝혔다.

이에 지구촌 공생회는 4명의 미얀마 학생들의 한국 유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님은 앞으로 미얀마가 관심을 두고 있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교육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운문사 강원 스님들의 지원으로 우리 지구촌 공생회에서 4명의 미얀마 학생을 초청해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교육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얀마가 우리의 새마을 운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민간교류 차원에서 이를 확대시켜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스님은 이날 받은 상금 전액을 지구촌공생회에 기부 빈곤국가 지원에 보태겠다고 전했다. 수훈식에는 주한 미얀마대사관 우뉜 흘라잉 대사, 묘 딴 페이 부대사, 삐얏 띠다 쩌이등서기관이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송월주 스님, 사무처장 화평 스님, 익산지회 덕림 스님, 영화사 상묵 스님 등이 참석했다.

한편, 월주 스님은 법주사에서 금오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56년 화엄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17대 총무원장(1980)과 28대 총무원장(1994~1998년)을 역임했으며 1998년 이후에는 이념과 종교, 국경을 넘나드는 깨달음의 사회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나눔의 집 이사장, 함께 일하는 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신라사 연구는 곧 불교 연구"

학회 창립 10주년 맞이하는 김창겸 신라사학회장



스터디 모임서 출발, 800여 회원 활동
126회 학술 발표, 불교연구 기여

신라사학회(회장 김창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한다. 신라사학회는 2002년 8월 2일 신라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연구자들이 스타디 모임을 결성한데 이어 자발적으로 2003년 3월 정식학회로 구성했다.

6월 15일 '신라 법흥왕대 불교공인회의와 대왕흥륜사' 학술발표회와 8월 31일 창립 10주년 기념 신라사학보 28집을 준비 중인 김창겸 교수는 창립 당시 신라사학회의 의미와 향후 학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창겸 교수는 "신라문화가 한국 역사문화의 근간임을 고려할 때, 신라 불교에 대한 연구는 한국 역사문화의 정치 · 사회 · 문화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신라사학회는 신라 불교의 수용 및 공인과정과 삼국통일 전후 교학 불교의 발전모습, 신라 말 고려 초 당시 선종불교의 발전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현재 800여 학회 회원이 활동 중인 신라사학회는 10년 동안 매달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6월 열리는 학술발표회까지 총 연구발표회는 126회에 달한다.

연구발표회는 불교 관련 금석문을 중심으로 신라사 흐름을 살핀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연구', 적산 법화원을 건립해 동아시아 문화교류를 주도한 장보고의 불교신앙을 살핀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신라사', 미륵사지 자료를 분석한 '익산 미륵사지 출토 유물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특히 불교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

김창겸 교수는 "기존 연구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늘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 불교사 내지 불교문화에 대한 연구는 그 원형이 형성된 신라사 내지 신라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추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제는 신라사에 대한 연구 또한 옛 중심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대 발전할 때"라며 "향후 남북통일 후 북한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도 반영해 균형 잡힌 학국사 고대사 체계를 세우면서, 아울러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의 역사와 연계해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사 속에서의 한국 고대사상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학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월서 스님, 라오스에서 자비행 실천

학교 개보수 협약…캄보디아 교과서 전달 등



천호희망재단을 설립해 캄보디아 네팔 등 제 3세계 국제구호활동에 나서고 있는 원로의원 월서 스님〈사진 왼쪽〉이 최근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자비행을 실천했다.

천호희망재단 이사장 월서 스님은 5월 25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 옹트 사원을 방문해 퐁 사마르 라오스 종정과 오지마을 학교 개보수 및 장학금 지급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스님은 5월 29일 캄보디아 오도르민째이주에 있는 오지마을 안롱 벵 고등학교를 방문해 정부 교과서 3,000여권과 학용품 등을 전달했으며 캄보디아 시엠립 시오르 크램 마을에 쌀 1톤을 전달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혜민 스님, 아름다운동행에 1억 전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이자 힐링멘토인 혜민 스님이 중앙승가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인스님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혜민 스님〈사진 오른쪽〉은 6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자비나눔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혜민 스님은 "중앙승가대 스님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어학쪽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미국서 어학공부를 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자비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경주 동국대, 원아시아 이사장 특강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6월 5일 교내 원효관 글로벌에이스홀에서 사토 요지 원아시아재단 이사장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사토 요지 이사장은 수강생들에게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지역의 상호 연대와 공동 협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다문화를 이해하면서 세계적인 사고를 갖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원아시아재단 특강은 3월부터 한국, 중국, 일본 교수진들의 교환 강좌로 총 14회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경운원기 선사의 생애와 사상' 세미나

신록의 계절에 근대 한국불교 화엄종주인 경운 원기(擎雲 元奇)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려 합니다. 스님은 30대 초반에 통도사에서 법화경 2질을 금사로 사경하셨고 50대에는 화엄경을 은사로 사경하셨으며 또한 선암사에서 오랫동안 주석하며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일제의 한국불교 통제에 맞서 전통을 수호하려 애쓴 고승입니다. 수행의 엄격함과 경학의 해박함 그리고 서화에 뛰어났던 스님은 대중들로부터 생불로 존경받았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뜻을 선양하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이제 미흡하나마 스님의 생애와 활동을 조명하여 후학의 도리를 다할까 합니다. 부디 두루 동참하시어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3년 6월 14일(금) 오후 2시
♦ 장소 :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 주최 : 경운원기선사문도회, 경운원기선사 사상실천선양회, 태고총림선암사
♦ 후원 : 한국불교태고종, 대한불교관음종, 한국불교신문사, (사)한국불교문화예술사연구회, BBS불교방송, 불교TV

1부 (14:00 ~ 14:20) 삼귀의 / 반야심경 / 인사말씀 / 축 사 / 사홍사원


경운원기 스님

2부 (14:30 ~ 16:30) 주제발표 및 토론
기조강연 : 擎雲 元奇의 불교사적 위상(법산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제1주제 : 근대 선암사와 화엄종풍(차차석,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제2주제 : 화엄종주 경운원기의 사상(신규탁, 연세대 교수)
제3주제 : 근대 경운원기의 활동(김경집, 위덕대 교수)
제4주제 : 書畵에 나타난 예술세계(진철문, 동국대 교수)

경운원기선사문도회 결성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김지암 권금용 이홍파
경운원기선사 사상실천선양회(가칭) 회장 임호명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백설운

* 행사관계 연락처 : 염불사 호명 (011-9048-9395)


'부처님의 공양전' 을 둘러보는 정산 스님과 스님들


참가아동이 즐겁게 사찰김밥을 만들고 있다.



이날 사찰음식 대축제에는 OX퀴즈를 비롯한 각종 체험코너가 마련돼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우수한 성적을 낸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이 절달됐다. 사찰음식 OX퀴즈에 참여한 불자들의 모습


다양한 사찰음식을 둘러보는 불자들의 모습


부처님의 '일곱집 탁발 음식' (칠가식)을 재현한 전시품

"불교 전통 음식, 수행 정신까지 맛보세요"

조계종 첫 사찰음식대축제 6월 6~9일 서울 봉은사에서 개최

"사찰에서 만드는 김치에는 마늘이 들어갈까요? 안들어 갈까요?"

"안들어 갑니다!"

"네! 맞추셨습니다!"

사찰 한 켠에 마련된 OX퀴즈 부스에서 흰머리 지긋한 할머니와 어린 손자가 함께 앉아 퀴즈를 풀며 밝게 웃었다. 조계종 사상 최초로 나흘 동안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사찰음식대축제의 한 모습이다.

이날 봉은사에서 열린 대축제에서는 사찰음식의 향기가 사방에 퍼져 도시인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사찰음식 대중화와 그에 담긴 불교정신을 알리기 위해 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이 진행한 사찰음식대축제는 6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까지 봉은사 곳곳에서 전시와 체험, 교육과 경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대축제에는 조계종 사찰음식 특화사찰인 산청 금수암과 서울 진관사, 수원 봉녕사, 평택 수도사, 대전 영선사, 의성 고운사, 울진 불영사 등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불교정신을 담아 적게 먹자는 소식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사찰음식의 정신을 대중화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모든 음식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笑食), 과식을 삼가고 건강을 유지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양만 먹는 것(小食), 가능하면 육식을 삼가고 채소를 먹는 것(蔬食)을 뜻하는 '3소식 캠페인' 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정산 스님은 소식캠페인 선포식을 겸한 개막식에서 사찰음식의 의미를 강조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이날 사찰음식대축제에서 소식 캠페인을 본격 전개할 것을 밝혔다.

개막식에서는 참가자들이 일제히 소식 캠페인에 서약하는 자리와 캠페인 동참자들에게 소식을 위한 작은 밥그릇을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체감온도 35도를 훌쩍 넘는 날씨에도 축제의 각 부스는 인산인해였다.

사찰음식대축제에는 외국인들을 비롯한 시민 1000여 명이 각종 체험코너를 통해 사찰음식을 맛보고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에는 정산 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사찰음식연구소 소장 적묵 스님, 선재 스님, 문화부장 진명 스님, 한식재단 양일선 이사장 등 불교계 사찰음식 전문가 20여 명도 참여했다. 체험코너에서 우수성적을 받은 스탬프를 5개 이상 모으면 소식을 위한 밥그릇 등을 기념품으로 나눠주는 등 참여를 이끌었다.

대회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체험코너는 '사찰음식 OX퀴즈' 와 '사찰 김밥 말기' 였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김밥과 다르게 사찰김밥에는 햄도 없고 맛살도 없지만, 건강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걸 먹는 것도 재밌어요," 김재원(9) 군.

"성당에 다니는데 봉은사가 가까워 가끔 옵니다. 종교가 다르지만 사찰음식 체험이 아이들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면 사찰김밥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이숙희(35) 씨.

그동안의 사찰음식대회와 다르게 가족 단위로 찾은 이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퀴즈와 투호 등에는 남녀노소를 떠나 함께 즐기는 분위기가 흘렀다.

사찰음식 OX퀴즈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송원숙(55) 씨는 "사찰음식에 오신채를 쓰지 않는 등 평소에 알던 내용이지만 퀴즈로 푸니 재미도 있고 유익했다"며 활짝 웃었다.

오전 2시 개막식에 앞서 열린 체험부스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들도 즐겁게 체험 소감을 밝혔다.

인도에서 온 락키쉬 아리아 씨는 물지게 옮기기

불교문화사업단, 笑·小·蔬 3소 캠페인

2015년까지 범종교 대국민 운동 확대

OX퀴즈 등 전시전·체험전 등 다채로와

부처님 당시 음식 등 전시해 교육효과도

1000여 시민·외국인 입모아 '원더풀'

총 상금 1200만원 경연 및 강좌도 열려

체험 부스에서 "인도 시골에서도 물지게를 져봤다. 인도 불교 축제와 분위기가 닮아서인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아주 친근하다"며 부인과 함께 물지게를 지고 경내를 돌았다.대회장에는 사찰음식의 원형과 전통을 이해하고 현대적인 변화 실태를 알 수 있는 다섯 가지 전시전이 마련돼 사찰음식 홍보에 톡톡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부처님이 공양받고 열반에 드신 춘다의 돼지감자커리 등이 전시된 '부처님의 공양' 전은 스님들을 비롯한 불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전시장 한쪽에는 전통 사찰공양간의 조왕단, 아궁이, 가마솥 등을 재현한 공간이 마련됐으며 '힐링 밥상' 코너에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사찰음식, 고3 수험생을 위한 사찰음식, 고혈압에 좋은 사찰음식 등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 유형의 사찰음식이 전시됐다.

유명 사찰의 특색 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사찰음식 칠보전', 계절별 대표 사찰음식을 사진으로 전시하는 '사찰음식 계절밥상' 도 선보였다.

오후 4시 개막식과 테이핑 커팅식이 진행된 이후 행사장을 찾는 이들은 늘어갔다.

왁자지껄함 속에 무더운 여름날씨는 이내 가셨다. 이날 대회는 사찰음식의 맛과 불교정신, 그리고 불자들의 유쾌함을 함께한 축제 한마당이었다.

한편, 8일과 9일에는 1200만원의 상금이 걸린 사찰음식경연대회와 선재 스님 등 사찰음식의 최고 전문가 스님들이 강사로 나서는 사찰음식 명인강좌, 외국인 발우공양 체험이 개최됐다.

사찰음식 경연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열렸다. 개인전은 손으로 집어 한입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한입요리' 가, 단체전은 주 요리와 곁들이 음식으로 구성한 '한상차림' 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상차림은 경전이나 고문헌에 나오는 사찰음식의 현대적 재현, 사찰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오거나 전수돼 온 음식, 전국 사찰에서 널리 즐기는 음식 등으로 70분간 진행됐다.

교육행사인 사찰음식 명인 강좌는 사찰음식 전문가 선재 스님과 대안 스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참가자들의 이목을 한데로 모았다.

노덕현 기자 · 하주비 수습기자

■조계종 '소식' 캠페인은?



불교문화사업단 범국민 캠페인인 '소식' 캠페인은 사찰음식에 담긴 사상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구현하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세 가지의 '소식' 을 하자는 것으로, 모든 음식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자는 소식(笑食), 과식을 삼가고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자는 소식(小食), 육식을 위한 축산에 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채식을 하자는 소식(蔬食)이다.

6월 6일 선포된 소식 캠페인은 201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된다. 2013년은 불교계를 중심으로 홍보사업이 진행된다.

2014년에는 대국민 서약운동 및 일반사회 홍보활동이 진행되며 2015년에는 범종교계 운동으로 전환돼 가톨릭 등과 함께 캠페인 전개에 나설 방침이다.이날 선포식에서는 홍보대사로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 선수가 위촉됐다.

박용규 문화사업단 사무차장은 "소식을 실천하면 비만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건강한 삶과 음식을 적게 먹고 아껴 이웃과 굶주린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나누는 삶,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땅과 물, 공기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며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불기2557년 대한불교 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일심청정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

관문사에서는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유훈인 관음정진 백만독 불사를 올해도 예년과 같이 봉행합니다. 대조사님께서는 재세시에 "일심으로 관음주송 백만독을 하면 몸과 마음이 안팎으로 정청해지고 업장이 소멸되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고 구경에 성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대조사님의 유훈을 받들어 생전 사후에 큰 복전이 될 수 있는 큰 불사에 수희 동참하시여 개인의 소구소원의 원만한 성취와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기도참여방법 *

1. 기도기간 : 6월 18일 화요일 ~ 9월 28일 토요일 (103일간)
2. 동 참 금 : 133,000원 (매일 불공축원 및 기도복 포함)
3. 동참문의 : 관문사 종무소 02)3460-5300

* 기도시간안내 *

1. 불공축원 : 오후 11시 ~ 11시 30분(30분간)
2. 법 문 : 오후 11시 30분 ~ 12시(30분간)

주간기도	오후 1시 30분 ~ 오후 5시 30분 (4시간)
야간기도	오후 11 시 ~ 오전 3시 30분 (4시간 30분)

※매일 스님께서 참석하시어 축원불공 및 법문을 진행합니다.

* 일 정 안 내 *

구 분	일 시	장 소
입 제 식	6월 18일 오후 11시	4층 옥불보전
회 향 식	9월 28일 오전 10시	총본산 구인사

대한불교 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 전화 02) 3460-5300

‘아버지’라는 짐 내려놓고 이야기 나눠요

한마음과학원, 6월 22일 ‘한마음아버지마당’ 개최

안양 한마음선원 부설기관 한마음과학원은 6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아버지를 위한 강좌인 ‘한마음 아버지 마당’을 개최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를 주제로 가장, 남편, 부모 등 다양한 아버지 역할 속에서 나를 찾고 배우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정은 △다르게 세상보기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다시 보는 우리 가족 △한마음이 되는 대화 △우리 함께 해결해요 △다시, 길을 나서며 등을 주제로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아버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40명 정원으로 선착순마감이다. (031)471-6926 이나은 기자

티베트불교 전문가 그레믈린, 토요 영어법회

동국대 국제선센터 6월 15일 대각전서

동국대 국제선센터(원장 수불)는 6월 15일 국제선센터 대각전 법당에서 캐나다 출신 글레믈린 법사를 초청해 ‘14인 달라이라마의 생애와 가르침’을 주제로 토요 영어법회를 개최한다.

글레믈린 법사는 티베트불교 및 역대 달라이라마에 관한 30여권의 책을 저술한 티베트불교 전문가다. 인도 다람살라에서 12년간 달라이라마 등 티베트 스님들로부터 수행법을 배우고 미국과 캐나다, 한국에서 불교 수행법을 전파하고 있다. (02)2260-3891 이나은 기자

자기성찰 · 자애명상 수업 모두 ‘공짜’

풍경소리, 무료특강 삼세번 6월 개강

전국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법음을 전하는 풍경소리(대표 혜자)가 ‘무료특강 삼세번’ 6월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한 가지 주제로 월 3회 진행되는 것으로 6월에는 행복 · 자애명상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강좌는 ‘행복&영어 길잡이’로 〈행복해you 해피투게더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임수연씨와 6월 13~27일 매주 목요일에 성찰과 소통, 게임, 상황극 등을 통해 긍정의 힘을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두 번째 강좌는 직장인들을 위한 저녁 강좌인 ‘자애명상’으로, 한국테라와다불교 최정심 사무국장이 6월 19일부터 매주 수요일 3주간 저녁 7시 30분에 명상수업을 지도한다. (02)736-5583

만해 스님의 숨결 찾으러 떠나다

대불청, 6월 16일 다솔사 답사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는 창립 93주년을 맞아 6월 16일 경남 사천의 다솔사를 답사한다.

다솔사는 대불청의 전신인 조선불교청년회가 창립되고 만당이 결성됐던 대불청의 ‘성지’다. 한편 대불청은 8월 10~11일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오라 강원으로! 꿈꾸라 평화통일을!’ 주제로 제32차 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한다. 접수는 7월 31일까지다. (02)732-1920 이나은 기자

파라미타, 한 · 중청소년 교류활동 실시

8월 11~15일 중국 청도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8월 11~15일 4박 5일간 중국 청소년과 교류하는 ‘제4회 파라미타 한 · 중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 청소년 및 지도자 200명이 중국 청도와 일조를 방문해 중국의 역사 · 문화체험을 통한 대륙문화를 접하고, 중국학교 · 중국가정 방문 등을 통해 타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학생은 파라미타 홈페이지(paramita.or.kr)를 참조한 후 6월 28일까지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02)723-6165 이나은 기자

불교와 더 친해지고 싶다면… ‘영붓다월드’로!

젊은 불자들의 온라인 모임 ‘영붓다월드’ 활발

불교와의 첫만남
영붓다월드
Young Buddha World

· 싸이대륙(http://club.cyworld.com/20buddhist)
· 페북대륙(http://on.fb.me/ybwfb)
· 트윗대륙(해시태그 #영붓다)
· 함께쓰는 수행일기 (http://www.facebook.com/youngbuddhist)



‘영붓다월드’는 불교를 접하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었던 20대 젊은 불자들을 위한 모임이다. 사진은 영붓다월드 로고(왼쪽)와 정기모임을 갖는 회원들.

2009년 싸이월드 모임 개설
페이스북 · 트위터에 수행담 공유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정기모임
지난해 5월 개운사 청년회 창단

20대 청년이라면 한번쯤은 법륜 스님의 〈스님의 주례사〉를 읽고, 혜민 스님의 트위터를 팔로잉하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읽었을 것이다. 또 힐링이 대세인 만큼 지치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스님의 법문에도 귀기울여보고, 템플스테이에도 관심을 가져봤을 것이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불교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면 인터넷모임이나 활동에 동참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 그러나 이들을 위한 불교모임이나 동호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렇다고 무작정 사찰을 방문하기에는 조금은 망설여지고 부담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20대 ‘잠재적’ 불자를 위한 온라인동호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 ‘영붓다월드’다.

‘영붓다월드’는 2009년 5월 싸이월드에 개설된 모임으로, 초대회장인 구희철(32) 조계종 포교사가 만들었다.

구희철 포교사는 “불서를 읽기도 하고 자기 전에 참선을 하기도 하는 평범한 20대였는데, 주위에 불교를 좋아하지만 주변에 젊은 불자들을 많이 보지 못했다”며 “그러나 불교를 주제로 이야기할 만한 또래가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딱히 사찰에 갈 수 없는 상황이거나, 불교에 관심은 있는데 참여하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조금 진지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친구를 찾는 온라인 모임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싸이월드 ‘영붓다월드(http://club.cyworld.com/20buddhist)’에는 현재 회원수가 430명이다. 이들은 책에서 좋은 글을 보거나, 참선하거나 마음공부를 하면서 문득 들었던 좋은 생각들을 ‘지금은 마음공부中’ 게시판에서 공유한다. 또한 ‘염불하기’ ‘사경쓰기’ 게시판을 통해 입으로 염불을 외는 대신 타자를 쳐서 염불하고 사경한다.

회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싸이월드에만 있던 모임을 확장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계정을 만들어 서로의 이야기와 불교계 소식들을 공유한다. 특히 페이스북에는 ‘함께 쓰는 수행일기(http://www.facebook.com/youngbuddhist)’를 만들어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나누고 있다.

회원들은 온라인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활동도 하고 있다. 2010년부터 매월 첫 째주 토요일 6시 공식 정모를 갖고 있다.

박나래 영붓다월드 회장은 “10~20명의 회원들이 오후 6시에 조계사에 모여 저녁예불에 참석한 뒤 저녁 공양을 하면서 불교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친목을 쌓는다”며 “조계사 뿐 아니라 도선사, 길상사 등 도심에 있는 사찰을 함께 방문한다. 1년에 한 번씩 낙산사, 전등사로 야외모임을 나간다”고 말했다.

‘영붓다월드’는 20대를 위주로 하지만 30대 청년들도 동참하고 있다. 또한 불교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스님들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만남을 이어오던 ‘영붓다월드’ 회원들은 2012년 5월 부처님오신날 즈음해 서울 성북구 개운사(주지 범해)에 ‘개운사 청년회’를 창단했다.

박나래 회장은 “구희철 전 영붓다월드 회장이 개운사 신도로 있는 지인으로부터 ‘청년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아 청년회를 만들게 됐다”며 “청년회원수는 30여 명 정도로 매주 10여 명의 청년 불자들이 개운사 청년회 법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2013 연등행렬에서 개운사 연희단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영붓다월드는 홍보활동을 강화해 불교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불교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나래 회장은 “영붓다월드 모임을 진행하면서 불교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홍보활동을 통해 불교를 좋아하는 청년을 모으고 향후 지역 청년회와 연계 모임을 갖고 템플스테이 위주로 엠티를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승만경 연구회 1200일 회향… “승만의 삶 사세요”

월탄 스님 법어…여성개발원 제3차 집중 GEP 개설

불교여성개발원 승만경 연구회(회장 이인자)는 6월 7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장에서 조계종 원로인 월탄 스님을 초청해 ‘승만보살 10대원 1200일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월탄 스님은 법문에서 “이 시대의 대립 · 분열 갈등을 제도할 분들은 승만 보살이 되겠다고 서원한 승만경연구회원들”이라며 “여러분이 항상 승만을 생각한다면 승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승만이 되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월탄 스님은 1960년 불교 정화를 외치며 대법원에서 할복을 감행한 ‘6비구’ 가운데 한 명이다. 스님은 불교신문사장,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청주 용화사, 혜은사, 월리사, 제천 한산사, 단양대흥사에서 회주를 맡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10년 2월부터 〈승만경〉을 대중화해 여성불자의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승만보살 10대원 정진’을 진행해왔다. 100일 단위로 회향법회를 봉행한 불교여성개발원은 6월 8일 수행 1200일을 맞았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은 불교를 영어로 공부하는 제3차 GEP(Global Empowerment Project)를 6월 18일~8월 17일 진행한다. GEP은 한국의 불교 전통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평화를 실천할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 불자교육프로그램이다.

강좌는 1단계 집중강의, 2단계 토론과 발표로 진행된다. 집중강의는 6월 18일~7월 4일 매주 화 · 목 ·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서울대와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조은수 서울대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토론과 발표수업은 7월 4일~8월 17일 전쟁 · 성 · 평등 · 환경 등 세계 이슈에 관한 기사를 읽고 세계 평화 구현을 위한 불교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불교와 영어에 관심 있는 남녀 대학생 및 젊은 불자이며, 6월 10일까지 자기소개를 작성해 이메일(wisdom2007@daum.net)을 보내면 된다.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에 한해 8월 22~24일 샤카디타 타이완이 주최하는 국제 다르마 통역 워크샵에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02)722-2101 이나은 기자



조계종 원로 월탄 스님은 승만보살 10대원 1200일 회향을 맞아 초청 법문을 설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6월 26일까지
◆ 개강일시 : 2013년 6월 27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카스에 'sarangjae' 등록하고 소외이웃 돕자

'카카오스토리'

재능나눔봉사단 사랑재, 4개월만에 1100만원 모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 스토리'에 물품을 기증하고 회원들이 경매가를 입찰해 소외이웃을 돕는 모임인 재능나눔봉사단 '사랑재'가 창단 4개월 만에 후원금 1100만원을 돌파했다.

사랑재는 "창단 4개월째 많은 분들의 나눔 참여로 11,238,058원이 모금됐다"며 "이번 달부터 조금씩 수혜자를 선정해 나눔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능나눔봉사단 사랑재는 지난 2월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인연을 맺은 회원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모임으로, (사)날마다 좋은날 반갑다 연우야의 정식 봉사단체다. 주요활동으로 나눔 봉사에 뜻있는 사람들의 기증품을 받아 경매를 진행시키고 경매를 통해 모여진 낙찰금 전액을 기부하고 있다.

현재 360여 명이 사랑재 친구로 등록돼 경매에 동참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며 참여하고 있는 정회원도 30여 명이다. 2월부터 현재까지 88건의 기증품이 접수가 돼 82건의 나눔경매가 진행됐다.

사랑재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나눔을 원하는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으로 만든 자작품, 혼자 갖고 있기 아까운 작품, 그리고 지금은 쓰지 않는 생활용품 등을 기증한다.

기증품들은 '사랑재' 카카오스토리(아이디 sarangjae)내에서 경매에 올려 지게 되고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기증품을 보고 원하는 물건을 경매날짜에 맞추어 실시간 댓글로 입찰하면 된다.



재능나눔봉사단 '사랑재'는 카카오스토리 회원들과 활발하게 경매, 재능기부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들이 기증하는 물품은 공예품, 수제비누, 그림, 도자기, 생활용품 등 다양하다. 목공예, 미술, 자수, 보석디자인 등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동참하고 있어 입찰자들의 호응이 높다.

회원들은 경매 뿐 아니라 공연을 통한 재능 기부도 하고 있다.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지난 3월 23일 제1회 사랑재 희망공연에서 판소리, 민속무용 등을 선보여 마련된 후원금 135만원을 서울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또한 사랑재는 지난 4월 16일 지정후원 나눔경매에서 모금한 43만원을 홍천노인복지회관에 후원했으며, 5월 부처님오신날 전통문화축제에서 진행한 재능나눔봉사에서 100여만원을 모금해 반갑다연우야 라오스 해외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사랑재는 암환자를 위한 가발 정기기증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암투병 환자의 사연을 이메일(sarangjae@naver.com)또는 카카오톡으로 접수 받아 매월 2명씩 가발 수혜자를 선정해 후원할 계획이다.

백동열 사랑재 단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후원자분들의 관심으로 10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았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주위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을 접수받아 후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종교적 이념을 떠나 아름다운봉사에 뜻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한 편의 글에 내 인생을 담다

일산노인복지관, 제4회 전국 어르신 백일장 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고양시의 후원으로 진행된 전국 어르신 백일장에는 전국에서온 어르신 867명이 참여했다.

전국에 있는 어르신이 한자리에 모여 글쓰기를 하는 축제가 열렸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화)은 전국 어르신을 대상으로 5월 31일 오전 10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및 호수공원 일대에서 '제4회 전국 어르신 백일장 대회 및 문학작품 공모'를 개최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전국 어르신들의 다양한 유기적 관계를 결집시켜 하나 되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양시의 후원으로 전국에서 867명이 참여,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제4회 전국 어르신 백일장 대회 및 문학작품 공모'는 전국의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6주간 사전접수를 통해 시(운문)과 수필(산문)의 2개 분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행사에는 연꽃마을 대표이사 각현 스님, 최성 고양시장, 박윤희 고양시의회 의장 등 주요내빈이 참석했으며, 피아노 앙상블, 아카펠라 공연, 네일아트 체험 등 글쓰기 뿐 아니라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 체험의 장이 마련됐다.

백일장대회에서 발표된 시제는 '길, 노년, 신록, 친구'로 670명이 참가해 글솜씨를 겨루었으며, 거리상으로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대회 참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문학작품 공모의 경우 '5월, 얼굴, 잠'을 주제로 부산, 나주, 원주 등 전국 각지에서 197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신경림 시인 외 7명이 참여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운문 김월태(경기도 수원시), 산문 민숙기(경기도 부천시) 등 36명이 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운문 박옥희(경기도 부천시), 산문 신성자(강원도 속초시) 등 36명이 문학작품공모에서 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와 고양시의 후원으로 수상자들에 보건복지부장관상(대상), 경기도지사상(최우수), 고양시장상(우수)이 추가돼 대내외적으로 대회의 공신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전국어르신백일장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어르신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노년문화 행사가 더 많이 창출되고 본 행사가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속초시노인복지관, 어르신 다도 프로그램



속초노인복지관 어르신 20명은 강원 고성군에서 차밭활동을 했다.

신흥사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속초시노인복지관(관장 묘근)은 6월 3일 '도(道)레(禮)미(美)' 참여 어르신 20명을 모시고 강원 고성군에 위치한 화진포산학다원으로 차밭활동을 다녀왔다.

'도(道)레(禮)미(美)'는 다도 및 전통예절 교육을 통한 전통 문화예절지도사를 양성해 지역 내 아동에 전통교육과 다양한 체험을 실시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이다.

이날 어르신들은 화진포산학다원에서 직접 녹차잎을 따고 차를 만들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도(道)레(禮)미(美)' 참여 어르신들은 6월 17일부터 다도이론을 통해 다도 및 전통예절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된다. (033)636-3373

이나은 기자

가족상담 지도자 스님 양성 교육 실시

조계종 복지재단, 6월 21~23일 중앙승가대서

전국 사찰의 비구·비구니 스님 및 사미·사미니 스님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마련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6월 21~23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불교적 가족상담 지도자 교육'을 실시한다.

'불교적 가족상담 지도자 교육'은 일상에서 겪고 있는 가족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상담 지도자 교육과정이다.

복지재단은 전문적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교육을 통해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기법으로 신도상담을 개발·기획했다.

교육과정은 2박 3일 동안 진행되며, 보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상담의 필요성과 상담심리사의 기본자세'를, 강숙정 한겨레심리상담센터 소장이 '상담심리 개론'을, 손영미 심리학 박사가 '상담의 주요이론 및 개념'을, 서광 스님이 '불교상담심리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조계종 교육원 인증과정인 이번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 이수와 동등한 17시간 인증을 통한 30점이 부여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복지재단은 포교현장 일선에서 신도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전국 사찰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신도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가족문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심리학적 원리와 방법에 대해 불교적 가르침에 기초한 가족교육 및 상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교적 가족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가족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여 불교적 기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한국다문화센터, 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

6월 12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 전국 18개팀 본선진출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무원)는 6월 12일 오후 2시 건국대 새천년기념관에서 '제4회 전국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지난 3월 참가팀을 모집하고 예비심사 결과 가평 미원초 등 합창단 9개팀, 김해 대창초 등 중창단 9개팀 본선진출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국다문화어린이합창대회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행사로 한국다문화센터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수출입은행과 EBS(교육방송)이 후원하고 있다.

매년 전국에서 일반자녀와 다문화자녀(50%이상)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는 다문화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고, 일반 자녀와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합창대회는 이번에 예비심사를 거쳐 본선진출이 확정된 18개 팀이 건국대 새천년기념관 대공연장에서 본 대회를 치르게 된다. 수상은 대상(여성가족부 장관상, 상금 300만원)을 비롯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지도자상 등의 상장과 상금이 부여된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다문화사회를 상징하는 대표적 아이콘으로 성장한 한국다문화센터의 레인보우합창단 등이 찬조 출연할 예정이다. (02)737-0467 이나은 기자

追 世界佛敎 法王廳 初代法王 一鵬 徐京保 尊者 追慕大祭 慕

귀의삼보하옵고,

온 인류의 스승이시며 근래 한국불교의 큰 스님이신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 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의 탄신 99주년 봉축 및 원적 17주기 추모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전 종도 및 문도 스님들께서는 추모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일붕 서경보 존자님께서 세계 평화와 인류 평등에 이바지한 큰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겨서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인류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뜻 깊은 법회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아 래 -

일 시 : 불기 2557(2013)년 06월 17일(음력 5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
문 의 : 041)566-2277~2278 / 010-7311-2277
팩 스 : 041)566-6141

증 명 : 법해 도기, 해월 용암
고 문 : 법운, 명종, 법헌
봉행위원장 : 화엄, 성각
봉 행 위 원 : 도광, 삼주, 보월, 진공, 해동, 지우, 보각, 재성, 령신, 광명심, 청정심
집행위원장 : 상원
집 행 위 원 : 광은, 법광, 동해, 지현, 일성, 정원, 보성, 도천, 송암, 정일, 지운, 지산, 자광, 문상철, 김유광

社團法人 大韓佛敎 統合禪敎宗 奉行委員會

‘관계회복’ = 수행 = 비폭력 = ‘생명존중’

불광 아카데미 ‘생명과학의 문제와 불교의 생명윤리’

우희종 교수(서울대)

단순히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생명존중일까? ‘생명존중’은 불교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희종 교수가 5월 29일 불광교육원 아카데미 강좌 ‘현대사회, 불교에 길을 묻다’ 첫강좌에서 ‘생명과학의 문제와 불교의 생명윤리’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진정한 생명존중은 비폭력 수행과 함께 우리 삶속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번 수업에서 말하는 것은 생명 존중 비폭력 수행이 우리 삶속에서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137억년 쯤에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지구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여러분이나 제가 2013년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구의 탄생에서부터 우주의 탄생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파리 모기나 한 마리 돼지가 나와 동시대에 존재하기 위해 137억년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이렇게 함께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란 매우 소중한 존재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생명존중은 생명집착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생자필멸’은 우리 삶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마치 피해야 하고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부처님 말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삶이 쌓여 무수히 많은 미래를 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는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우주를 담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 이 우주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체의 특징이며 개체 고유성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개체마다 자기만의 고유성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탄생 삶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라도 내가 병들어 죽을 때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나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거죠. 사람이건 동물이건 개체로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생명 존중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닌 주인으로서의 죽음입니다. 평소 삶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고통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모든 존재는 생노병사를 겪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생노병사를 겪는 제자들에게 신통력을 발휘해 그것을 낫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들여다보며 고통의 본질 탐욕과 욕심 불필요한 고통과 소멸에 대한 모습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런 관계성은 고통과 비폭력의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 폭력은 무엇입니까? 폭력이란 모든 생명체나 이 세상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저는 관계의 단절을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식 잘되라고 하는 부모님의 회초리는 폭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화가 났다고 이유 없이 자식을 때린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결국 폭력이란 내 소중한 부인이나 자식 등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단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이란 연기의 실상이며 연기법의 체득입니다. 나를 포함한 관계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무명을 깨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간다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행은 비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무명을 깨고 연기실상을 바라보는 것, 나와 너의 관계, 바람직한 모습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속한 집단, 뭇 생명체까지 확대시킨 것이 수행입니다. 내 개인 우리 사회의 뭇생명체 속에서 왜곡된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죠.

과학문명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학의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죠. 이것이 모순입니다. 현재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후에는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비과학적인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의 과학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과학은 당대의 과학과 싸워서 발전합니다. 당대의 과학적 시각을 비평하면서 끊임없이 지평을 넓힐 때 과학은 발전하는 것이죠. 지금의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과학적 사실에서 사실과 진실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어떻게 다릅니까? 진실은 진리에 의해서 사실은 사물의 이치 즉 사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단어로 지칭되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가진 단어 말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개념입니다. 안이비설신의를 통해 만든 의식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말의 세계라는 것은 한정된 조그마한 공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말의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존재는 언어로 구성돼 있습니다.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시대와 문화에 구애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2500년전 부처님 말씀 같이 말이죠. 사실이라는 것은 그 집단의 다수가 믿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중세 때는 네모라고 했잖아요. 둥글다 말하면 화형을 당했습니다.

중세 때 사람과 지금 저희가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지구가 도는 걸 느낄 수 있나요? 둥글다고 말한 과학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일수록 과학적 사실은 변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녀 재판 같은 경우도 당시 권력자가 휘두른 횡포에 무고한 여성이 마녀로 몰렸고 민중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유신정권 시절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도 학생들을 사형선고를 내려 18시간만에 사형시켜버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당시의 사실로 인정돼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처럼 사실과 진실의 틈새는 항상 존재합니다.

인간사는 모두 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사실과 진실로 이루어진 세상의 틈새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실의 연기적 세상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이며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비폭력의 삶이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을 진실에서 떼어내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을 통제하는 자들이 힘과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만드는 사람들 즉 정치 권력자 자본 권력자 언론권력자들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삼성은 노조도 없고 산업 재해도 없습니다.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했던 젊은 여성 근로자들이 백혈병으로 쓰러져 소송을 하니, 자신들이 유리한 자료만 외국회사에 넘겨 이상 없음을 밝혀냈죠. 이렇게 노조도 재해도 없는 기업이 삼성이 돼 버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수행과 비폭력과 사실과 진실의 깨어 있음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바람직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종교를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명이란 것도 관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바라보는 것이고 무명에 가득찬 나를 깨우는 것이 수행이고 비폭력 그 자체입니다. 참선하러 선방에 가보면 가족 다 내팽개치고 몇 년씩 수행만 하시는 재가 거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선방 입승이라면 그분들 다 쫓아버릴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전제한다면 선방에서 도 닦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는 거지요. 아버지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것을 제대로 살리는 게 수행이지 선방에 몇 년 앉아 있는 것이 수행은 아닙니다. 내 가족이나 이웃 중에 힘들어하는 가족이 없는지 아픔이 없는지 살필 때 그것이 수행이고 비폭력이며 부처님 말씀의 길입니다.

불교의 생명윤리는 내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관계성 회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그쪽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 가족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동일한 것입니다.

평상심이 곧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인간사에 늘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노애락 생로병사 애별리고처럼 평범하다는 것은 특별함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본질은 과학 발전 전후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익스피어의 작품이나 〈춘향전〉 같은 작품은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죠.

과학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내 삶의 본질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들 삶을 자본주의 과학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주의와 과학의 눈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부족하다 등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허상을 쫓는 삶입니다. 삶의 모습 이대로가 평범한 것이며 도 통한 것입니다.

결국 생명 존중이라는 것은 관계성에 대한 재인식입니다. 생명존중은 당당하게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면 내 다음 생애에 커다란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명존중을 바라보면서 생명집착을 존중으로 바라보는 이 자본주의 시대의 착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별의별 거 다 먹고 병 고쳐서 살고 이런 것이 생명존중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 저 편에서는 단 1불만 있어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첨단과학 시대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만든 의료 상품들은 가진 자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정말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에 국민세금 투자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불자로서 이렇게 사실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사실과 진실의 틈새에 깨어 있음이 생명존중이며 삶의 윤리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이를 실천을 통해 이루어낸다면 그것이 평범한 삶이며 또 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희종 교수는 … 1958년생으로 서울대 졸업 후 동경대 대학원에서 생명약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의과대 박사 후 연구원, 하버드대 의과대 강사, 보스튼대 의과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중에 있다. 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조계종 생명윤리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생명과학과 선〉〈붓다와 다인이 만난다면〉 등이 있다.

죽음은 부정적 아닌 삶의 한 모습
자본주의 생명존중은 ‘생명집착’
“다수가 믿는 사실과 진실은 달라
불법은 이 틈새를 바라보는 것”

만물은 137억년 시간을 뚫고
모두 함께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단절된 이웃의 손을 잡아주면
그것이 곧 수행이며 생명존중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 험 사 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청담 ART 십이지상 천인황옥(印)

존경하는 스님! 불자님 보살님 사주대중님들!
‘나’를 대신하는 인감도장 낙관 법인감 등을
제대로 된것을 갖추고 계십니까?

혹, 막도장이나 싸구려 등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여기! 세계 하나뿐인 ‘명품’이 있습니다.
이런 천하의 명품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本人의 띠(十二支狀)을 형상화한 천인황옥(印)

주문 ⇒ 생년 월, 일, 시 성명감정 ⇒ 수작업 ⇒ 배송


뱀띠 소띠 토끼띠 양띠 용띠

지금 바로 QRCorD를 쓰마트폰으로 찍어보시거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시면 조각예술품을 감상하실 수 가 있습니다.

WWW.CHEONG DAM ART WORLD.COM
靑潭 아트월드 co (031-912-7112)



(300여년을 이어온 팔공산 염불송)
사라져 가는 팔공산 범음 범패 염불소리를 살리고자
염불인생 50년을 수행해온 (동현)소승이 교육원을
개원하고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신 스님이나 차기후계자의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 께서는 소승에게 맡겨주시면 책임지고 성심껏 지도해드리겠습니다.

(교육현황) ※ 본강원에서는 일반교육은 없습니다.

초급 의식 염불과정		
속성	3개월	주 1 회 매주 : 수요일 오후 3시~6시까지

초급교육과목 : 요령목탁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석. 조석종성염불. 각단예불 행선축원.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구병시식. (상가)시달림염불.

중급의식 과정		
속성	7개월	주 1 회 매주 : 금요일 오후 3시~6시까지

중급교육과목 : 시련. 삼신이운. 104위신중작법. 화천수. 당일천도 및 49제의식. 다비편 방생편. 각종고사 불상 및 탱화점안. 위패접는법. 전오리는법. 사물 지위접는법. 축원문작성. 요잡쇠. 천수북. 정근북 신중작법북. 가지게북. 화청.(회심곡)

작 법		
3개월과정		주 1 회 매주 : 토요일 오후3시~6시까지

교육과목 : 복청게.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모집인원	
초급생 : 20명 중급생 : 20명 작 법 : 10명	2기생 모집기간 : 수시모집 2기생 첫수강일 : 2013년 6월 26일 (수요일. 초급반. 수업시작)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원에 직접나오셔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2동 871-1번지(우방미진하이츠)정문맞은편
TEL : 053)781-4200. 851-2666 HP : 010-3424-0108

“북한 불교문화재 남북교류 기여 신호탄”

강현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 ‘북한불교 이해’ 세미나서

북한 문화재 보존과 관련 장비 지원 등을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현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6월 1일 개최한 ‘북한불교의 이해’ 세미나에서 “남북 경색 국면에서 북한이 현재 경제난 등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내 민족유산 보존 및 활용 분야는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강화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연구원은 이날 북한 내 문화재, 특히 불교문화재가 차지하는 위상을 설명하고 불교계 또한 남북교류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북한은 문화재에 대해 민족유산이란 관점에서 남한의 문화재청과 동일한 문화보존지도국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며 남북 문화재 공동 보존과 연구 분야에 당국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강 연구원이 공개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북한 문화재 지정현황에 따르면 북한 내 문화재 지정은 국보유적 193건, 보존유적 1,723건, 국보유물 83건, 준국보유물 121건, 명승지 223건, 천연기념물 467건. 강 연구원은 여기에 “이 중 사찰건축과 석조물 등 불교건축물이 80건에 달하며 전체 문화재 중 41.5%가 불교유물”며 북한 내에서도 불교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이어 “아직 매장문화재 형태로 사지 등에 잔존한 문화재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많은 수의 불교문화재들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많다”며 불교계의 공동연구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 연구원은 또 문화재를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보존장비 지원을 제시했다. 강 연구원은 “공동조사사업은 북한 특성 상 제한이 많기에 특수지역 외에는 북한이 자체 조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북한박물관과 보존시설 노후화로 인한 훼손으로 이에 대한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북한문화재 42% 불교문화재
매장문화재로 잔존 가능성 높아
공동연구 및 보존시설 지원 필요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종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이 ‘북한 소재 사찰의 불교문헌’을 주제로 그동안 접근이 불가했던 김일성종합대학의 불교도서에 대해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북한 지역 주요 박물관 불교문화재 소장 현황

지역	박물관명	불교문화재 소장현황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영강7년명 금동광배(永康七年銘金銅光背),
		평양 원오리(元五里) 출토 소조 보살입상 등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등의 불교조각 30구 정도 소장
	조선미술관	조선후기 아미타불도 1점 등 불화 다수 소장
개성	고려박물관	전 적조사지 철조불상 등 개성 인근 수집
		고려시대 불교문화재
		불일사 5층탑, 현화사 7층탑 등 석조물 야외전시
함경북도	청진력사박물관	고려시대 금동보살좌상 1구
자강도	강계력사박물관	석왕사 사자모양 놋향로
평안북도	향산력사박물관	팔만대장경, 금동미륵보살반가상, 고려시대
		청동 다라니당(陀羅尼幢), 유점사 범종 등
평안남도	평성력사박물관	금동여래입상 1구, 범종 1점 등
황해북도	사리원력사박물관	고려시대 청동 불보상살 3구, 금강령 등
강원도	원산력사박물관	강원도 석왕사,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등
		사찰과 사지에서 수습한 불상, 향로, 범종 등

이 교수는 “북한 최고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김일성종합대학에도 50여종의 불교도서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1958년도 발간된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도서목록〉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 내에는 〈금강반야바라밀경〉 〈조선한글화엄경〉 〈유마경〉 등 30여종의 경전류와 〈육조법보단경〉 〈대혜보각선사서〉 등 6종의 중국찬술, 〈선가귀감〉 〈선학입문〉등 9종류의 한국찬술 등이 소장돼 있다.

이종수 교수는 “김일성 종합대학 외에도 묘향산 보현사를 비롯한 북한사찰과 북한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등 인문학 연구기관 불교전적 등이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남북공동조사에 앞서 남한에서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 데이터베이스화 등 북한소재 사찰 재산목록 분석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의 ‘북한불교’ 기조강연에 이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의 ‘북한의 불교정책과 북한불교의 변모’ △이노우에나오키 일본 교토부립대 교수의 ‘북한의 고구려 · 고려사원’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 사무처장의 ‘남북한 불교교류의 성과와 과제’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용성사상에서 사회문제 해결 지혜 찾자”

정토회, 6월 4일 용성조사 탄신기념 심포지엄서 한 목소리

“용성 스님이 제시한 불교의 생활화 · 대중화 · 지성화는 현재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상입니다. 용성 스님의 불교개혁운동에 따라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은 정토회(지도법사 법륜)가 개최한 ‘2013용성조사 탄신기념심포지엄’에서 용성 스님의 불교개혁운동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마성 스님은 ‘용성진종의 불교개혁운동’에서 일제시대 불교계의 개혁안이 승단 세속화를 가중시켰기에 용성 스님은 승단 청정화를 통해 조선불교 전통을 고수하고 새로운 교화활동을 전개했다고 평가했다.

마성 스님은 이날 “불교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붓다의 가르침에는 잘못이 없으며 바꿔야 할 것도 없기 때문”이라며 “용성 스님은 그 가르침을 전하는 방법을 시대에 맞춰 변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성 스님은 용성 스님의 불교개혁운동을 △승단정화운동 △계법중흥운동 △불교의례개혁운동 △선농불교운동으로 나눠 설명했다.

마성 스님은 “승단정화와 계법 중흥은 조선불교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것이며, 불교의례개혁과 선농불교운동은 시대에 맞는 교화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용성 스님은 무엇보다도 황폐화된 승단의 개혁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조선불교의 면모가 퇴색돼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재영 동방불교대 교수는 ‘용성 선사의 불교대중화운동’에서 “지금까지 우리 불교는 앉아서 생각으로, 또는 입으로 내세우는 구습에 깊이 물들여져 왔다”며 “용성 스님이 현장으로 달려갔듯 우리 불자들도 현장불교에서 활발히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성 스님


김재영 교수


임형진 교수

임형진 경희대 교수는 ‘용성,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다’에서 “용성 스님의 불교경전 한글역경과 불교대중화 운동은 한국 민족주의 전형”이라며 “용성 스님이 존경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오늘날 한반도는 전쟁위기를 비롯해 양극화 심화, 공동체 붕괴, 자연환경 파괴 등 온갖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며 “심포지엄을 통해 용성조사를 만나고 이 시대의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지혜를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는 법륜 스님을 비롯해, 박남수 천도교 교령, 박유철 광복회 회장, 불교TV 대표이사 성우 스님, 정세균 민주당 국회의원 등 내외빈 신도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일본불교 백제불교 흐름 남아 있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동양미술사학회 한일학술심포지움

일본불교에 백제 불교 문화의 영향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배병선)와 동양미술사학회는 6월 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3 한일학술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한나래 국립부여문화연구소 학예연구사는 ‘6~7세기 백제와 일본 사찰건축 비교연구’라는 발표에서 “일본의 1탑 1금당 가람배치는 백제 가람을 참고하고 조영 여건 및 주체에 따라 다른 가람 양식을 폭넓게 채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연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삼론학 강요서(綱要書)의 유통을 통해 본 백제 불교학의 일본 불교에의 영향’ 발표에서 “일본 불교학 형성과 발전에 백제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한정호 동국대 교수는 ‘백제 불전장엄이 신라와 일본에 미친 영향’ 발표에서 일본 건축의 금송장식 문양에서 백제불교와 일본불교의 공통점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이날 학술심포지움에서는 △최문정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의 ‘백제 사비기와 일본 아스카데라(飛鳥)시대 궁원 비교연구’, △이병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의 ‘백제에서 본 아스카데라지(飛鳥寺)에 파견된 와박사(瓦博士)의 성격’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추사박물관, ‘추사의 삶과 교유’ 세미나

6월 12일 과천시민회관 3층 소극장에서 개관 기념 개최

과천시 추사박물관은 6월 3일 오후 2시 ‘추사의 삶과 교유’를 주제로 개관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병기 전북대 교수의 ‘추사의 생애와 서예분기의 상관성’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소장의 ‘조선 후기 추사가 차문화 중흥에 미친 영향’ △이종덕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의 ‘추사의 한글편지’ △김상엽 인천대 겸임교수의 ‘추사와 소치 허련’ 등이 발표된다. 토론은 이충구 추사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박철상 책과그림 공동대표, 정서경 목포대 교수, 이병기 한림대 교수 등이 나선다.

노덕현 기자

불교 일본 종속 막은 ‘원기 선사’ 재조명

6월 14일, 동국대 다향관서 세미나실에서 학술세미나

‘경운원기 선양실천회’(위원장 호명)는 6월 14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향관에서 경운 원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살피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경운 원기 스님은 친일불교에 대항해 박한영(朴漢永) 오성월(吳惺月) 한용윤(韓龍雲) 스님 등과 함께 임제종(臨濟宗)을 설립한 선사다. 당시 원기 스님은 임제종 관장으로 한국불교를 일본불교에 종속시키려는 음모를 막아냈다.

학술대회에서는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의 ‘경운 원기 스님의 불교사적 위상’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근대 선암사의 화엄종풍’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화엄종주 경운 운기의 사상’ △김경집 위덕대 교수의 ‘근대 경운 운기의 활동’ △진철문 동국대 교수의 ‘서화에 나타난 예술세계’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불광연구원 ‘역사교과서의 불교’ 학술대회

6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논의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역사와교육학회와 공동으로 6월 15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초 · 중 · 고 역사교과서의 불교 서술체제와 내용’을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연찬회에서는 총46종 65책에 이르는 초중고 역사교과서의 개선책이 모색된다. 연찬회에는 △신선혜 고려대 박사의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황인규 동국대 교수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노덕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앰프, 스피커를 구입하시는 스님 20분께
“고급 앰프케이스”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무료 보시 기한 : 2013년 6월 30일까지 선착순 20개 사찰)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고음질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방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한국 전통차(茶) 힐링 문화 핵심으로”

한국차문화학회, 6월 1일 차 문화 학술대회

최근 힐링열풍과 함께 우리 차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 차 문화의 발전방향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사)한국차문화학회(회장 조기정, 목포대 교수)는 6월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 차문화교육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5회째 맞이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조기종 회장은 ‘차(茶) 업계의 현황 문제점과 발전 방안’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 차문화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조 회장이 지적한 문제로는 △지역·조직간 협력 리더십 미흡 △차생활의 형식화, 고급화, 사치화 △차 산업의 중요가치 인식부족 △다례 체험예절 인성교육 확산 미흡 △전통 차 생활 문화보급 미흡 △산업계와의 소통 부재 △차 문화 및 관광 상품 개발 등이다.

조 회장은 이를 극복하기위한 방안으로 “한국 차 문화 산업 발전 협의회 등 중앙 조직의 결성이 필요하며, 차생활지도사 양성 및 자격제도화, 학교 다례체험교육 활성화에 대한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일반인들이 차 생활의 활성화와 차 문화 상품, 관광 상품 적극적 개발과 다양화, 간편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기조강연에 이어 △박애자 전남과학대 교수의 ‘다도활동이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공귀옥 조선대 교수의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한 차생활’ △서은주 한서대 교수의 ‘유아음악교육과 유아다례교육의 통합을 위한 창의성놀이 프로그램 모형개발’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청소년 다도 프로그램 등 제시
차 문화 관광 상품 개발 기대

특히 행사 주제에 맞춰 유치원, 초등학교, 청소년, 유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서 진행된 우리 차에 대한 교육사례들이 발표돼 큰 관심을 끌었다.

박애자 교수는 한국에 온 중국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 효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대부분 학생들이 한국의 차문화 느낌을 ‘담백’, ‘자연의 느낌’, ‘정중·차분함’, ‘예의 바름’이라고 느꼈다”며 “차문화 공유를 통한 동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6월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술대회에는 여연 스님, 조기정 목포대 교수 등 많은 차인인들 동참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공귀옥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발전을 위해 간과했던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부족이 오늘날 폭력, 따돌림, 인터넷 중독, 자살 등의 생활 문제로 드러났다”며 “차생활 교육은 그동안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론 중심의 인성교육에서 벗어나, 전통적 인성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아다례교육에 대해서 서은주 교수는 “현재 유아교육 과정에서 유아의 창의력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창의성 다례놀이 프로그램으로 △양손으로 다례놀이 △이미지 다례놀이 △긴장이완 다례놀이 △오감으로 느끼는 다례놀이 △패턴인식 다례놀이 등을 유아교육과정으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연 스님(백련사 주지), 조기정 교수를 비롯해 차(茶) 동호회 등 200여명의 대중들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를 개최한 조기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차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 중관유식 전문 승가대학원 출범

종단 최초로 중관유식 사상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승가대학원이 문을 연다.

장성 백양사(주지 진우)는 5월 29일부터 6월 25일까지 중관유식승가대학원 모집을 진행하고 7월 1일 첫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승가대학원은 조계종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비구·비구니는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 필기와 면접을 통해 합격여부는 6월 27일 발표된다. 중관유식승가대학원은 상주와 통학의 두가지 방법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말사 소임자 스님들도 입학이 가능하다. 학과과정은 〈대승기신론〉과 〈유가사지론〉 등이 진행된다.

중관유식승가대학원 운영위원장 진우스님은 “유식학의 재조명과 현대심리치료학과의 소통적 연구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양사는 대학원 개강에 앞서 6월 1일 교육관에서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를 초빙해 ‘불교사상사와 수행론에서 본 유식학의 위치’ 주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안 교수는 이날 “유식(唯識)은 수행과 분리돼 있지 않으며, 부처님의 다양한 대기설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어 “완전한 깨달음의 이르는 길을 체계화 한 것이 유식학”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천클럽, 외국인 노동자 한마당 높은 인기

전북 완주 3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어울림 한마당이 열렸다.

전주 천천클럽(회장 오종근)은 6월 2일 완주군 봉동읍 현대자동차 인화관에서 네팔,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 13개국 350여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외국인 노동자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현대차 노조와 송광사, 금선암, 원경사 등에서 후원한 이날 행사는 고국과 가족 곁을 떠나 기피업종에 종사하며 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충과 외로움을 달래는 자리였다.

행사에서는 현대자동차 민속극회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제기차기, 투호, 단체 줄넘기 등 간단한 게임이 진행됐다.

또 레크레이션과 부채춤 등으로 푸짐한 경품이 전달됐다. 이와 함께 재활용 옷 1000여 점이 이주민들에게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 한사랑 봉사단이 노동자들을 위한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 전북유일의 불교사회적 기업인 비사벌코리아 직원들이 봉사 도우미로 활동했다.

정용기 전주 천천클럽 운영위원장은 “낯선 타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근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호국선사 처영 스님 기리는 기념관 건립

6월 2일 김제 금산사에서 상량식 봉행


상량식에서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기념관은 약 200평 규모로 지어진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끈 뇌묵당 처영 대사의 호국불교정신을 기리는 ‘뇌묵당 처영대사 역사문화기념관’ 상량식이 6월 2일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상량식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주지 원행 스님, 남고사 원혜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김승수 전북정무부지사, 이석봉 김제부시장, 최규성 국회의원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원행 스님은 “정조대왕으로부터 서산, 사명대사와 함께 구국삼화상으로 추존된 처영대사의 배례각이 없어 안타까워하던 중 이번에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건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처영대사의 호국불교정신을 이어받아 올바른 가치관과 진리관으로 정신문화 창달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상량을 마친 뇌묵당 처영대사 역사문화기념관은 661㎡(198평) 규모로 전면 11칸 측면 5칸 일출목 다포(구량식)형식으로 건립된다. 금산사 측은 역사문화기념관 완공 후 서산, 사명, 처영대사의 구국삼화상 호국정신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과 사하촌이 함께하는 잔치마당

6월 1일 꽃피움절 산사음악회, 200여 주민 참여 성황



산사음악회에서 꽃피움절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동구 밖 과수원 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사찰과 사하촌이 함께 여흥을 즐기는 잔치가 벌어졌다.

광주 꽃피움절(주지 목언)은 6월 1일 광주 각화정수장 공원에서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Art-通 등과 함께 ‘피움의 소리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스님, 백양사 원응 스님, 목언 스님, 윤영선 더함 대표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바람, 들꽃, 여울물 소리, 길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문화초등학교 학생들의 댄스를 시작으로 오카리나 공연과 통기타, 플룻과 카온 연주 등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전남대 국악실내악단의 한국무용과 민요, 불자가수 주권기, 추억만들기, 전자바이롤린의 공연이 진행됐다.

목언 스님은 “작은 음악회이지만 참여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매년 2번의 음악회를 통해 마을 식구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숭림사 유학생 한국불교 체험 진행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는 6월 1일 원광대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초정해 불교문화와 한국전통을 체험하는 자리를 열었다.

중국, 케냐, 가봉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유학생 45명은 이날 행사에서 숭림사 주지 지광 스님의 지도로 한국 전통사찰 건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발우공양, 108참회, 참선, 걷기명상 등 수행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들은 예전에 용궁사가 있었다고 알려진 웅포 곰개나루 덕양정과 함라면의 삼부자 고택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가옥과 생활상,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도 했다.

지광 스님은 “유학생들의 한국불교 문화체험은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학 후 본국에 돌아가 양국문화를 이해하고 우호를 증진하는데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유학생 강해언 씨는 “숲속에 자리한 산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며 “108배와 참선을 하며 마음을 비우고 나 자신과 부모님, 나아가 내 삶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중국에서 온 장연 씨는 “중국에서는 불교에 대해 자세히 알 기회가 적었다”며 “발우공양은 매우 엄숙하고 생태지양적인 식사법 같다”고 말했다.

가봉에서 온 기슬라인 씨는 “108배를 하고나니 팔 다리가 아프지만 마치고 나니 매우 상쾌했다”며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어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숭림사는 평소 동남아 불교국가출신 노동자들의 법당인 사티법당을 후원해오고 있으며 포교일환으로 5월 31일 음식문화체험관과 다도체험관인 향적당을 준공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61년만에 한국 찾은 UN참전용사

홍법사 '한반도 평화기원 호국의숨결대회'



부산 홍법사에서는 정전60주년을 맞아 6월 6일 UN참전용사와 가족 12명을 초청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호국의숨결대회를 개최했다.

"배를 타고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보이는 모든 것이 폐허였는데 60년 만에 와보니 눈부신 발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동료 미군들이 이 땅에 묻혀 있지만 많은 한국인들도 희생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끝이 나야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을 더욱 아름답고 평화롭게 가꾸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Burke, John T. (대령, 82세)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에서는 정전60주년을 맞아 UN참전용사와 가족 12명을 초청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호국의숨결대회를 개최했다. 6월6일 현충일을 맞아 부산 홍법사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61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용사 4명과 그 일가족 8명을 포함 총 12명이 참여했다.

참전용사 UN묘지 참배 등 평화 염원 되새겨

이 자리에는 호국의숨결대회 조직위원장 심산 스님을 비롯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대회 집행위원장 설동근 동명대학교 총장, 운영위원장 정홍섭 전 신라대학교 총장, 정호섭 해군작전사령관, 김세연 국회의원 등 시민·불자 5천 여 명이 함께 먼 이국에서 순직한 UN용사들과 호국선열에 추모했다.

이날 행사는 1부 호국선열 추모대재인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2부 개회식, 3부 호국의 숨결대회(글짓기, 사생대회, 서예대회)로 진행됐다.

호국의숨결 조직위원장 심산 스님은 "정전 6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부산에서 대대적으로 개최되는 한반도평화기원대법회를 앞두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UN참전용사들을 초청하게 됐다"며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한 그들의 숭고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매년 초청해 평화의 정신을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지만, 한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업적만은 없어지지 않는다. 세계평화와 인류 행복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며, 그 공덕으로 더욱 행복하고 장수하시길 바란다"고 전한 후 "한반도평화대회를 원만 성취해서 7천만 민족이 하나되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중흥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참전 용사들은 6월 4일 범어사(주지 수불)를 방문했다. 한반도평화대회 상임운영위원장 수불 스님은 "오는 9월 한반도평화대회에 보다 많은 분들을 초대해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의 마음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초대된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은 6월 2일~11일까지 한국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부산 UN묘지 참배, 대한해협 해전이 있었던 부산 앞바다 항해체험, 동명대학교 ROTC 격파와 환영만찬회, 홍법사 토크콘서트 △범어사 방문, 경주 천마총 관광 △울산 현대자동차 시찰, 홈스테이 △부산 홍법사 호국의 숨결대회 △서울 군부대 방문 △한국전쟁기념관 조계종 공식행사, 템플스테이 등을 마치고 11일 출국했다.

부산 박경수지사장

'함께하는세상' 한-라오스 친선교류 나서

반송붓다봉 스님 초청 강연

한국과 라오스가 불교계 주도로 친선 교류협력 강화에 나섰다.

국제불교교류 단체인 '함께하는세상'은 5월 31일 대구 프린호텔에서 라오스 생 쾅주 불교협회장인 '반솜 붓다봉 스님을 초청 특별강연 및 한-라오스 친선교류의 밤 행사를 가졌다.

'함께하는 세상' 이사장 지성 스님은 "부처님의 자리이타 정신으로 세계인이 이웃 되는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나눔의 자비행을 실천하여 나가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서 특강에 나선 라오스의 붓다봉 스님은 "앞으로 한국 불자들과 우정을 다져 나가겠다"며 한국 불교계와의 교류에 기대를 나타냈다.


국제불교교류 단체인 '함께하는세상'은 5월 31일 저녁 대구 프린호텔에서 라오스 생 쾅주 불교협회장인 '반솜 붓다봉 스님을 초청 특별강연 및 한-라오스 친선교류의 밤 행사를 가졌다.

함께하는 세상은 올해부터 라오스 생쾅주 지역의 사찰과 학교 개보수 사업을 3개년 계획으로 진행하는 등 라오스와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교대학 청소년 교육공간으로

문수불교대 한자교실 개강


한자교실 개강에 참여한 신도들

사찰이 인근 지역 초등학교와 함께 한자교육과 심신 교육 프로그램에 나섰다. 대구 북구에 위치한 '문수불교대학' 문수사에서는 6월 1일 초등학생과 학부모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자교실 개강식을 가졌다.

문수불교대학 포교원장 범진 스님은 사찰이 사회의 열린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청소년 교육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다. 종교지도자인 스님들도 법당을 사회교육 시설로 개방해 관심 있는 청소년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기도도량 맥 이어나가겠다

삼광사 신도회장에 이헌승 국회의원 취임


신도회장 취임식 장면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스님) 제18대 신도회장에 새누리당 이헌승(부산진을) 국회의원이 취임했다.

전임 김석조(부산시의회 의장)회장은 삼광사 고문과 명예회장으로 임명됐다. 이헌승 신임 신도회장은 지난 6월 1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주지 무원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이헌승 신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천태종 중창이념을 받들어 불교의 애국화, 생활화, 대중화에 힘쓰고, 삼광사의 경이로운 역사를 더욱 빛내서 여법한 기도도량의 맥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의 계단은 중요한 경관요소

우리나라 사찰의 계단 가운데에서 불국사의 청운·백운교와 연화·칠보교의 아름다움을 따라 갈만한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건축물을 대상으로 생각해봐도 불국사의 계단처럼 조형성과 상징성을 철철 넘치도록 표현하고 있는 대상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불국사가 창건된 것이 751년도이니, 불국사 계단의 나이는 1250살이나 된다. 그 시대에 만든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세련된 디자인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계단에 그렇게 깊은 의미를 부여한 이는 과연 누구였던가!

청운·백운교를 오르면 자하문(紫霞門)을 지나 석가모니부처님이 상주하시는 불국정토로 들어가게 되고, 연화·칠보교로 오르면 안양문(安養門)을 지나 아미타부처님이 상주하시는 극락정토로 들어가게 된다. 그야말로 청운·백운교와 연화·칠보교는 불국토로 들어가는 관문인 셈이다.

계단을 다리(橋)라고 이름붙인 것은 속의 세계에서 성의 세계로 넘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사찰의 계단가운데에서 교라고 이름붙인 계단이 이곳 말고는 없으니 불국사는 계단마저도 다리라고 상상할 정도의 고차원적인 디자인이 남아있는 곳이며, 그 당시에 활동한 세계적 디자이너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상상력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래전부터 그러했듯이 최근에도 사찰에서 계단을 만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사찰이 산지에 자리를 잡다보니 지형의 높낮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단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날 사찰에서 공들여 계단을 만들고 그것에 의미까지도 부여한 것과는 달리 요즘 만들어지는 계단은 디자인적으로 옳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다. 계단이야 건물처럼 뚜렷이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어서 그런지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그러나 사찰에서 중요하지 않은 조형물이 어디에 있고 중요한 조형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부처님 도량을 장엄하는 것이라면 모두 소중한 것이고, 또한 정성들여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석조계단을 만들면서 목조난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발파석으로 계단 돌을 사용하여 오래된 사찰의 경관과 부조화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새로 만드는 사찰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성을 수용하여 한국사찰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거늘 고찰의 경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화강석 물갈기한 계단은 고찰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 경상북도 ㅂ사찰



아름다운동행 대한불교조계종

학교건립 불사

극심한 가뭄과 기아, 질병
그리고 부족한 배움의 기회로 인해
아프리카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 건립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후원참여]
[벽돌 한장] 10,000원
[책상·의자] 50,000원
[땅 한평] 100,000원
[식수대] 300,000원
[컴퓨터] 1,000,000원
[교실 한동] 10,000,000원
[법당(10명)] 50,000,000원

[후원계좌] 농협 301-0112-9859-5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후원문의] www.thenanum.org T. 02-737-9595 F. 02-737-9195
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남산 늠비봉 5층 석탑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답사단원들. 늠비봉 석탑은 특이하게 자연 암석을 기단으로 삼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일명 황금불상이라고 불리는 포석곡 제5사지 마애여래좌상.



최민희 소장이 남산불적답사단원들에게 황금마애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적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는 답사단원들.

천년 경주 지킨 土城… 불국토로 들어가는 입구였네

남산에서 불국토 가는 길을 찾아서

산은 1년 내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일은 없다. 경주의 대표적인 명산인 남산도 마찬가지다. 봄과 여름의 문턱, 6월의 남산은 알록한 봄 옷을 벗고 푸르른 신록의 옷을 입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산에 오를 수 있는 등산로는 약 70여 곳. 신라문화원 남산불적답사단은 이번 답사의 시작을 경주 산업도로 인근 '60 고개'로 오르는 등산로 입구를 택했다. 경주 토박이들이 지었을 법한 '60 고개'는 60살 이상의 어르신도 완만히 오를 수 있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산 · 도당산 토성은 원래 하나

원만한 고개와 산업 도로 사이에는 알으막한 두 산들이 존재한다. 이곳이 바로 남산 토성과 도당산 토성이다. 남산에는 이외에도 남산신성과 고허성 등 총 4개의 산성지가 존재한다. 이들 성곽들의 축성 연대는 경주 중심에 자리했던 월성과 이격 거리가 가까울수록 빠르며, 축조기법은 토성에서 석성으로 발전해 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산 토성과 도당산 토성은 경주 산업도로를 가운데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 연구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본래 남산 토성과 도당산 토성은 연결돼 있는 하나의 산성이었다. 실제 2000년 남산 종합정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남산토성과 도당산 토성의 단면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판축(版築, 판자를 양쪽에 대고 그 사이에 흙을 넣어서 단단하게 다져 담이나 성벽 등을 쌓는 일)을 했던 성벽 일부가 나타났다.

"남산 종합정비 기본 계획을 통해 총 5곳의 탐색갱에서 판축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는 남산 토성과 도당산 토성이 따로 존재하는 두 개의 산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경주시가 도당산 토성과 남산 토성을 연결하는 생태 터널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생태 복원도 중요하지만 신라시대의 성벽 복원에 더 의미를 두고 조성해야 합니다."

굽이굽이 능선을 따라가니

남산토성의 굽이진 산길에 올랐다. 10여 분을 오르니 남산신성의 북문터가 나타난다. 석조로 축조된 남산신성의 대부분의 유구들은 세월에 의해 사라졌지만 일부 구간에는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한 성벽들이 존재한다. 신성의 입구에서 최 소장은 "이곳이 신라시대 남산을 오르는 입구"라며 "여기를 통해 사람도 달구지도 전령도 지나다녔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내부 최대 너비는 동서로 1.1km, 남북으로 1.4km이며, 내부 면적은 1,007,280㎡로 확인된다. 성 내부에는 창고, 문지, 망대 등 유구들의 터가 남아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창, 동창, 중창으로 대변되는 창고지다. 신성의 북문지를 지나 삼화령을 넘어 해목령으로 가는 평탄한 정상 인근에 창고지가 있다. 각 창고의 성격을 살펴 보면 중창은 곡식을 저장했던 창고이며, 좌창과 우창은 무기를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에는 이 같은 창고를 관리하던 부속 건물들도 존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남산신성의 존재는 남산신성비가 발견되면서 확고해졌다. 현재까지 총 10기의 비문이 발견됐는데, 비에는 축성에 참여한 인물들의 관직명, 출신지, 축성거리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남산신성비는 성곽 축조 당시의 담당 구역 및 경계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는 당시 지방행정제도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문무왕 때 대대적인 증축이 이뤄지고 난 후 왕성인 월성과 함께 도성 방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곽으로 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산과 도당산 토성은
연결됐을 가능성 높아
산업 개발 훼손은 아쉬움
능선 주위 석탑 · 마애불 산재
'남산=불국토' 새삼 일깨워
능비봉 5층 석탑 하늘 닿을 듯

오롯이 선 석탑은 신라인의 佛心

신성의 창고지와 게눈바위가 있는 해목령(蟹目嶺, 게눈 고개)를 지나면 현존 사찰인 부흥사가 나온다. 부흥사를 가로지르면 늠비봉에 오를 수 있는 능선길이 나온다. 능선을 따라오르면 곳곳에 구불텅하게 높이 뻗어있는 소나무 숲이 장관이다.

구슬땀을 흘리며 도착한 늠비봉의 넉넉한 봉우리 위에는 5층 석탑이 오롯이 서 있다. 그 모습을 보며 당시 웅장했을 천년 전 남산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석탑의 옆에 서니 외동평야부터 경주 시가지까지 옛 화려했던 서라벌이 한눈에 굽어보인다. 신라인들은 이곳에서 석탑을 세우고 신라가 불국토의 현현이 되길 기원했을 것이다.

늠비골 정상 5층 석탑은 흩어져 있던 석재들을 모아 2002년 2월 복원한 것으로 그 구조가 매우 특이하다. 하부기단을 생략해 자연 암반을 단층 기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조형미를 살펴보면 신라시대 석탑보다는 고려시대 석탑형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는 경주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양식의 구조라는 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남산 중간 이상의 석탑들은 대부분은 기단 하부를 암반으로 하는 양식이 많습니다. 남산 자체를 탑의 하부로 사용한 독특한 구조입니다. 늠비골 5층 석탑은 경상도 지역에서 신라시대 석탑 양식을 벗어나 백제계 석탑 양식을 수용한 것이여서 그 가치가 큽니다."

늠비봉 5층석탑을 친견했으면 꼭 봐야할 것이 황금마애불이다. 부흥사로 다시 내려와 조그만 오솔길로 내려가면 황금불상이라고 불리는 마애여래좌상이 있다. 이 마애불을 황금불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불상이 선각된 바위가 황토빛을 띄고 있어서다. 이곳에서는 늠비봉 5층석탑이 바로 보이고 남쪽으로 황금대 능선이 수려히 펼쳐진다.

"남산에 조형된 마애불과 불상들을 답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불상의 시선입니다. 대부분의 시선 위치는 산 정상을 향하거나 계곡 아래를 굽여봅니다. 황금 마애불의 경우에는 늠비봉을 향하고 있습니다."

황금마애불의 불신(佛身)은 그 형태가 선명히 남아 있지만, 얼굴은 박락이 심해 알아볼 수 없다. 누군가 훼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훼손은 불상의 영험함을 믿은 민초들이 가피를 받기 위한 것일 게다.

초여름 따가운 햇살을 맞으며 오른 남산. 신라인에게 남산은 부처님이 상주하신 곳이었다. 그런 이유로 남산을 기단으로 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했다. 천년의 세월이 지나 흩어진 석재만 존재해도 신라인들의 불심만은 오롯이 남산 안에 남았다.

경주=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사 · 신라문화원
7월 경주 남산불적답사

- 주제 : 신라인들의 불성 조성 방법을 찾아서
- 일시 : 7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도시락, 필기구
- 동참 비용 : 2만원 (회원, 학생 1만8천원)
- 문의 : 054)774-1950, www.silla.or.kr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옛말 그대로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그 "조왕탱화"
사업장의 조왕신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을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더해가는 전통탱화입니다.





초안 (먹물 밑그림)



상호 (전통조왕상호)



문양 (고대문양)

조왕탱화 상세안내

1 정의 :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2 유래 :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3 명호 :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4 구성 :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5 한국의 대표적인 조왕탱화 : 양산 통도사 비로암, 충남 계룡산 갑사, 대구 팔공산 선본사,
부산 삼광사, 경남 밀양 표충사
6 필수 :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7 내용 :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기법 : (1) 출초 – (2) 배접 – (3) 아교포수 – (4) 도채 –
(5) 바림 – (6) 문양 – (7) 금니 및 황선 쫓침 – (8) 금박붙이기 –
(9) 상호 – (10) 틀 싣기 – (11) 발미(전통기법 그대로!)
■ 금어 : 원장 – 전국 공모전 불교미술분과 심사위원
화원 – 문화재 기술자, 기능자, 전수자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규격 : 가로 61cm × 세로 91.5cm
■ 문의전화 : ☎ 051)332-0045 / 010-9216-0988

성 유 불 화 원 금어 조성철 합장



태경 스님
조계종 포교원 의례위원

“의례, 불자들 감흥 이끌어내야”



이도흠
한양대 교수

“한글화, 중학생도 이해 가능토록”



한상길
동국대 전임연구원

“전통 기반해 시대 맞는 의례 개발”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쉬운 일상의례 통해 자발적 참여를”

의례, 불교 정신 전달의 보루… 쉽고, 시대 맞게 변화해야

불교평론 제53호 특집

‘불교의례 이대로 좋은가’

종교에서 의례는 종교적 감동을 전달하는 방편으로 활용돼 왔다. 그렇기에 전통에 따르면서도 그 시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례가 행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항상 있어왔다.

최근 수륙재의 문화재 지정과 의례 한글화 등 불교의례 보전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평론〉(주간 홍사성)이 2013년 여름호 특집으로 ‘불교의례 이대로 좋은가’를 기획 게재했다. 〈불교평론〉 특집에는 총 7편의 논문이 실렸다. 이중 의례 대중화와 한글화 등의 방향을 제시한 논문 4편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주〉



2002년 열린 목탁의식 집전 교육모습. 시대에 맞는 의식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례의 내용은 교리와 합치하는가

한국 불교의례를 논할 때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의례’란 용어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어떤 것이 불교적 의례이며, 어디까지가 가장 불교적 의식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불교의례’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굴과 움직이는 모습 하나하나에 잘 본받아 담아내는 법’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불교는 중국의 불교 변용에 우리의 변용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종파불교를 지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선교 양종의 형태를 취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국불교는 불복장, 신중신앙 〈천수경〉무상계 등 우리만의 불교를 만들어내는 저력을 보였다.

교의 시작으로 선의 실천에 들어가는 구조인 〈석문의범〉은 1930년대 서구 종교와 일본 불교의 유입으로 변혁기를 맞이한 불교계가 사용하기 용이한 의례를 보급하기 위해 발간했다.

〈석문의범〉은 현장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한문과 한글을 상하단으로 병기하며, 다양한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권으로 최소화하였다. 또 내용은 교의 방편과 선의 실천으로 한국불교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다.

〈석문의범〉은 전통의 계승,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다. 진언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비불교적 요소로 보이는 것조차도 지역의 전통문화를 불교적으로 재해석한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란 황엽과 같은 방편을 방편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다. 그 결과 본래 부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지송하는 의례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의례가 불자들에게 종교적 감흥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며, 의례가 불자들에게 가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재해석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석문의 의무이며, 의범에서 보이는 가치와 역할이 아닌가 한다.

〈조계종 포교원 의례위원 태경 스님〉

불교의례 한글화 원칙과 지향점

불교의례는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1700년 전부터 행해졌다. 수계 · 일상의례 · 불공 · 천도의식 등 시대마다 의례는 조금씩 모습이 변모해왔다. 하지만 불교의례는 한국 대중의 삶에 녹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불교의례가 ‘완전히 한국화’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참여와 공감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깨달음과 회향에 이른다는 불교의례의 목적과도 완전히 부합하지 못했다. 쉬운 예로 스님들이 한문으로 된 의식문을 읽으면 대중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듣기만 하다가 예배가 끝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또, 〈반야심경〉이 2011년에 한글로 역경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글로 읽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선 사찰에서는 대개 스님 홀로 한문으로 된 의식문을 읽고 대중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예불을 끝내는 게 다반사다.

강요된 의례는 불교에 대한 대중의 외면으로 이어진다. 불교의례의 목적인 깨달음과 중생구제의 회향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불교의례는 대중화를 지향해야 한다. 의식문을 한글화하고 의례를 현대 대중의 삶과 어울릴 수 있게 끔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글화는 중학생 정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낱말로 바꿔야 하며, 원문에 충실하되 간결하게, 문체미를 살리며 복원한다. 진언은 범어의 원음과 가깝게 표기하는 게 맞다. 3.4조나 4.4조로 바꾸어 문장을 구성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한국인의 정서와 호흡에 맞는 율격은 대중의 공감은 물론 의례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글 불교의례는 우리가 함께 가꿔 나가야 할 한국불교의 중요한 자산이자 삶이다. 불교의례를 통해 대중들은 소망을 실현하고 사회적 치유를 경험한다. 그렇기에 경전과 의식문은 사람들이 가슴으로 느껴 부처에게 다가가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의미전달과 함께 수사, 율격과 같은 형식적 장치가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

근대불교 의례개혁과 불교대중화

근대사의 시작과 함께 다양한 개혁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울려퍼졌다. 불교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선왕조 수 백년 간 억압과 차별에 방치된 불교는 근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었다.

〈독립신문〉, 〈횡성신문〉, 〈매일신보〉 등은 근대적 계몽의 일환으로 중세적 관습 철폐를 주장하며 불교 천도재와 재공양, 각종 제사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불교계 내에서도 한용운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의례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불교의례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문화와 전통이었고 삶의 일부였다. 억불 시대에도 영산재와 수륙재가 꾸준히 계속됐으며 연등회는 세시풍속으로 정착됐다.

일제강점기 압제 하에도 불교의례는 성행했고, 특히 범패는 전문 의식승들의 전수와 교육으로 계보가 형성되기도 했다. 서울 근교 유명사찰은 일년 내내 각종 재공양이 끊이지 않을 정도였다.

불교의례의 대표적 사례인 수륙재는 불교 대중화와 사회화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했다. 1903년 원흥사 1914년 봉은사에서 수만명이 운집한 수륙재는 포교와 신앙 증대에 큰 기열르 했다. 이는 단순히 불교의례를 더나 망국 백성들에게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기쁨을 주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불교의례는 종교의례를 넘어 민족문화와 정신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결국 근대화를 위한 의례개혁에도 전통의례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의례개혁은 전통의례가 가진 원형의 가치를 인정한 바탕 위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례를 창안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한상길 동국대 전임연구원〉

불교의례의 문제와 개선방향

불교의례 개혁 논의는 구한말 이래 계속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불교의례 개혁이 원점에서 맴도는 이유는 실제로 전통적인 의례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 사례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통의례는 일반 신도들에게 매우 불친절하다. 여기서 불친절이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복잡한 절차와 의미를 알 수 없는 언어는 초심자뿐만 아니라 오래 절에 다닌 신도들에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유교적 전통에도 익숙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불교의례는 더욱 낯설다. 그들은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통해 자기변화의 체험을 원한다. 복잡하고 권위적인 사찰의 예법이나 형식적인 의례는 거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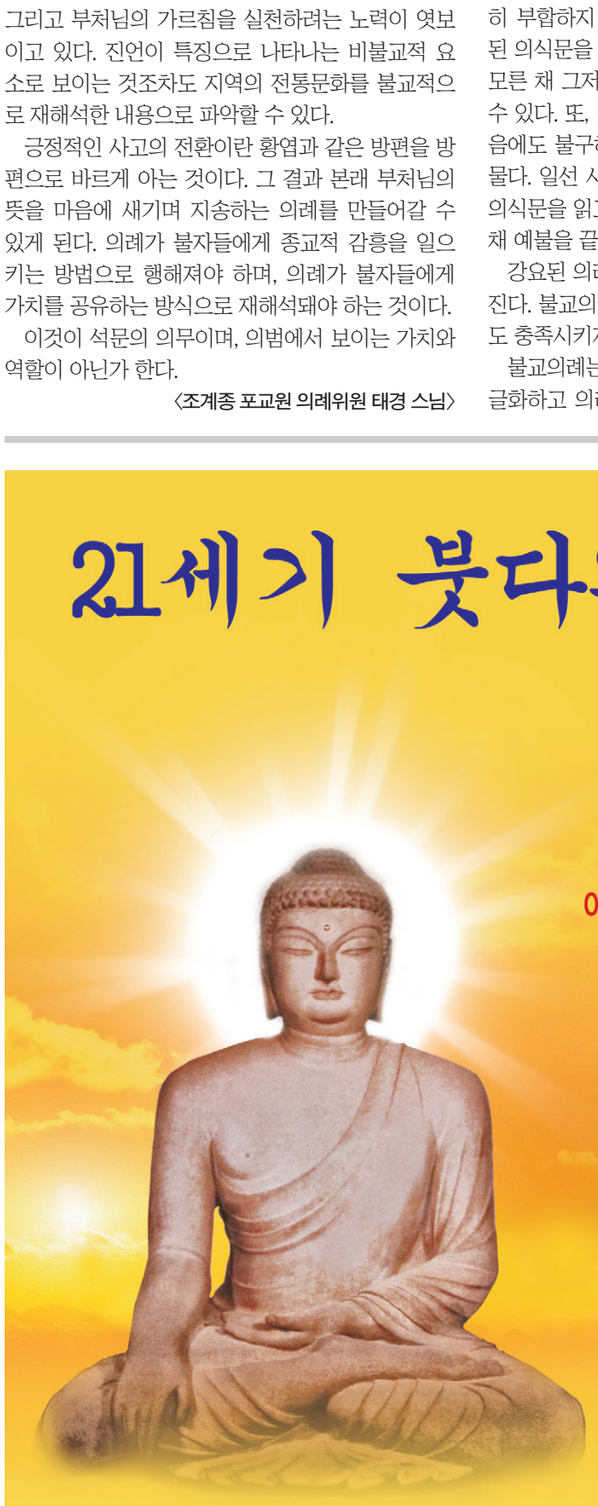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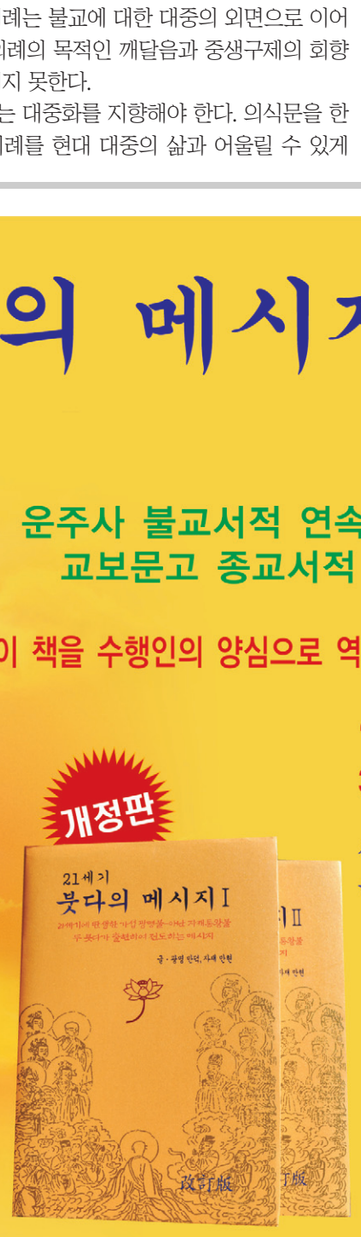
따라서 전통의례는 비합리성과 소통 불능, 의미를 알 수 없는 상징들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접근하기 어렵고 전근대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것이 전통 의례의 문제점이다.

불교의례는 자기 성찰과 깊은 무의식과의 접촉이 발생하는 통로이다. 현행 의례로는 그런 종교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례의 생명은 자발성과 경건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의례는 지나치게 긴 경향이 있어 집중도를 떨어뜨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또 자발성과 주체정이 사라지고 형식화된 의례는 현대인들이 종교에서 얻고자 하는 내면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

의례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사찰 경영을 위한 상업주의를 극복하고 신도 스스로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불교의례는 일반인들이 어려움 없이 이해하고 감동 받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또 간소화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의례는 생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상의례를 개발해 신도들이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교의례는 자기 성장을 위한 새로운 의미체계를 제공한다. 따라서 형식을 바꾸기보다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불교의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적인 종교 상황의 변화를 잘 관찰하면서 불교적 가치와 정신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계종 교수아사리 명법 스님〉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 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개정판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월정사 화엄특강에 전국강사 1백여명… '환희 · 감탄'



方山老의 無影樹 〈16〉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성일 스님



성일 스님 신흥사 주지
동학사 강원 수학, 내원사 선원 수행
조계종 포교대상과 만해대상 포교상 수상

유불선 통괄 불교빛낸 '불후의 명강'
성일 스님, 녹음 테이프 제작 보급
"부처님 다녀오겠습니다" 꼭 인사
가까운곳도 두루마기 정장 외출

-스님은 탄허 스님의 화엄경 불사에 1970년부터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세 시에 일어나서 아침 예불을 올리고, 새벽 공양을 하고는 그때부터 교정을 시작해서 하루에 열두 시간씩 교정을 보았어요. 그때에 큰스님과 각성 · 무비 스님 등 서너 분의 스님은 탄허 스님이 번역한 경전의 원전을 보시고, 저는 계속 읽고 그랬죠. 그 원고지 분량이 용달차 한 대 분량이나 되었는데, 그 원고를 다 읽으면서 혹시 빠뜨린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어요. 참으로 대단한 것이 그 많은 분량에서 빠진 글자가 열 자도 안 돼요. 이런 점에서 저는 탄허 스님의 집중력은 대단하였다고 봤고, 아주 놀랐어요. 스님은 새벽 세 시면 꼭 일어나셔서 앉으시면 참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공양을 하시고 교정을 시작하시면 하루 종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꼬박 1년을 작업하셨습니다. 우리 대중은 아주 열심히 하였지요.

-그러나 1974년 경 대원암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동참하였지요?

그렇죠. 그 시절에는 제 은사도 절을 지키셨고, 대중도 있어 덜 바빠서 대원암에 가서 숙박을 하면서 몇 달씩 작업을 했죠. 여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마다 갔죠. 대원암에서는 출판을 전제로 인쇄작업을 한 것을 갖고 세심하게 7교까지 봤어요. 그때에 제가 느낀 것은 탄허 스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글자도 안 틀리고, 알기 쉽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젊은 사람도 하루 종일 교정을 보면 힘이 드는데 큰스님께서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안 주무시고, 새벽에는 참선을 하시면서 그렇게 훌륭한 작업을 하신 것은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큰스님은 부산에서도 그랬지만, 대원암 시절에는 꼭 어디를 출타하실 때에는 부처님에게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인사를 지극정성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다녀오셔서도 그렇게 하였어요. 저는 그런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지요. 그런 점이 저희들이 배울 점입니다. 그리고 꼭 가까운 곳을 가시더라도 두루마기를 갖춰 입고 가십니다. 항상 정장차림으로 가십니다. 이런 점도 우리들이 본받을 점입니다.

-대원암 시절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지요?

그럼요. 내방객이 다양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이 교정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듣고 갑니다. 교정을 보려면, 경전을 읽고 그랬으니깐요. 큰스님은 시간 관념이 철저해요. 내방객들은 교정하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큰스님이 한 마디씩을 툭 던져 주면, 그 말씀을 법문으로 듣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교수라든가 지식인들이 말을 하면 스님은 그것을 당신의 지식으로 삼기도 하지요.

-대원암에서의 작업을 마치고 이곳 신흥사로 여행을 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랬어요. 이곳으로 왔지요. 그때 여기는 대추나무가 있었는데, 여기 대추가 아주 달았습니다. 탄허 스님이 대추를 좋아하셨어요. 스님이 왜 대추를 좋아하셨냐 하면, 화엄론을 지은 이통현 장자가 하루에 대추 세 알을 먹으면서 화엄론을 지었다고 해서 아주 좋아하셨어요. 지금은 불사를 하고, 절을 넓히는 바람에 대추나무가 다 없어졌지만, 대추가 맛이 있지 않습니까.

-탄허 스님의 역작인 〈신화엄경합론〉 서문을 보면 성일 스님의 이름도 수고하신 명단에 나옵니다. 스님은 탄허 스님에게 한 질을 받았나요?

그럼요. 스님이 그 책에 '성일 상인(上人)' 이라고 직접 서명을 해서 주셨습니다. 스님이 저에게 상인이라고 해서 써주니까 옆에 있었던 무비 스님이 비구니에게 상인이라고 써주신다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성일이는 상인이라는 글을 받을 자격이 있지" 그러셨어요.

-탄허 스님이 책을 출간한 후에 화엄경 특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스님도 거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열리게 된 배경을 들은 것이 있나요?

그것은 대원암에서 교정 작업을 할 때에 저희 대중들이 건의를 하였어요. 교정을 본 스님들이 "이게 끝이 나면, 책을 출간한 후에 월정사에서 화엄산림을 크게 한번 열어야 합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하면 스님들이 많이 모일 것입니다 했지요. 교정볼 때부터 말이 나온 거예요. 월정사 대중들도 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화엄산림의 그 공개 특강은 탄허 스님의 진면목을 널리 알린 기념적인 모임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때 전국의 강사급 스님들이 1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때 불교신문에 공고를 하였지만, 저는 스님을 자주 찾아뵈니, 알고 있었지요. 스님의 강의는 학인 수준에는 안 맞고, 학인을 지도하는 스님들이 되어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때에 모인 스님들의 반응은 대단했어요. 감명 깊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조계종단이나 비구 스님들 세계에서는 탄허 대선사는 유불선을 조금 알고, 한문을 잘 하는 스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강의를 들어 보니 대단하고,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 온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죠. 수준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강의 이전에는 탄허 스님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강의를 하고 난 후에는 스님의 훌륭한 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비구니들은 강의 때에 서별당에 딸려 있는 조그마한 방 한 방에 세 명 씩 있었어요. 그때 같은 방에 있었던 일법 스님은 강사 자격이 있는 스님이었는데, 저에게 강의를 듣고서는 환희심을 내고, 탄허 스님이 훌륭하다는 말을 했어요. 강사 자격이 있는 스님들이 한 곳에, 100여 명이 모여서 그런 강의를 듣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유생 출신이 한 명 있었는데, 탄허 스님이 아주 대단하다고 칭찬을 많이 한 사람도 기억이 납니다. 또 1월 1일에 눈이 오는데 모두 보궁에 가서 참배를 하고, 내려올 때에 미끄러워서 힘들게 내려온 것도 생각납니다.

-성일 스님께서는 월정사에서의 화엄경 강의를 녹음 테이프로 만들어 보급하신 일의 주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과정, 내용을 자세하게 들려주세요.

제가 큰스님의 화엄경 녹음을 한 것은 월정사 특강이 열리기 전에도 했어요. 그것이 대원암에서의 교정 작업과 책 출판이 끝나고 나서 스님께서 삼보법회가 주관한 법회에서 화엄경 강의를 하셨을 때에 녹음을 하였어요. 그때 저는 교정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여기(신흥사)로 돌아와서 있었어요. 그때에는 이곳이 21평짜리의 방 셋밖에 없는 초가집과 열 평짜리 법당 딱 두 채였어요. 그래도 스님의 강의가 있는 일요일마다 안 빠지고 녹음기를 들고, 삼보법회의 화엄경합론회석 강의를 듣기 위해서 풍전상가에 갔어요. 회석(會釋)이라는 것은 팔만대장경 교리와 화엄학을 회통(會通)해서 해석한 것인데 보통은 통현 장자의 논을 회석이라고 하지요. 그때에 제일 앞에 앉아서 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녹음을 한 것이지요.

-지금의 말씀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월정사에서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듣는 스님들이 강의를 쭉 듣다가 탄허 스님의 강의는 대단한데, 이 강의를 뭔가 간단히 요약해서 들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나왔어요. 원래 화엄경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말들이 대중에게서 나오니깐 천상 그러면 내가 나서서 스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그래도 여러 해를 스님을 모시고 있었고, 스님을 모시고 교정도 보고 그랬으니까요. 저는 화엄경을 여섯 번이나 읽었어요. 제가 입이 빠르니깐, 입으로만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큰스님에게 한 철 강의가 거의 끝나가니까 강의를 듣는 스님들에게 경의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서 총론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스님에게 "마지막으로 총강을 해주세요" 하였지요. 그래서 스님께서 6시간으로 그것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에는 유불선 3교의 핵심과 〈신화엄경합론〉의 핵심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깐 화엄경 강의하신 것과 총론을 저는 다 녹음을 하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탄허 대선사에 대해서 일반인이나 스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스님은 도교와 유교의 진리만 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스님은 도교와 유교의 진리는 요만큼만 들이대지만, 불교를 다룰 적에는 유교와 도교를 다 다루면서도 불교를 더 크게, 중요하게 말씀했어요. 스님은 불교를 더 알기 쉽고, 더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도교, 유교를 말씀하셨다는 그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스님은 불교를 대단히 더욱 중요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스님들은 탄허 스님이 도교와 유교만 안다고 해서 찾아뵙지 않았다가, 그 테이프를 듣고서는 찾아뵙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스님의 강의에는 유불선을 통괄하고, 그 후에는 불교를 더 빛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스님의 강의를 불후의 명작이라고 그럽니다. 명강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녹음 테이프에는 그 내용이 다 실려 있나요?

월정사 특강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스님에게 건의를 하였지요. 스님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하고, 유불선의 종지와 화엄경의 핵심이 있는 강의였는데 그 강의를 못 들은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니, 녹음한 테이프가 있으니 그것을 갖고 제작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시면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스님 강의는 너무 간결하고, 머리에 잘 들어가도록 참으로 정리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총 정리하신 총강(總講) 테이프 여섯 개를 먼저 만들어서 보급 했어요. 그 다음에는 총강, 삼보법회에서의 화엄론회석, 월정사에서의 특강 등을 모두 합해서 한 질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녹음기를 갖고서 청계천에 있는 가게에 갖고 다니면서, 빈 테이프에 녹음한 것을 갖고 똑같이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의뢰해서 만들고 불교신문에 광고를 내고, 불교신문에서는 한국불교사에서 큰스님의 법문을 녹음 테이프로 만든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기사를 냈어요. 그 이전에는 큰스님의 법문 테이프가 나온 적이 없어요.

-탄허 스님은 종지를 강조하셨지요?

그래서 탄허 스님은 화엄경론을 좋아하셨어요. 승단에서는 청량국사 소초를 교과서로 보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스님은 통현 장자의 화엄경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통현의 논이 화엄경의 종지를, 마치 여의주를 딱 잡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신 것에서 나온 것이지요. 화엄경은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것과 같은데 이통현 장자의 논은 종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총강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말이 그렇지 여섯 시간에 화엄경의 핵심을 알 수 있게, 요약해서 강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일 스님은 탄허 스님을 언급하시면서 탄허 대선사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에 대한 스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당신도 늘 대선사라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셨고, 우리는 늘 대선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탄허 스님은 한암 스님하고 편지 거래를 하시다가, 그대로 입산을 하셔서 출가 초기에는 참선만을 하셨지요. 그런데 한암 스님께서 화엄경을 갖고 수좌들의 안목을 열리게 하시려고, 탄허 스님에게 화엄경 강의를 해보라고 하셔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탄허 스님은 경을 보는 것은 우리가 성불로 가는 길의 길잡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사이든, 누구라도 다 와서 경을 읽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스님은 경을 갖고 강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대선사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 번역을 선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선에 대해서 모르면 화엄경을 번역 못합니다. 스님이 늘 말씀하신 것이 일본에서는 화엄경을 번역 못한 것을 지적했어요. 일본은 근본불교나 불교학에서는 발달하였지만, 그런데도 화엄경을 번역 못하는 것은 선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말씀은 교정하시면서 많이 하셨어요. 그분에게는 대선사가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성일 스님은 어린이 포교를 통해서 신흥사를 대가람으로 일구시는 큰 불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불사에 탄허 스님에게 배운 가르침이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엄청 큰 힘이 됐죠. 스님은 화엄경에서도 입법계품의 선재동자를 많이 강조했어요. 선재동자는 우리 중생들과 같은 존재인데, 그 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구법을 하지 않았습니까? 53선지식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심지어는 창녀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지식에게 찾아갈 때마다 선재동자는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부처님 같이 보고 구도심을 발휘해서 끝내는 성불을 하였지요. 선재동자가 구도심을 갖고 하였던 구법의 내용을 저는 성불도놀이로 만들어서 이곳 신흥사에서 30여 년 전부터 어린이 법회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어린애들을 강당에 모아 놓고 하면 분위기가 딱딱하고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장면을 만들어서 교화에 활용했어요. 이런 것은 화엄경을 갖고서 포교에 개발한 것인데, 이것이 다 제가 탄허 스님에게 배운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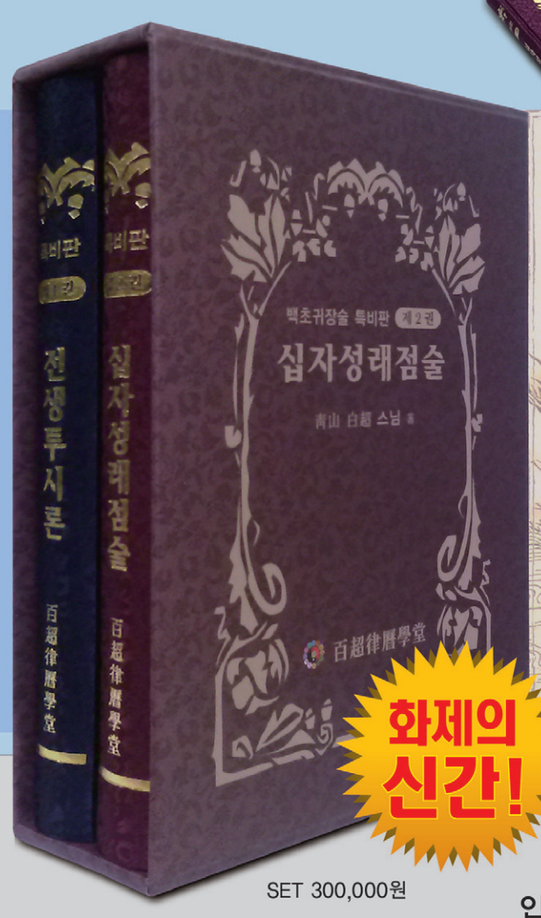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1권

전생투시론

지금까지는 전생(前生)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론이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개인의 사주를 토대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생에 어디에 살았으며, 무엇 이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현생에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영혼투시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최면요법이 절대 아닙니다.
또 빙의가 되었는지, 어떤 조상영가가 지금 고통을 주는 것인지도
알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青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제1권 345쪽



SET 300,000원



사차원운명둔갑술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2권

십자성래점술

사람의 운명의 길흉을 판단할 때 지금까지는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아서 감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성래점술은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지 않고도
상담자가 묻는 질문의 답을 알 수 있고, 된다 안된다와 하라
하지마라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신 비법을 공개합니다.
인도의 점성술 천궁도와 귀장술의 12신궁으로 만들어진 12궁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면 됩니다.

青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 제2권 350쪽

◆ 책 구입은 서점으로 배포되지 않고 백초율력학당에서만 판매합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041)943-6882 / 010)3813-4443

百超律曆學堂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예금주 : 김경석

“거울속 영상이 본래 면목과 무슨 상관…”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23〉



범어사 주지



그림 · 박구원

“눈 앞의 허공 경계 아닙니까”
‘개구즉착’ 입만 열면 멀어져
본다고 해도 어리석은 말
못 본다해도 어리석은 말
이 도리 알면 ‘변화’ 의연히 봐

“비춤에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분별이 남아 있어 묻는 것

“마음을 분명 알았다면
비추면서도 실체 없습니까”
“눈뜨고 잠꼬대 하지말라”

“백가지로 많이 아는 것이
구함 없음만 못하다”
이것이 집착 여의는 ‘무구소행’

마음과 경계

알고 보면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다. ‘있다, 없다’ 하는 개념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실질적인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해서 소화하지 않고는 가닥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안목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눈앞의 허공은 경계가 아닙니까? 경계를 가리켜 마음을 보는데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허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경계다.

“어떤 마음이 너더러 경계 위에서 보게 하느냐? 설혹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경계를 비추는 마음일 뿐이다.”

이미 우리는 누구나 마음도 보고 있고, 허공도 보고 있고, 눈도 보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착각하여 보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뿐이다. 그 한 생각을 돌이켜 보라. 그렇지만 본다고 해도 어리석은 말이고, 보지 못한다고 해도 어리석은 말이다. 개구즉착(開口卽錯), 입만 열면 즉시 멀어진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는 사람은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의연하게 본다. 따라서 눈앞에서 어떤 변화가 벌어지더라도 휩쓸리지 않는다. 거울에 비춰지는 것처럼,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대하고 한인(漢人)이 오면 한인을 대할 뿐이다.

사람이 거울에 얼굴을 비춰볼 때처럼, 눈썹과 눈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래 영상일 뿐 너의 본래면목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다 환이다. 거울에 비춰지는 영상도 내가 아니고, 거울 속 영상을 보는 것도 내가 아니다. 하지만 ‘나’ 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의 일이다. 그것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아냐, 모르냐 그것만 요구한다. 그 외의 일이란 다 군더더기고 알음알이에 불과한 것이어서, 옳다 그르다 따져봤자 차별만 더하는 것일 뿐 본래면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만일 비춤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보고, 안 보고의 차원이 아닌데 분별이 남아서 묻는 것이다. 공부를 했어도, 알음알이[知解]가 가시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의지함’에 빠진다면 항상 의지할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야 언제 깨달을 수 있겠느냐? 너는 ‘손을 털고 그대에게 내보일 것이 아무 것도 없구나. 수천 가지로 말한들 모두 헛수고로다.’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천차만별로 이야기하지만, 만들어진 그림자는 다 그 속의 일이다.

“마음을 분명히 알았다면, 비추면서도 실체는 없습니까?”
“아무 것도 없다면, 어찌 비출 수가 있겠느냐? 눈을 뻔히 뜨고 잠꼬대 같은 말을 하지 말라.”

무언가 있기 때문에 비춰지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의 차이다. 그렇지만 알고 보는 데도 계속 헷갈리는 사람에게는, 세월이 약이라는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다. 급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흘러가다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날이 있다. 그것을 급하게 알려고 욕심을 내고 물으니, 거기에 맞춰서 황벽스님이 답을 하는 것뿐이다. 바보처럼 시간 보내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배휴가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다보니, 어지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래도 황벽스님은 일일이 꼭닥스럽게 일러준다. 교학의 입장에서는 경전의 구절을 빌어 부처님의 말씀을 설하기 때문에, 선(禪)법문과는 차이가 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등지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을 눈뜨게 해줄 수 있는 힘을 지닌 황벽스님이 막 깨달음을 눈뜬 배휴에게,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 다루듯 가르침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배휴 또한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인 황벽스님에게 어떻게 해야 자식된 도리를 잘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무구(無求)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백 가지로 많이 아는 것이 ‘구함이 없음’만 못하다. 도인이란 ‘일 없는 사람[無事人]’이어서, 실로 허다한 마음도 없고 나아가 설할 만한 도리도 없다. 더 이상 일이 없으니, 흘어져 돌아가라.”

〈유마경〉에 “법을 구하고자 한다면, 일체 법에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달마대사도 〈이입사행론〉에서 “구함이 없음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참으로 도에 이르는 관문이다. 이것이 집착을 여의는 ‘무소구행(無所求行)’이다.”고 하였다. 한편 임제선사는 “일 없는 것이 귀한 사람이다.[無事是貴人]”고 하였다.

세월 보내는 것이 약이다. 훤하게 다 드러난 이 일 외에, 무엇이 더 있다고 그렇게 알려고 애쓰는 것인가? 지금까지 찾고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오다가, 시절인연으로 단번에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그 변화를 한꺼번에 소화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무언가 툭 터진 후 눈이 밝아지기는 했지만, 스스로 확철하지 못하면 예전 습관대로 찾고 구하게 마련이다. 이런 변화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공명하며 기운을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도 함께 좋아질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㉓



그 나라에 태어나려는 자는 마땅히 세가지 복(三福)을 닦아야 한다. 〈관무량수경〉

위험한 월반(越班)

유명한 유학자 선생님의 글에서 읽은 내용이다. 어렸을 적부터 집안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서삼경〉을 다 읽었다. 그런데 스승에게 나아가니, 이 스승님이 다시 사서삼경을 배워라 말씀했다는 것이다. 몇 번이고 월반의 위험성을 강조하시면서.

그렇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서 그 ‘기본’을 다지는 것이 아닐까. 진부하게 들리는 말이긴 하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만고의 명언이다.

다시 그 유학자의 예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토록 월반의 위험성을 경계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유학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유학은 붕새처럼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지 못하게 한다. 현실에 발을 붙들어 맨다. ‘붕새’의 비유가 ‘장자’에 나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장(老莊)은 좀 날아간다.

현실에서 아픔을 겪은 소외자들이 노장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거기서 ‘치유’되기 때문이리라. 마찬가지 이유에서, 불교 역시 좀 날아가기 쉬운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이 그렇고, 정토사상이 그렇다. 깨달음의 세계로 날아가기 쉽고, 극락으로만 날아가기도 쉽다.

소설 속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겨울의 유산〉(다치하라 마사아키 지음, 동국대출판부)에서 무용(無用)큰스님은 논어와 선어록을 같이 가르친다. 1930년대의 우리나라 절에서이다. 물론 현실에서도 유교와 선을 같이 가르친 선지식이 영 없지는 않았다. 탄허 스님이 그러하셨다.

위험한 전수(專修)

일본의 정토종 개조 호넨(法然)스님은 ‘오직 염불만 하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전수염불이다. 이 주장은 많은 파란을 불러왔다. 기성 불교교단이나 다른 종파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 불렀다. 한 때, 귀양을 가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오직 염불만 하라’면, 다른 모든 수행들은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다른 모든 수행을 같이 한다면, 겸수(兼修)가 될 것이다. 호넨 스님은 겸수염불이 아니라 전수염불을 내세움으로써 정토종의 독립을 이루어내기도 했다.

그런데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경전에서 ‘염불만 해라’고 설해져 있었던가 하는 점이다. 적어도 〈관무량수경〉에 의지하는 한,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 나라에 태어나려는 자는 마땅히 세가지 복(三福)을 닦아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첫째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스승을 받들어 모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목숨을 죽이지 않으며 열가지 선업을 닦는다. 둘째는 삼귀의를 받아 지니고 모든 계율을 갖추며 위의(威儀)를 범하지 않는다. 셋째, 도를 향하는 마음을 발하고 인과의 법칙을 깊이 믿으며, 대승경전을 읽으면서 수행자들에게 권진(勸進, 정진하기를 권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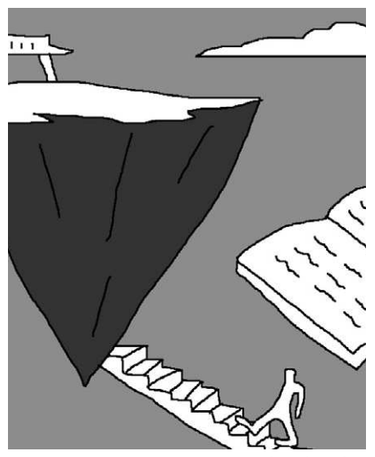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이것이 기본이다. 이 위에 다시 부처님께서는 극락왕생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행을 말씀하신다. 그것이 이어서 나오는 16관(觀)이다.

일본불교사 안에서 호넨 스님이 담당한 역할이나 고뇌는 적지 않았다. 그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착한 일을 하면서 염불해서는 안 되는 이유, 계율을 지키면서 염불해서는 안 되는 이유, 또한 대승경전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면서 염불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는 극락을 갈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좀 위험하지 않은가 싶다. 전수(專修)는 매력적이거나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위험한 것같다. 역시 대경대법(大經大法)은 겸수(兼修)에 있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번길 17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풍토병 치료제 산이화 부탁

목련꽃봉우리

추사와 백파의 선리논쟁은 이미 백파가 한양 근교 학림암에 거처하던 때부터 시작된 일이다. 이후 백파는 자신의 주장을 자주 추사에게 보냈지만 추사는 그의 주장을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듯하다.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편지에는 백파의 천식(淺識)과 선리의 오처(誤處)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자주 눈에 띈다. "백파노인의 글이 한양으로부터 연이어 온 것이 수천만언인데 이 내용들은 전에 말하던 것을 다시 말한 것"라 한 것은 바로 추사의 이런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완당전집〉〉 〈여초의〉 22신과 〈〈벽해타운첩〉〉에 수록된 이 편지는 실제 언제 보낸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추사가 "소치도 여기에서 떠나니 대략 적는다"라고 한 것이나 "또 봄이 반쯤 접어들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는 소치가 1844년 봄, 제주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초의에게 전해 준 편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벽해타운첩

백파의 천식과 선리의 오처 비판
연이은 백파의 편지 초의에게 전해
상서로운 풀, 명(蓂)은 지금의 달력

앞서 부친 편지를 이 편지와 함께 차례로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 또 봄이 반쯤 접어들었습니다. 나그네에게는 세월이 일부러 빨리 가는 것인가. 산가의 세월도 세상을 따라 이와 같이 변하는 것인가요. 스님의 형편은 길하고 편안한지 늘 염려됩니다. 나는 괴로운 상황이 전과 같습니다만 집에서 부리는 하인이 와서 둘째와 막내의 안부 편지와 또 스님의 편지를 받고 크게 위안이 되었는데, 해가 지나도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백파노인의 글이 한양으로부터 연이어 온 것이 수천만언인데 이 내용들은 전에 말하던 것을 다시 말한 것입니다. 스님이 곁에 있어서 함께 증험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새 달력을 부치니 두고 보심이 어떨지요. 소치도 여기에서 떠나니 대략 적습니다. 이만. 산이화(辛夷花)를 올 여름에도 많이 거두어 말렸다가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前付一緘 未知與此鱗次照 到?又春中 客子光陰故自流?歟 山家日月亦與世推遷如此歟 更唯禪況吉晏念念 賤狀一味前苦只是家?之來 獲見仲季安報 又得師信大慰 年後企切 白坡老人書自京來連章累牘數千百言 此復申前說 恨不使師在傍同證也 新蓂付去留存如何 許痴又此去略?不宣 辛夷花今夏亦爲收乾以惠如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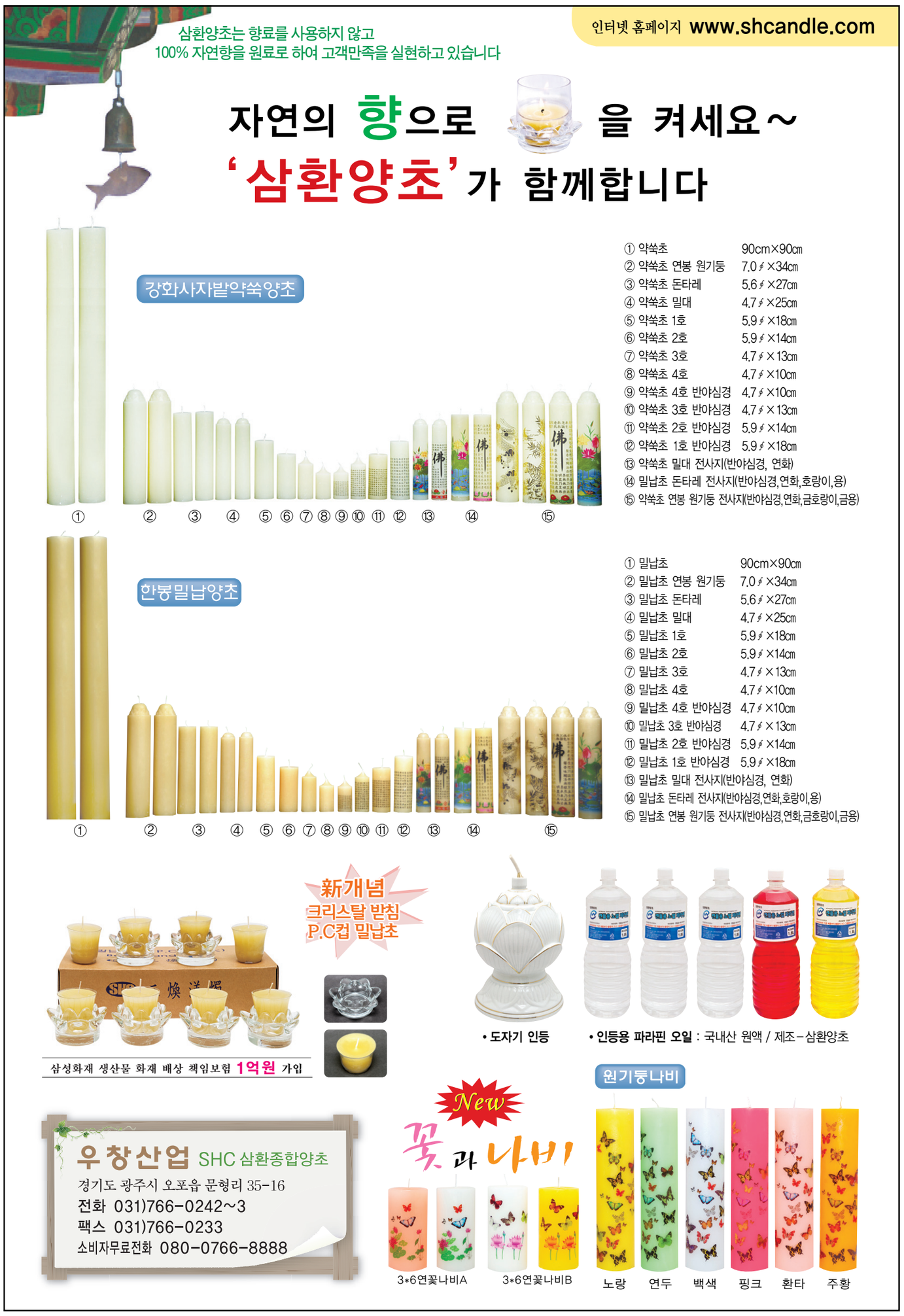
대둔사와 제주를 오가며 두 스승의 가교가 되었던 소치, 그는 스승이 유배된 다음해 1841년 2월, 대정리를 찾아가 스승 곁에서 탁마(琢磨)에 열중하다가 이 해 6월 중부(仲父)의 부음을 받고 제주도를 떠난다.

생활 형편이 어려웠던 소치의 사정을 안쓰러워했던 추사는 자신과 교유했던 제주목사 이용현(李容鉉)에게 소치를 소개, 그의 막하(幕下)에 머물게 한다. 이는 소치가 1843년 7월, 다시 제주로 오게 된 연유이다.

특히 추사는 제주에서 풍기와 화기로 입과 코가 헤지는 고통을 겪었는데, 이를 산이화로 다스렸던가보다. 산이화는 바로 목련꽃 봉우리이다. 그 모양이 붓처럼 생겼다하여 '목필(木筆)'이라 부른다. 성질이 따뜻하고, 매운 맛을 지닌 산이화는 코 막힘을 풀어주는 약재인데, 초의에게 이 약재를 부탁한 것. 이는 그가 풍토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서도 그를 위로한 것은 혈육과 초의가 보낸 편지였다. "집에서 부리는 하인이 와서 둘째와 막내의 안부 편지와 또 스님의 편지를 받고 크게 위안이 되었다"고 한 것은 분명 세월이 흘러도 이들의 편지를 기다리는 추사의 모습이 한 눈에 그려진다. 초하룻날부터 매일 한 잎씩 나서 자라다가 열 엿새째 날부터 매일 한 잎 씩 떨어져 그믐에 이른다는 상서로운 풀, 명(蓂)은 지금의 달력이었던 셈. 요임금 때에 발견 되었다. 이후 신명(新蓂), 혹은 명(蓂)은 달력을 상징한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색향미' 좋은 차 앞에서 햇빛 땀 잊어요 (무착바라밀)

선혜 스님 (석정원 원장)

"차를 따는 시기는 때를 잘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무 빠르면 향기가 온전하지 못하고 늦으면 신비함이 흩어진다. 곡우 5일 전이 가장 좋으며, 〈중략〉 밤새도록 구름 한 점 없고 이슬이 내리지 않을 때 딴 것이 가장 좋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딴 것이 그 다음이며, 〈후략〉" 초의 선사의 〈다신전〉 중 일부다. 이후 선사의 다법을 따르는 이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선혜 스님도 선사의 다법을 따랐다. 스님이 차를 공부한 지 20여 년, 스님은 어느 날 또 다른 눈을 뜬다.

스님은 열아홉 살에 출가한다. 열아홉의 청년에게 세상으로 나가는 길은 많고 많았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길 중에 열아홉 살의 청년이 택한 길은 출가였다. 왜 그 많고 많은 길 중에서 하필 출가였을까. 아버지의 책장에 꽂힌 〈육조단경〉이 그 길을 만들었다. 청년은 부친(소공거사)이 평소 즐겨 읽는 〈육조단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청년의 가슴 속에선 '육조(혜능)'라는 싹이 트기 시작했다. 육조의 생각이 좋았고 육조의 법이 좋았다. 육조가 되고 싶었다. 어린 마음에 한 석 달만 따라하면 육조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1970년 해인사로 간다. 그리고 머리를 깎는다.

"차 잘 달이는 행자가 들어왔다며?" 스님은 행자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노스님들의 차를 달였다. 행자의 신분으로는 드문 일이었지만 스님은 소문 덕에 노스님들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었다. 소문은 이유 있는 소문이었다. 스님은 출가하기 전부터 차와 가까웠다. 역시 부친의 영향이었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부친이 우려 준 차를 마시면서 자랐다. 다도(茶道)를 본 것이다. 절집에서 차는 '언어'이고 '방편'이다.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언어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이다. '차나 한 잔 드시오(喫茶去)'는 조주 스님의 공안이고, '선다일미(禪茶一味)'로 대표대는 선차(禪茶) 문화는 불가에서 차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무튼 차는 절집 대중에게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닌, 하나의 깊은 '세계'인 것이다. 스님은 비록 행자였지만 깊은 세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은 사미계를 받고 일타 스님을 시봉하게 되는데, 일타 스님은 당시 누구보다 다도에 깊은 스님이었다. 승가에선 이미 정평이 나있었다. 선혜 스님은 그토록 다도에 정통한 일타 스님을 모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차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사문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사문의 길이란 무엇일까 생각한다. 그리고 사중의 한 노스님에게 여쭈었다. "스님! 중노릇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스님은 번뇌하는 신참에게 한 수 일러준다. "노는 시간을 잘 놀아야 중노릇 잘 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 선혜 스님은 노스님 말씀의 행간에서 쉽게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노스님의 말씀을 정리했다. 비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알차게 보내라는 뜻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택한 것이 '차'였다. '차'가 스님을 따라다닌 것일까. 스님이 차를 따라다닌 것일까. 스님과 차는 그렇게 서로 떨어지지 않았고, 그로인해 스님은 '차 하는 스님'으로 각인되었다. 그러다보니 차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조건 스님이 맡아 하게 되었다. 당시 해인사 대학생수련회 프로그램에 다도를 처음 개설하게 되었는데, 그것 역시 스님이 맡게 되었다. 스님이 차에 대해 본격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비록 짧은 기간의 수련회 프로그램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스님은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에 스님은 '독서신문'에서 효당 스님이 연재하는 '한국의 다도'를 보게 된다. 스님은 효당 스님의 글이란 글은 모두 찾아 읽기 시작했다. 스님은 그때 차에 관한 많은 문헌들을 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1973년 가을, 앞을 내다 보고 茶문화를 중흥시킨 효당 스님을 뵙기 위해 다솔사를 찾는다. 효당 스님이 물었다. "차 공부는 어찌 했느냐?" 선혜 스님은 그동안 자신이 배우고 익힌 차에 대해 말하고 효당 스님 앞에서 차를 우렸다. "그것도 다도냐?" 효당 스님은 꾸짖듯 말씀하셨다. 선혜 스님은 당황했다. 그리고 말했다. "애기 똥은 똥이 아닙니까?" 효당 스님은 어이없이 웃으시며 선혜 스님을 제자로 받았다. 스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차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다. 〈동다송〉, 〈다신전〉, 〈다경〉 등 다도의 고전이란 고전은 모두 이때 보게 된다. 스님은 그동안 했던 자신의 다도가 너무나 초라한 것임을 깨닫고 공부에 매진했다.

1980년 차회 석정원 개설… 2천여명 수료

스님은 강원을 마치고 선원에 들어가 본격적인 수행을 시작했다. 선방 시절, 스님의 단골 소임은 역시 다각(茶角)이었다. 80년대 초, 선방 시절을 보낸 스님은 서울로 올라온다. 봉은사에서 역경원 연수생 생활을 시작한다. 서울에 올라와서도 스님은 차를 놓지 않았다. 스님은 1980년 다회 '석정원(昔鼎園)'을 개설한다. 선혜 스님이 차 문화를 대중을 향해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것은 이 때부터다. 차에 관심이 있는 불자들과 함께 차의 이론적 정립을 시도했으며, 1987년에는 인사동으로 자리를 옮겨 석정원과 함께 불교전통문화원도 개설한다. 석정원의 다도 과정을 모두 이수하려면 10년의 세월이 걸린다. 스님은 "10년은 공부해야 차 공부 했다고 할 수 있죠."라고 했다. 그동안 석정원을 거쳐 간 학생은 2000여 명에 이르고, 10년 과정을 모두 이수한 수강생은 약30명에 이른다. 그 중 국내외 대학에서 차 관련 박사나 학위를 취득한 이들도 40여 명에 이른다.

茶는 절집대중에게 깊은 세계
차문화 중흥시킨 효당 문하서 수학
"노스님, 중노릇 잘하려면…?"
"잘 놀아라", 그 화두의 답으로 茶 선택
절강대 교수 시절 차관 재정립
차시집 〈차인의 향기〉 발간

스님은 "차와 불교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차를 불교문화산업의 하나로 발전시켜야 하며, 생활 다례 보급과 함께 풍류 다례 등 고급 차 문화를 개발, 전승시켜 포교의 일환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조사 스님들의 차시(茶詩)를 섭렵하고 조선시대의 다화(茶畵)를 수집하여 학회에 발표하는 등 스님은 이제 차를 그저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차를 살피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다도강좌를 열었고, 성신여대 대학원에 예절다도과를 개설하고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후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스님의 차 세계는 점점 깊이를 더했다. 그러던 중 스님은 2004년 중국의 항주 절강대 다학과에 연구교수로 가게 된다. 2006년까지 2년 간 중국의 차 문화를 접하게 된 스님은 그동안 해왔던 자신의 차세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차 공부를 시작한 지 30년 만에 자신의 '차'를 반성한다. 새로운 눈을 뜬 것이다. 그 동안 '선혜'는 '초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과거로부터 전해진 기록과 가르침에 얽매여 있었다. 중국의 차문화는 그렇지 않았다. 중국의 차는 과정에 얽매이지 않았다. 과정 자체를 우습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과정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는 길이 달라도 한 곳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색과 좋은 맛과 좋은 향을 지닌, '좋은 차'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문헌에 적혀 있는 기록을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선혜 스님이 전남 보성군 소재 차밭에서 대중과 함께 차를 따고 있다.



선혜 스님은 … 1952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1969년 합천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2년 해인사에서 사미계, 1974년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초의 오늘의 차문화를 부흥시킨 효당 최범술 스님으로부터 다도를 배웠다. 1975년 해인사 승가대를 졸업하고 1980년까지 선원에서 참선 수행했다. 1980년에는 차회 '석정원'을 개설했고, 1984년 동국대부설 역경원 역경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8년부터 조계종 서울북부지구 포교원 법륜왕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예절다도학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 항주 절강대 다학회계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한·중·일 예술문화교류회 이사장과 한국차학회 상임이사 한국차학회부회장, 초의 문화재 집행위원 초의상 심사위원 등을 맡고 있다.

않다는 것이다. 이론과 실재는 다르다는 것이며 얼마든지 새로운 차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스님은 오로지 선대에 정립한 다법을 얼마나 충실히 재현해 내는가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과거지향적이었다는 것이다. 눈을 뜨면 보이는 법. 중국에서 돌아온 스님은 이후로 과거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스님의 차, '선혜'의 차 사원전통 '반야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님은 2006년 대흥사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가 시상하는 제15회 초의상 수상자로 선정된다. 초의상은 우리나라 차문화의 중흥조인 초의 스님의 차문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차문화 보급에 앞장선 사람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과거에 충실한 새로운 茶 만들기 '반야차'

"겨울 내내 / 꽁꽁 묶여 있다가 / 매화꽃 바람에 감싸이어 / 고드름 끝에 맺혀 있는 / 해맑은 눈망울로 달인 / 차 한 잔- / 꽃신(花神)에게 드리지…"

2012년 여름, 시집 한 권이 나온다. 평생 찻잔 곁에 살아온 선혜 스님의 차시집 〈차인의 향기 · 도서출판 도반〉다. 스님이 그 동안 써놓았던 1000여 편의 시 중에서 엄선한 것으로 사유와 통찰이 충만한 시들이다. 시는 한 구절 한 구절 모두 부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했다. 스님은 날마다 팔만대장경을 쓰는 마음으로 시를 쓴다고 했다.

소설가 정찬주는 스님의 시를 "북두칠성의 국자로 은하수를 길어서 밤 차를 마시고 싶어 했던 다승 진각국사의 시집 〈무의자(無衣子)〉이래, 낮에는 차 한 잔 하고 밤에는 잠 한 숨 잔다는 서산대사와 차 마시며 어찌 진리를 이룰 날이 멀다고 하는가! 하고 경책한 초의 선사의 차시 계보를 잇는 이만큼 알찬 분량의 차시집을 본 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차시 전통을 계승하는 것만으로도 저잣거리 평단의 저울질을 떠나 〈차인의 향기〉는 사람들 손에 쥐어져 축복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믿어진다."고 평했다.

6월 5일, 인사동에서 낙원동으로 자리를 옮긴 석정원에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며칠 전 까지 차밭에 있었다. 햇차라며 차 한 통을 내민다. 다탁 앞에 앉은 스님이 차를 우렸다. 스님이 찻잔에 차를 따랐다. 방안 가득 흐르던 차향이 모두 찻잔 속으로 떨어졌다. 한 모금의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보니 궁금했다. 왜 차는 '생각' 없이 마실 수 없는가. 초의선사부터, 그리고 그 맥을 이은 모든 이들이 그래왔듯이 차는 왜 '마음' 없이 마실 수 없는 것일까. 아니 왜 '차'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 스님께 여쭈었다. "초의 스님이 말씀하시길 차는 묘원(妙原)이며 묘원은 무착바라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이 없는 바라밀이죠." 그런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더욱 알 수 없었다. 스님이 다시 말했다. "색향미가 좋은 차를 얻기 위해 햇살 아래서 땀을 흘리고, 뜨거운 솥을 끌어안고 손끝에 상처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차가 지금 기자님 앞에 놓인 차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도(道)이지만 굳이 차가 무엇인지, 다도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다도(茶道)'라고 하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얻기 위해 뜨거운 솥을 끌어안고 산 그 시간을 이 작은 찻잔 속에서 잊는 것이죠."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스님은 "다시 육조가 되는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육조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차'라고 하는 그동안의 시간도 육조가 되는 길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를 얻기 위해 땀 흘렸던 것처럼 선방에 앉아 다시 땀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소임을 받는다면 다시 다각 소임을 보고 싶습니다. 예전엔 다각 소임이 구참 소임이었으나 요즘엔 신참 소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선방에 간다면 구참 쪽일 테지만 왠지 다각 소임이 싫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 밭에 있든 선방에 있든 나는 육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발심원력이니까요."

인터뷰가 끝나자 석정원 수강생들이 들어왔다. 옛 솥이 걸린 뒤뜰 〈석정원〉에는 차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효당 스님 문하에서 차와 인연을 맺은 스님과 재가자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차회인 차선회((茶禪會 · 회장 김종규) 정기 모임(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도 이곳 석정원서 열린다. **박재완 기자**



수확한 찻잎을 덖고 있는 선혜 스님.



2003년 국제차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한 선혜 스님.

전법일기

보살이 중생을 사랑할 때

자비의 김장나누기 ②

우리절에서는 지난 5년간 해마다 '자비의 김장나누기'를 해왔다. 작년엔 기초생활수급자 270가구로, 한 가구당 평균 9Kg의 김치를 플라스틱 들통에 담아 주었다. 이렇게 김장나누기를 하는 이유는 중생제도라는 보살의 본원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쉽게 말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김장 불사는 8월 하순쯤, 해남의 농부에게 배추를 주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배추 단가는 일반 업자보다 높은 액수로 정하되 출하 당시의 시세에 따라 연동하도록 했다. 계약단가와 시세의 중간 액수가 최종 가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 시세가 폭락하더라도 농민으로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폭등할 경우 우리절에서는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배추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길게 보면 농민은 안정된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배추를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흔히 하는 말로 윈윈(win-win)이다.

김장의 시작은 배추를 다듬는 일이다. 초겨울 언 손으로 거친 겉잎을 뜯어내고 칼로 배추를 반으로 가른 후 배추꼬랑이를 잘라낸다. 이렇게 다듬은 1천 포기의 배추를 가로세로 1미터 가량의 커다란 투명비닐 100여 개에 차곡차곡 담으면서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리고는 입구를 단단히 묶는다. 때때로 뒤집어주기를 반복하면 소금이 골고루 배여 숨이 잘 죽는다. 소금은 3년 이상 간수를 뺀 걸 쓴다. 간수가 잘 빠진 소금은 쓰거나 떫은맛이 없기 때문에 김치에서 감칠맛이 난다. 우리절 김치 맛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

한쪽에서는 욕조만한 스텐 용기 몇 개 분량으로 양념을 만든다. 새우와 다시마, 버섯 같은 걸 푹 고아 만든 국물에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을 넣고 강경에서 직송한 젓갈로 간을 맞추어가며 계속 저어준다. 초겨울인데도 신도들은 땀을 뻘뻘 흘린다. 우리절은 김장을 담글 때 모든 재료를 국산만 쓴다. 이웃돕기를 한다고 해서 싼 재료를 쓰지 않는다. 신도들은 자신의 가족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온갖 정성을 다 쏟는다.

김치를 버무릴 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탠다. 이날만큼은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도 앞치마를 두르고 거든다. 전날 깨끗이 헹궈서 물을 뺀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려 김치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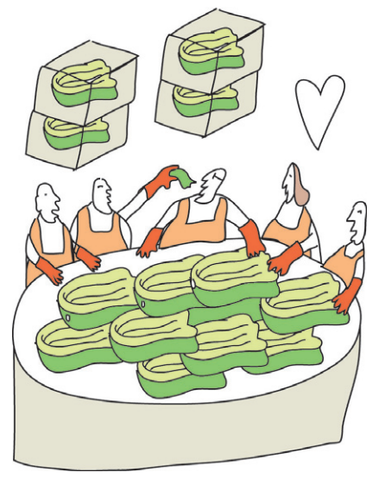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 사랑 없어
보살행은 자신의 소중한 것 쓰는 것

김장 불사를 결산해 보았더니 현명 스님의 말씀대로 큰 적자가 나지 않았다. 2008년에 12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래 적자액수는 해마다 100만원 미만이었다.

우리절 김장 불사는 3일간 연인원 150여 명이 동원돼 치른다. 사실 그건 표면적인 것일 뿐 연신 재채기를 해대며 고추를 일일이 행주로 닦고 다듬어 말리는 기간, 빨갛게 된 눈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마늘을 까고 꼭지를 일일이 떼는 기간까지 더하면 훨씬 더 된다.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이 말이 고해(苦海)라는 바다에 빠진 중생을 건져주거나, 지옥의 끓는 가마에 빠진 중생을 건져주는 모습으로 다가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끝없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뜻이다.

다 아는 일이지만, 남녀가 사랑할 때 시간과 비용이 든다.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 사랑은 짝사랑밖에 없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가족 관계도 그렇다. 자식을 키울 때, 노부모를 봉양할 때를 생각해 보라.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 사랑은 없다. 보살이 중생을 사랑할 때도 그렇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돈과 시간을 쓰지 않으면서 외치는 자비는 거짓이요, 위선일 뿐이다. 배추를 내릴 때 흘리는 땀과 마늘을 깔 때 흘리는 눈물이 없다면 참된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김장은, 사랑이다.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법어가 담긴
도자기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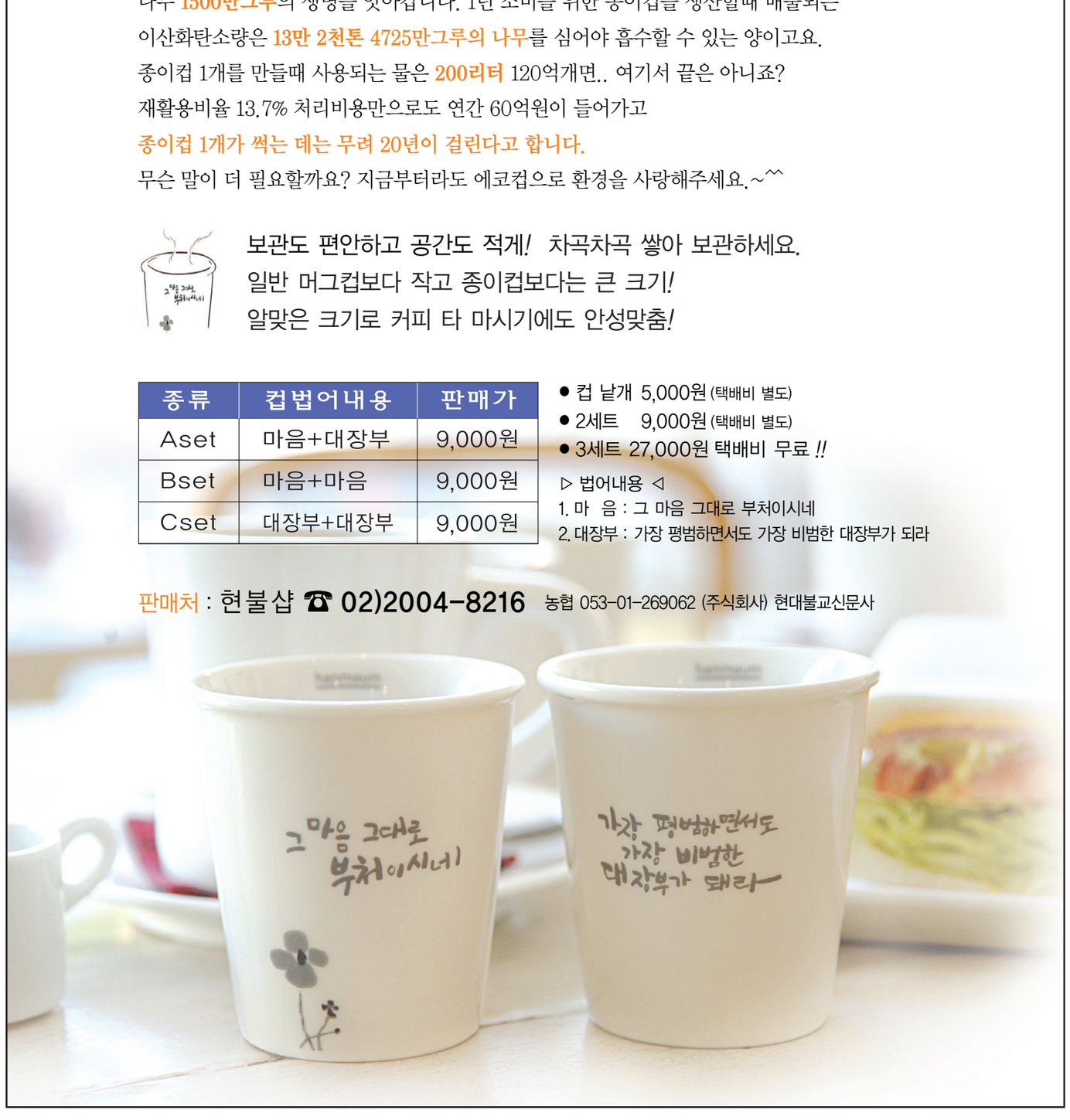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류	컵법어내용	판매가
Aset	마음+대장부	9,000원
Bset	마음+마음	9,000원
Cset	대장부+대장부	9,000원

● 컵 낱개 5,000원 (택배비 별도)
● 2세트 9,000원 (택배비 별도)
● 3세트 27,000원 택배비 무료 !!

▷ 법어내용 ◁
1. 마 음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잉글랜드에 불교커뮤니티센터 들어선다

"잉글랜드 남부의 도시 올더숏(Aldershot)에 대규모 불교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선다"고 햄프셔(HAMPSHIRE)지가 6월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선불교커뮤니티센터(이하 BCCUK)가 2011년 당시 시설 노후로 사용되지 않던 공공체육시설인 로시무어 보로(Rushmoor Borough) 자치구 부설 스포츠센터(BT Social Club)를 매입하고, 불교사원 개원을 천명한 지 3년 만의 결실이다.

"스포츠센터 매입금만 50만 파운드(약 9억)가 들어갔을 정도로, BCCUK의 총력을 쏟았던 프로젝트"라고 전제한 다마르 겔(Damar Chale · BCCUK) 대표는 "부동산 매입 이후 불교사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로시무어 보로 자치구 위원회를 설득하고 지역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했다"며 "오는 6월 중순 경 '불교사원'이 아닌 '불교커뮤니티센터'로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BCCUK 측은 '허가'를 받는 데로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200여 명이 동시에 법회 봉행하거나 명상을 수련할 수 있는 대규모 홀이 조성되고, 대불도 봉안된다. 또한 불교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스님들과 대중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마련된다.

"스포츠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크다"고 전제한 다마르 겔 대표는 "신앙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편의 공간을 제공, 불교커뮤니티센터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안을 자치구 위원회와 모색하고 있다"며 "또한 스포츠센터 인근 올더숏 공원의 공공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논의 역시 로시무어 보로 자치구 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잉글랜드 남부 올더숏 시에 들어서는 불교커뮤니티센터 전경.

"햄프셔 지역 불교 포교, 사회 공익 나설 것"

다르마 겔 대표 9억투입 3년 결실 … 2011년 부지 매입 완료

"스포츠센터는 지난 몇 년간 여러 종교단체에서 임대나 매입 의사를 타진해 왔던 곳일 정도로 이 지역의 랜드마크"고 밝힌 존 손(John Thorne) 자치구 위원회 개발분과장은 "불교커뮤니티센터가 지역 개발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이러한 맥락에 주목, 리모델링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구 위원회는 현지의 관심과 새롭게 들어설 건물의 사회적 공헌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지적한 존 손 분과장은 "위원회가 '사원'이 아닌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권유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말하고 "불교커뮤니티센터가 제시한 운영 방침과 관련 프로그램 등이 자치구의 공익성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무어 보로 자치구의 불교도 수는 지난해 달라이 라마 방문 이후 처음 실시된 인구센서스(2012년 12월)에서 2001년 대비 12%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동년 대비 4% 증가세를 보인 것과 비교해 가파른 성장세이다.

햄프셔 지는 '2012년 인구조사'를 인용, "영국, 잉글랜드 등에서 불교도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불교도 수는 2001년 144,453명에서 2012년 174,000명으로 늘었다. 잉글랜드 경우 152,000명(2012년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버지니아주, 제4회 불교페스티벌 개최

6월 20일~23일, 로버트 서먼 명예교수 기조강연

미국 버지니아주 로슬린에서 올해로 네 번째 불교 페스티벌이 열린다. PRNewsire지 5일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불교 페스티벌이 개최된다"며 "바쁜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지혜의 가르침이 펼쳐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지혜과 자비'를 주제로 로버트 서먼(Robert Thurman · 콜롬비아대 종교학 명예교수) 박사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는 제 4회 불교 페스티벌은 △합동 명상 △영화 상영(6편) △초청 강연(9회) △불교음악 공연(3회)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제티벳캠페인과 티벳연합의 도움을 받아 6월 22일을 '티벳의 날'로 정하고, 티벳의 현안을 알리기 위한 사진전 등 관련 특별 전시회와 공연도 마련되며, '달라이 라마에게 보낼 생일 카드 만들기' 등과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타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25명의 미국인'으로 선정된 서먼 명예교수는 "올해 불교 페스티벌에는 불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톨텍(Toltec), 유니테리언(Unitarian), 랍비(Labbi), 구루(Guru) 등의 종교 지도자들이 초청 연사로 나와 종교 다원성을 가늠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앞선 불교 페스티벌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리는 불교페스티벌(BuddhaFest) 포스터.

PRNewsire지는 이들 프로그램에서 '톨텍의 지혜'를 주제로 한 〈The Toltec Path of Transformation〉의 저자 히터 아마라의 강연, 인도의 떠오르는 요기 리시케시(Rishikesh)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 '종교, 그 원시성과 다양성'을 주제로 한 유니테리언 성직자인 마린 스웰(Marilyn Sewell)의 강연 등이 로슬린과 인근 워싱턴DC 등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가이 피어스, "불교는 내 인생 최고의 경험"

아이언맨3 주연, 연예매체서 불교 언급

얼마 전 국내에서 개봉돼 9백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관람객 수를 낳은 영화 '아이언맨3'. 아이언맨의 적수, 유전공학자 올드리치 킬리언 역할을 맡은 가이 피어스(44)가 불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 화제다. 뉴질랜드 스터프(Stuff)지와 4월 24일(현지시각)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삶에서 불교의 가르침에 몰두했던 2년간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시간이었다고 술회했다.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정말 쉬지 않고 영화를 찍었어요. 저한텐 휴식이 필요했고 고향 호주로 돌아가 쉴 필요가 있었죠. 그 때 티베트 불교 서적을 읽으며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운명에 대해 생각하면서 마리화나를 끊는 등 제 삶을 바꾸는 결정도 하게 됐죠."

헐리웃에서도 개성있는 연기로 입지를 굳힌 그는 악역도 매력적인 역할로 승화시키는 '내공있는' 배우로 통한다. 때문에 가이 피어스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수많은 팬을 끌어들이는 건 물론이다.

스스로를 독실한 불교도라 칭하지는 않지만, 그는 불교가 자신의 삶에 던지는 교훈을 항상 생각한다. 설거지를 하더라도 깨어있는 정신으로 일상적인 일을 관하는 법은 물론 불교를 통해 감사와 존경의 태도 또한 갖추게 됐다.



역대 외화 흥행 2위를 기록한 '아이언맨3'에서 주연을 맡은 가이 피어스. 불교와의 만남에서 진정한 자아의 휴식을 발견했다고 얘기한다.

가이 피어스는 1986년 TV시리즈로 데뷔한 이래 'LA 컨피덴셜' '메멘토' '킹스 스피치' 등에 출연하며 굵직한 연기를 선보인 바 있다. 채식주의자이기도 한 그는 영화 '메멘토' 촬영 당시 채식식단으로 몸무게를 감량하기도 했다.

배현진 수습기자

틱낫한, 美 도시에 청동상 세워져

캘리포니아 주, 테레사 수녀 · 간디 등 25 영웅상 조성

미국의 한 도시에 틱낫한 스님의 조각상이 세워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시가 그 무대. 세계 평화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이들 25명을 기리고자 조성한 기념물이다. 마틴 루터 킹을 비롯 마더 테레사, 간디, 넬슨 만델라 등이 포함됐다.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 전 당시, 난민 구조와 반전운동에 힘쓰면서 상생과 평화의 가치를 세상에 전파해왔다.

5월 31일 헨리 카이저 공원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조각상은 높이 7미터, 넓이 15미터에 이른다. 제작 기간만 십 수년, 사용된 청동은 27톤이 넘는다.

이렇게 대규모로 조각상을 조성한 데는 9.11 테러가 크게 작용했다. 분열된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고 세상에 헌신한 이들의 숭고함을 되살리고자 기획된 프로젝트였던 것. 작품 제목도 "그들을 기억하다: 인류애의 영웅들(Remember them: Champions of humanity)"이다.

작업을 지휘한 조각가 마리오 치오도(Mario Chiodo)씨는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이다. 우리 마음 속에 자리한 인류애와 동질성을 표현하는 데 그들만큼 좋은 모델이 없다"고 말했다.

작품은 인물의 특징을 섬세하게 포착해 냈다는 반응이다. 틱낫한 스님은 합장한 모습으로 대중들의 시선을 모았다. 스님의 얼굴에서 평화와 불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온 틱낫한 스님의 말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다.

자신의 삶을 넘어 세상을 위해 살아온 이들의 정신과 만나는 곳. 헨리 카이저 공원은 이제 치유의 장소로 거듭나게 됐다.

배현진 수습기자


미국 오클랜드시가 평화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25명의 위인을 청동상으로 만들었다. 틱낫한 스님이 합장하고 있는 모습.



5만 달러 최고가 불서 등장 '화제'

싱가포르 센텍시티국제컨벤션(Suntec City International Convention)에서 열린 '2013 도서 박람회(Book Fair 2013, 6월 5~10일)에서 최고가의 불서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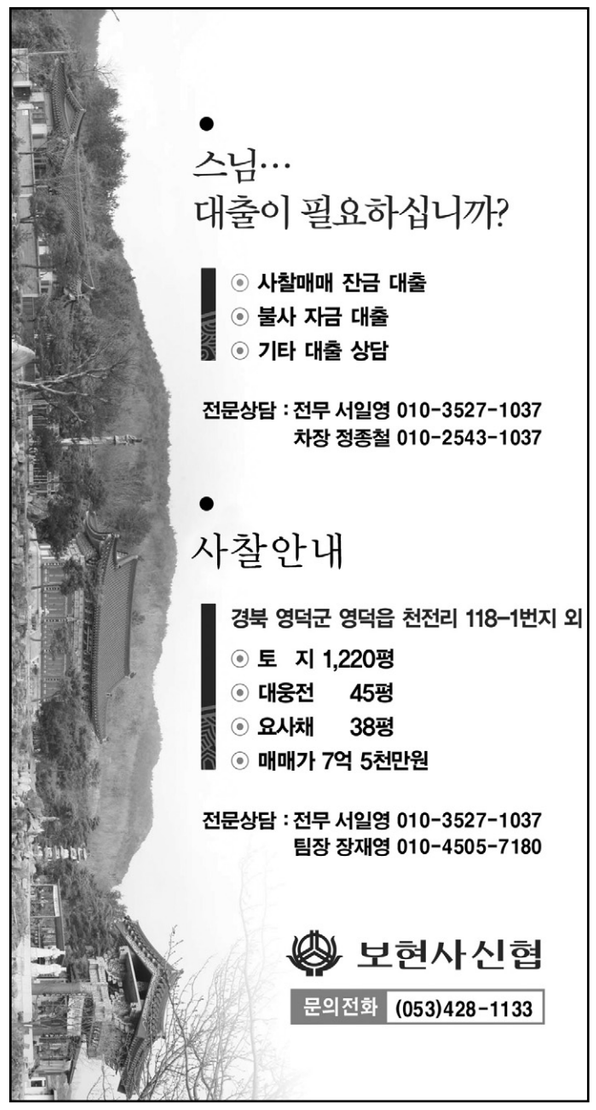
'2013 도서 박람회'에서 주목받은 불서는 중국의 사경 작가 씨아 징샨(Xia Jingshan)의 사경 시리즈 'Fuo Xiang Dian Zang(Collection Of Buddhas)'을 엮은 도서로, 50,000달러(약 5,600만원)로 책정 • 전시되어 관람객의 발길을 잡았다. SATRDAY 지에 따르면 이 시리즈는 작가 싸아가 30여 년 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사경하고 채색 삽화로 장엄해 만든 화첩을 엮은 것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간명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약 사 여 래 도 량
보 금 정 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 010-3535-9797

영남범음범패
제2기학인모집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예불) (천도, 49재, 모든의식)
▶작 법 무 : 천수바라, 황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교육과정 : 6개월
▶모집인원 : 수시모집
▶교육대상 : 제한없음
▶개강일시 : 2013년 6월 17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까지)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총무원(불교회관)
▶문 의 처 010-5065-5690 011-887-4591
사)한국미륵불교 부설
불 교 대 학 범 패 원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사찰매매 잔금 대출
불사 자금 대출
기타 대출 상담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사찰안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8-1번지 외
토 지 1,220평
대웅전 45평
요사채 38평
매매가 7억 5천만원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팀장 장재영 010-4505-7180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100% 순수 자연그대로 백련사 국내산 산삼

장長 뇌腦 삼蔘



건강이 최고!

평생 최고의 선물을 불자님들께 공급해 드립니다.
'경기도 안성 백련사'에서 직접 재배한 국내산
장뇌산삼을 최저가격으로 현불샵에서 공급해 드립니다.
한뿌리 한뿌리에 사찰의 정기가 서려 있습니다.
부모님, 스승님, 각종 업무에 지친 현대인들의 건강에 최고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백련사에 직접 방문 하시어 산삼을 채취 할 수도 있습니다.

7~8년근 3뿌리 15만 ➔ 특가 12만원 / 7~8년근 5뿌리 25만 ➔ 특가 19만원

장뇌삼의 효능

◇**항암효과**
장뇌삼은 암세포를 죽이고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로회복**
장뇌삼에 함유된 말톨 성분은 간기능이나 심기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면역력 증강**
만성피로나 체력저하 등의 허약체질을 개선해 주고 면역력 증강의 효능이 있습니다.
◇**노화방지**
항상화 작용이 뛰어나 노화를 방지하는데 효능이 있으며, 피부노화 뿐만아니라 몸 속의 세포의 노화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예방**
장뇌삼에는 인슐린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해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장뇌삼 먹는방법

◇**생으로 장뇌삼을 먹는방법**
장뇌삼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뇌두를 제거한 후 아침 공복이나 취침하기 전에 30분이상 오래씹어서 복용하세요.
장뇌삼을 먹기 전후에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지어 먹는방법**
장뇌삼과 함께 밥을 지어서 먹으면 기력이 없는 분들의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소화흡수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뚝배기를 이용해서 밥을 짓는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한약으로 먹는방법**
장뇌삼 1주당 1리터의 물을 붓고서 쎈불로 달이다가 끓기시작하면 중불로 반으로 졸인다음 아침저녁으로 공복에 마시면 좋습니다.
◇**술로 먹는방법**
유리병에 장뇌삼과 술을 부어 밀봉시킨 다음 숙성시켜서 소주잔에 한잔씩 마시면 됩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 30,8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크기 : 직경 10mm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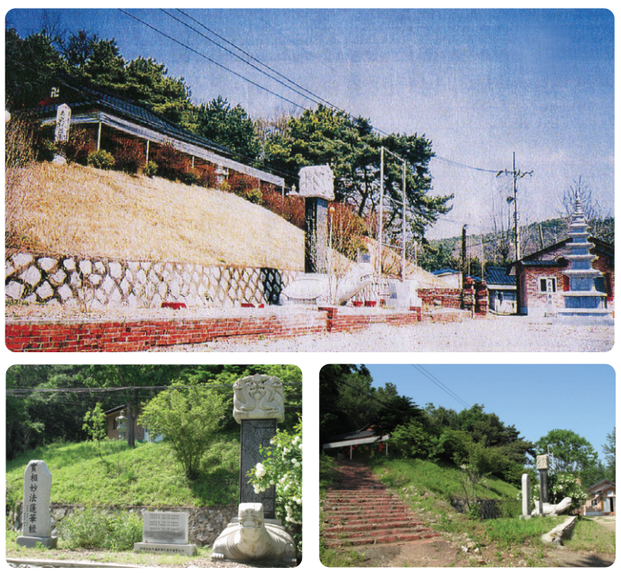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포교의 원력으로 불사를 이끌어 갈 수행자를 모십니다

소납은 40여년간 군포교의 일선에서 전념해 온 일선 윤동암 입니다.
국방부 땅을 영구 불하 받아 부처님 법당을 일구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5천여평의 가람을 이루어 포교에 전념하였으나,
이제 세수가 원만하여 포교를 이어갈 수행자를 찾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하여 큰 뜻을 가지신 승가는 찾아오셔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람 : 법당, 대웅전, 관음전, 요사채, 객실, 공부방
⦿ 위치 : 임진각 부근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 부지 : 5천평 규모의 밭
⦿ 법회 : 매주말 군장병 정기법회
⦿ 교통 : 자유로, 통일로 바로 연결

※ 이차돈 순교탑 불사 중입니다.

문의 : 010-9415-5818
스님 직접



신비의 원적외선

• 특허출원
제 10-2013-0041564
• 한국원적외선 협회
시험성적완료
• 한국원적외선 협회
품질보증 마크FI 획득
• 양초 한개당 원적외선 방사율
(5~20 ㎛) 0.871
• 양초 한개당 원적외선
방사에너지
(W/㎡ · ㎛,37℃) 3.36x10²
• 촛불 점화시 방사에너지가
더 나올수 있습니다.



<원적외선의 효능 및 효과>

• 항균, 공기정화에 도움
• 신진대사 촉진기능
• 숙면, 방균, 곰팡이 번식 방지 효과
•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 노폐물 및 유해중금속 배출에 도움
• 발한작용, 통증완화에 도움

원적외선은 적외선중 파장이 가장 긴것으로서, 파장이 짧으면 반사가 되지만 파장이 길면 잘 흡수되는 성질이 있어 침투력이 강해 일반열과 다르게 진피속을 투과 생체내로 침투되어 자기발열을 일으켜 온열효과를 일으키며 세포조직의 활성화로 몸의 피로를 풀어 줍니다.

원적외선 방사 "향" 곧 출시됩니다.

본 제품은 VAT 별도입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
일반양초와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양초중 어느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존양초와 동일한 가격대!!!

"품질보증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大明 대명산업

<구 입 처>
전국 불교 용품 전문점
문의 : 02) 502-9977
팩스 : 02) 503-5233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75,000원, 여성용장지갑 120,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일체중생 고통에서 벗어나길… 사경 20년

이윤용 작품전…6월 18일까지 아라아트센터·물파스페이스


서예경력 50년의 이윤용 불자

"결혼하고부터 절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불교를 미신, 기복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 불교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50줄에 불교를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됐죠. 이후 서예작가였던 저의 작품 세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죠"

이윤용 작가가 사경과 서체추상 작품을 동시에 선보이는 전시를 마련했다. 6월 18일까지 아라아트센터(사경)와 물파스페이스(서체추상)에서 각각 열리는 이번 전시는 사경 14점과 추상 38점으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사경으로는 〈법화경〉 〈금강경〉 〈불설아미타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사경 작품 중에는 〈법화경〉 전체를 먹으로 사경하고 변상도에 전문까지 완성했는데 그 길이만 27. 5m다. 작가는 작업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하루에 9시간씩 사경을 하다보면 엉덩이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법화경〉 사경을 완성하는데 4년의 시간이 걸렸죠. 한 자 한 자 써내려가면서 부처님의 법열에 흠뻑 젖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환희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는 늘 참선수행하고 광명진언을 염하고 난 뒤 작품에 임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부처님과 함께한다. '고해(苦海) 중의 모든 중생들 광명 찾아지이다' 라는 발원을 시작으로 작업에 임한다는 작가는 그 간절한 마음을 작품 하나하나에 담아냈다.

이윤용 작가는 이번 〈법화경〉 작품을 송담 스님에게 보여드렸더니 당신의 친필로 법어를 내려주셨다. 스님은 "백년의 인생 살이는 뜬 구름이요, 물 가운데 물거품이라 / 알지 못해라 종일토록 누구를 위해 바쁜가/ 만약 바쁜 가운데 참 소식을 알면/ 한 떨기 연화가 끓는 물속에서 피느리라"라는 뜻이 담겨있다.

반야심경과 진언을 그림으로 표현한 서체 추상도 눈길을 끈다. 'Panna'는 열일곱 작품은 먹색에 노랑 파랑 빨강 등을 가미해 공의 세계를 표현했다. 여기에 진언으로 표현되는 만트라 23작품은 내면의 울림을 보여준다.

"서체추상화는 서양회화와는 다르게 작업을 했죠. 서예 필기구로 먹에 수채물감과 아크릴 등으로 색을 곁들였죠. 이 작품들 역시 항상 광명진언을 외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냈습니다"

이렇게 작가는 모든 작품을 대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서예가였던 작가에게 사경과 추상화라는 또다른 작품 세계를 열어주었다. 그녀가 서예가에서 사경과 서체추상화를 시도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불교 공부를 한창 할 때 늘 보던 〈천수경〉도 그냥 〈천수경〉이 아니었어요. 그 뜻과 구절구절이 너무 와닿아 울컥 울컥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죠. 부처님이 늘 제 곁에 계시는 느낌이었어요. 서예 작가로 활동하던 터라 그때부터 다양한 서체로 경전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때 〈지장경〉을 3m 장지에 완성했는데 지금은 금산 극락사 후불탱화로 모셔져 있죠."

수행 기도로 하루 일과 시작

모든 사람 행복 발원 기도

사경 · 서체추상 동시 전시

이렇게 작가는 사경 작품을 모아 10년전 환갑을 기념한 첫 사경전을 열게 되었다. 당시 전시를 관람왔던 故 석주 스님과의 인연은 특별하다. "때마침 스님과 같은 시기에 전시가 열렸는데 석주 큰스님께서 전시를 구경 오셨어요. 그때 '무구정광대다라니'가 마음에 든다며 작품을 사가셨죠. 너무 고마운 마음에 석주 스님께 글씨 하나를 선물하기로 했어요. 스님께서 자실인의(慈室忍衣)를 말씀하셨죠. '자비로움으로 집을 짓고 인욕으로 옷을 삼는다'는 뜻으로 스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붉은색 종이에 금니로 넉넉한 스님의 인품을 담아 예서체로 표현해 선물해 드렸습니다"

이후 작가의 사경은 해인사 쌍둥이 비로자나부처님 복장에 봉안되는 등 유명세를 탔다. 그렇게 첫 개인전 이후 10년 동안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경을 했고 서체 추상화를 그려 2013년 다시 전시를 열게 된 것이다.

굳이 전시를 위해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향한 환희심을 표현하다 보니 전시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윤용 작가. 그녀는 오늘도 수행의 공덕을 작품에 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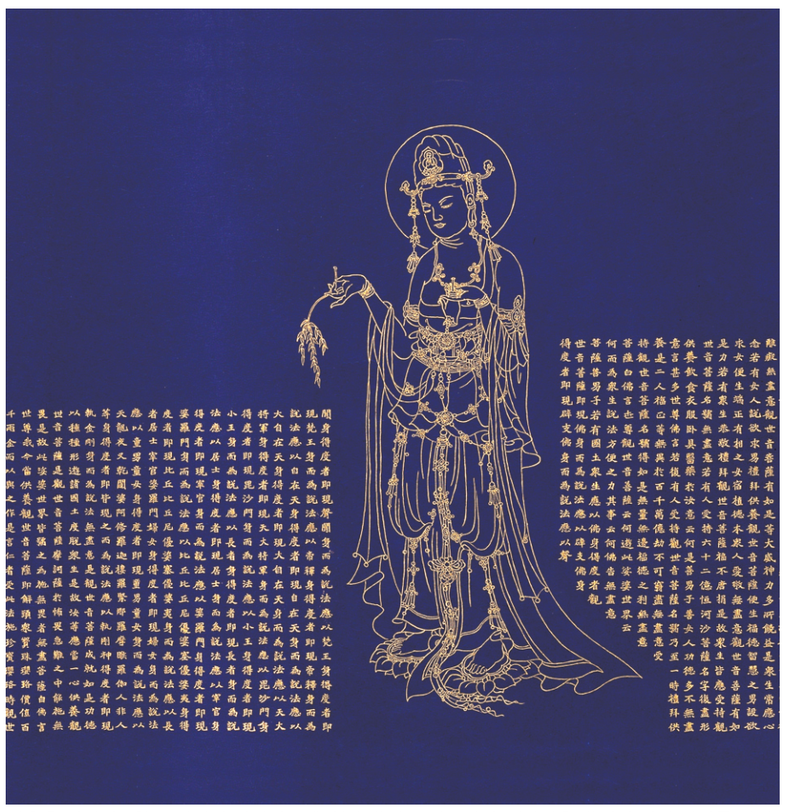
이윤용 작가는 1940년생으로 인천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수료했다. 1986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을 수상했고, 서울 백악미술관과 대전 한림갤러리(2001)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다수의 초대전에 참여했다.

사경 서예 · 아라아트센터(02)733-1981

서체추상 · 물파스페이스 (02)739-1997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반야심경 서체추상시리즈 'panna 16'


이윤용 작가가 6월 18일까지 아라아트센터(사경)와 물파스페이스(서체추상)에서 각각 전시를 연다. 작품은 '묘법연화관세음보살보문품' (감지에 금니).


故 석주 스님께 선물 드린 '자실인의'. '자비로움으로 집을 짓고 인욕으로 옷을 삼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세상의 꽃으로 피어난 부처님의 말씀

불화작가 양선희 개인전 '꽃 드니 미소 짓네'

가섭의 미소와 혜가 스님의 구법행이 꽃으로 태어났다. 불화가 양선희 작가의 '꽃 드니 미소 짓네'가 6월 12일~18일까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양선희 작가는 법화경 내용을 주제로 연꽃, 어사화(御賜花), 보상화(寶相華)로 부처님 말씀을 표현했다. 그녀의 꽃은 꽃밭에 만발하기도 하고 꽃병을 만나기도 하며 연못에서 피어나기도 했다. 그런 꽃들은 가섭미소(迦葉微笑) 조사서래(祖師西來) 묘법연화(妙法蓮花) 설야구법(雪夜求法) 등으로 태어났다. 특히 '가섭미소'는 가섭의 염화미소를 항아리에 담긴 꽃으로 표현했다 "부처님의 마음을 꽃에 담아 보았습니다. 항아리는 부처님으로 꽃은

고려불화 기법 현대적 해석

6월 18일까지 전수회관서

상스럽고 좋은 일을 표현했죠. 그리고 제 그림의 꽃은 국가가 번창하고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고 밝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양 작가의 작품은 전통적인 고려불화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고려불화의 배채기법을 사용, 염색된 비단에 천연석채인 석록, 석청, 표주, 석황과 천연식물성염료인 쪽과 연지 그리고 순금을 사용해 표현했습니다. 꽃의 모양은 봉원사 영산재 영단의 꽃에서 아이디어를 따왔죠. 현대인들에게 불화가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상징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양 작가는 앞으로 불화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전통불화를 그리는 작가지만 대중들에게 불화가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숙 기자


양선희 작 '가섭미소'

故강태기 추모 공연 '이뭐꼬'

6월 16일 대구 수성아트피아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연극배우 故강태기 씨의 대표작 '이뭐꼬'가 무대에 오른다. 강태기 추모위원회(위원장 이정현)는 6월 16일 오후 3시, 7시 각각 대구 수성아트피아 용지홀에서 강태기 추모특별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정광진 씨가 극작과 연출을 맡은 창작연극 이뭣꼬는 지난 2011년 강태기 씨가 주연을 맡았다. 당시 〈이뭣꼬〉는 중견 연기자들의 탄탄한 연기와 심오한 대사 그리고 잘 짜인 대본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후 서울과 대구 공연에 이어 지난해 2월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세 번째 공연을 올려 불교계 안팎에서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강태기 씨가 63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연극은 잊혀지는 듯했다.



2013년, 고인이 연극사에 남긴 혼을 기리고자 다시 '이뭐꼬'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에는 고인을 대신해 배우 이정성 씨가 무명 스님 역을 맡는다. 또한 박경득(대오 스님 역), 박경근(무불 스님 역), 임홍식(화부 역), 나재균(변호사 역), 이정주(노시인 역), 김재경(노숙자 역), 조주경(여인 역), 홍순이(무명스님 역) 씨 등 중견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정혜숙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1평 미니법당

(대웅전과 지장전)

부처님께서 감응하시어 장엄불사 했습니다.
모든 불자님께 알려서 친견 하시길 바랍니다.
- 나무석가모니불 -



卍 대한불교 조계종 새로운 하얀마음선원(백심사)

전화 031)707-010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모든 학자들이 외면한 '조형사상의 열쇠' 찾기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당초문→영기문 ㊦



'당초문' 이란 이름의 허와 실

조형미술에는 종교사상(宗教思想)이나 철학사상(哲學思想)보다 더 심오한 사상이 깃들어 있다. 조형언어를 읽지 못하니 문자언어로 된 문헌들이나 경전들을 읽지 못하는 것과 같다. 조형언어로 되어 있는 조형미술은 문자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까지 표현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조형사상(造形思想)이라는 용어를 만들지 않을 수 없다. 조형미술의 표현원리와 조형사상을 처음으로 추구하여 정립하였으므로 그 보편적 이론을 바탕으로 연재를 쓰고 있다.

우리는 단지 '당초문' 이란 용어만은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조형미술에 단순한 '당초문' 은 없다. 앞에 반드시 '인동', '연', '모란', '국화' '아칸서스 잎' 등의 구체적인 주된 꽃이나 잎 등의 명칭이 붙게 마련이다. 그런데 용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현실에서 보는 넝쿨들의 이름이요, 인동, 연꽃, 모란, 국화 등 현실에서 보는 꽃들의 이름들이다. 그 두 가지가 결합하여, '인동당초문' '모란당초문' '연당초문' 등으로 불려서 널리 쓰인다. 그런데 바로 현실에서 보는 형태로 용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오류와 대혼란이 생긴 것이다.

〈당초문(唐草文)〉에 관한 연재를 시작하려고 하니 가슴이 두근거린다. 아무도 의심하고 있지 않은 당초문. 이 용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중국의 '당(唐)나라 풀'이다. 말이 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그 용어를 보고 웃는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건 한국이건 육지에서 온 문물에는 당(唐, 일본 말로 '카라')이란 말을 용어의 접두어로 간혹 써왔었다. 그러면 '당나라 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일본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카라쿠사몽'. 그 이국적인 어감을 좋아하는가 보다. 일본학자는 '식물의 덩굴무늬'를 平安(헤이안)시대부터 당초라 불러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없다.

당초(唐草)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전거는, 서기 1001년쯤 헤이안 시대의 궁녀 ?少納言(세이슈우나곤)의 수필집인 『枕草子』(마쿠라노소우시:베갯머리의 서책)에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말이 나온다. 「蒔?(마끼에)는 唐草」. 蒔?는 칠공예 기법의 하나로 금·은 가루를 뿌려서 다듬는 일본 특유의 미술 공예품, 또는 그 기법을 말한다. 그리고 일본 헤이안 시대(794년~1185년) 후기에 완성된 작자미상의 설화집인 『今昔物語集』(곤쟈구모노가다리슈) 즉 "옛날과 지금의 이야기" 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唐草의 蒔?의 唐櫛?」.

이들 고전에 근거하여 일본인은 '唐草文' 이란 용어를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 미술사학자들은 아무 갈등이나 의문 없이 식민지시대에 일본인으로 부터 배우거나, 해방 후 일본에 유학하여 그대로 당초문을 배워 와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모든 국민들은 당초문이라 부르고 있다. 그런 간단한 언급을 취하여 당초문이라 해서 지금은 세계 공통적인 용어가 되었으니 당초문의 실체는 점점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조형의 본질 찾을 수 없는 이름



그림①

중국은 만초문(蔓草文)이라 부르는데 용어는 당초문과 다르지만, 넝쿨무늬를 가리키는 것은 같다. 서양에서도 같은 내용의 용어를 쓰되 정해진 용어가 없는 듯하다. 대개 'plant like decoration' 혹은 'foliage scroll'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이다. 불어로는 'rinceaux' 독일어로는 ' laubwerk'라 한다. 사전을 찾아보면 모두 '당초문' 이다. 우리나라 외국어 사전은 일본에서 만든 외국어 사전을 모두 번역한 것이어서 우리나라 모든 사전류들을 찾아보면 모두 '당초문' 이다.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아직도 일본 식미지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저 장식일 뿐이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 일본학자들은 이슬람 미술, 그리고 유럽의 그리스, 로마, 기독교 미술 등에 나타난 서양의 조형들인 덩굴무늬들도 모두 당초문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인도, 동남아시아 등의 덩굴무늬들도 모두 당초문이라 부르고 있어서 동서고금(東西古今) 세계의 모든 넝쿨무늬는 당초문이 되어버렸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바꾸어 '덩굴무늬' 혹은 '넝쿨무늬' 라 하지만 틀린 용어임은 마찬가지이다. 그 용어에 따라 조형의 해석도 단지 '당초문' 혹은 '덩굴무늬' 라는 장식일 뿐이다.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뜻을 읽어보면, '덩굴을 이루며 연속문양을 이루며, 주제의 식물에 따라 인동당초문, 포도당초문, 모란당초문 등 이름 붙이지만, 양식화되어 무슨 식물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부터 건축과 공예의 장식문양으로 세계각지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리스의 도기, 사산조 페르시아의 은기나 염직, 이슬람 도기 등이 좋은 예이다' 대체로 이렇다. 당초문은 단지 그런데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세계의 일체의 조형미술의 모든 장르에 걸쳐 광범위하게 쓰이며, 한 마디로 일체의 조형미술은 당초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당초문이란 말이 올바르지 않으니 왜 틀렸는지 밝혀야 하고 올바르게 그 근본을 분명히 밝혀서 새로운 용어들도 만들어야 하니 세계 각국의 미술사 연구는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은 다투어 일본에 유학하여 동양의 미술을 연구하여 그들도 통일된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카라쿠사몽' 이라 부르니 어이가 없다. 국제적 용어로 되어버린 당초문이란 용어를 차치하고라도 서양에서도 역시 덩굴 장식무늬로 알고 있으니, 이 당초문을 바로 잡으려면 인류의 문화를 종전과는 다르게 새로이 정립하는 거창한 작업이어서 인류문화의 혁명과도 같다.

당초문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무늬 가운데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당초문이란 것은 용과 보주와 만병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데 동서양 학자들이 용, 보주, 만병을 모르니 당초문이란 용어가 왜 틀리는지 더욱 알 수 없다. 서양학자들은 더욱 불리하여 훨씬 낮은 수준이다. 당초문이 차지하는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크고 중요하므로 인류의 미술사학 연구는 지금부터라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자, 이제부터 세계의 모든 학자와 총칼 없는 침묵의 전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다. 물론 그들은 침묵하거나 올바른 정답을 제시하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당초문의 정체를 충실하게 증명해낼 뿐이다. 그렇게 해서 서양의 미술을 풀어내면 오랜 세월 끝에 그들도 나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나대로 당초문의 정체를 알아냈으니 풀어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풀어낼 것이다.

조형화된 넝쿨은 실물과 무관

식물에는 넝쿨식물이 따로 있다. 같은 말로 덩굴식물이라고도 하는데, 줄기가 길쭉하여 곧게 서지 못하고 다른 물건을 감거나 거기에 붙어서 자라는, 즉 집의 담이나 벼랑 등 수직경사진 곳에서 길게 줄기를 뻗어 자라나는 식물들이다. 넝쿨식물의 종류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나팔꽃, 수박, 참외, 포도, 수세미, 오이, 담쟁이덩굴, 능소화, 다래덩굴, 줄장미(덩굴장미), 등나무, 호박, 머루, 칡, 오미자, 갈퀴덩굴, 꼭두서니, 메꽃, 더덕 등과 같은 식물들이 있으며, 포도과에 속하는 식물들도 거의 다 넝쿨식물이다. 이들 넝쿨들은 잡풀에 속하여 예부터 생명수나 우주목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미미한 잡풀이므로 인류의 조형미술의 주류를 이룰 수 없는 것은 뻔하다.

그러면 기원 전 고대의 조형미술에 나타나기 시작한 넝쿨식물은 이러한 현실의 넝쿨식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 조형미술에 나타나는 넝쿨모양식물은 현실에서 보는 넝쿨식물과 아무 관계가 없다. 심지어 가장 비슷한 포도 넝쿨마저 포도 넝쿨이 아니다. .

인동당초문, 연화당초문, 모란당초문, 국화당초문, 포도당초문 등은 과연 맞는 용어인가? 인동, 연꽃, 모란, 국화 등은 넝쿨식물이 아닌데 주어진 공간에 맞추어 왜 한 줄기로 혹은 사방으로 여러 갈래로 전개하여 가는 것일까? 문명의 발상부터 왜 그런 조형을 만들었을까? 그런 조형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그런 조형의 전개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런 원리는 어디에서 비롯한 것일까? 인류가 역사를 이루어 오는 동안 어느 미술사학자도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없다. 오히려 모른다고는 말하지 않고 억지로 답을 만들어 내려는 데서 동서양 미술사는 더욱 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당초문이 아니라면 그 수많은 당초문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인지 모르면 단지 '당초문' 이라한다. 그 예가 고려청자 암막새 무늬이다.(사진 1) 그 모든 당초문은 '영기문(靈氣文)' 이라는 방대한 조형의 카테고리에 포함될 뿐인데 이 낯선 '영기문' 이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나가 보기로 한다. '무엇인지 모를 당초문' 에 세계가 놀랄 비밀이 숨겨져 있다.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늬에 세계미술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조형에 열쇠가 숨어있는데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藥이 되는 사찰음식

나물 비빔밥으로 여름철 피로 풀어보자

연재를 시작하면서

'자연' 과 '시간', '사람' 이라는 삼박자의 절묘한 조화로 만들어져 온 우리 사찰음식은 몸과 마음을 함께 보듬어주는 치유의 음식[藥]이자 수행을 돕는 수행식[禪]이라고 할 수 있다. 식재료 본연의 맛을 가리는 인공조미료 대신 시간의 흐름을 간직한 전통 장류와 자연발효 효소로 맛을 낸 사찰음식은 몸의 기운을 돋워 마음까지 다스려주니 약식(藥食)이자 선식(禪食)이다. 사찰음식에 담긴 '선식일여(禪食一如)' 의 가르침은 여법하게 조리된 음식을 고르게 섭취함으로써 올바른 수행을 돕고, 지혜를 수승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됨을 뜻한다.

부처님께서는 때 아닌 때에 먹지 말고 음식의 맛을 탐하지 말라고 일러주셨다. 식재료가 오기까지 자연에 감사하고 농사를 지은 농부에 감사하며 진언 외우듯 정성을 다해 조리하는 사찰음식. 여기에는 정갈한 에너지와 수행정신이 담겨 있다. 귀한 지면을 주신 '현대불교' 에 감사하며, 산사의 향기가 담긴 사찰음식이 독자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생된장 효소 소스의 나물 비빔밥

△재료(4인 기준)

_나물 비빔밥 : 멥쌀 2컵, 조 1/4컵, 다시마 1조각, 각종 봄나물(미나리, 돌나물, 쑥갓, 당귀, 상추 등) 200g

_생된장 효소 소스 : 된장 4큰술, 매실액 2큰술, 산야초 효소 3큰술, 들기름 4큰술, 다진 청양고추 2큰술, 다진 홍고추 2큰술, 통깨 2큰술

△만드는 법

① 멥쌀과 조는 깨끗이 씻어 30분 정도 불린 뒤 다시마물을 넣고 고슬고슬하게 밥을 짓는다.



② 봄나물은 깨끗이 씻은 후 엷은 식초물에 씻어 내거나 놋그릇에 물을 담아 하루 정도 둔 후 10분 정도 두었다가 건져낸다. (놋그릇을 사용할 경우 생채소의 살균작용에 도움이 된다.)

③ 재래식 된장에 분량의 재료를 넣고 골고루 섞는다.

④ 그릇에 밥과 채소를 담아 생된장 효소 소스를 곁들여 낸다.

효소 소스의 효과와 생된장의 조화

'효소' 는 우리 몸속에서 인체 활동을 돕는 다양한 촉매제로 작용한다. 노화와 피로의 주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세포재생 활동을 돕거나, 지혈작용을 하는 등 그 역할은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효소가 매실액이다. 매실을 설탕에 넣고 절여 숙성, 발효시킴으로써 손쉽게 액상효소를 만들 수 있다.

매실에 넣은 설탕은 발효과정에서 효소작용에 의해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체내에서 또 다른 효소들과 결합해 인체가 필요로 하는 약리작용을 한다. '산야초 효소' 역시 체내에서 다양한 약리작용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산야초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시판중인 산야초 효소를 구해 음식에 활용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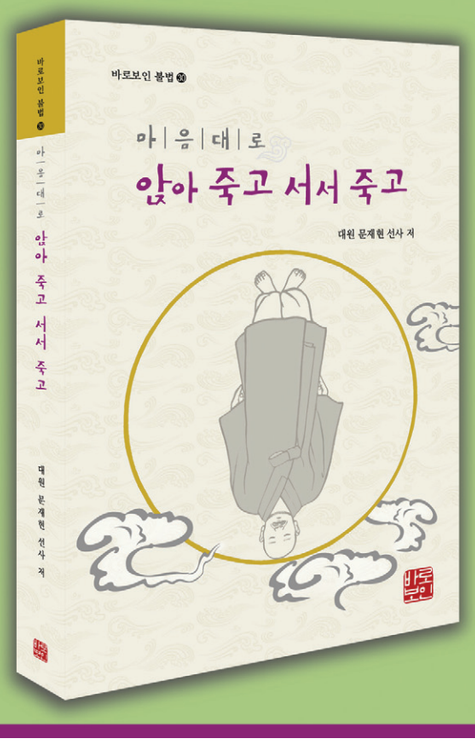
오늘 소개하는 생된장 소스는 우리의 전통 발효음식인 된장에 산야초 효소와 매실액을 더해 된장 특유의 흙내가 없어 상큼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으로, 강된장이나 쌈장과는 또 다른 맛이다.

효소 자체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으로 소스를 만들어 음식에 곁들여 먹으면 좋다.

▲김은정 소장은…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천태종 울산 정광사 · 인천 황룡사 천태사찰음식연구보존회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오직, 불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불조정맥 제77조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저서인 이 책은 생사를 자재한 분들의 앉아서 열반하고 서서 열반한 내력은 물론 그분들의 생애와 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수록해놓았다.

부처님께서는 불가의 이러한 열반과 신통을 명예욕이라고 하여 밖으로 들추지 말라고 하셨다. (중략)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일러두기 중에서…

☎ 031-534-3373 / 010-9043-1016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저서 - 30종 / 60권



전질 구입시 20% 할인입니다.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22권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바로보인 법성게 / 달다 / 기우목동가 / 초발심자경문 / 방거사어록 / 실증설 /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 불조정맥(한영중 3개국어)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108진참회문(한영중 3개국어) /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죽고 서서죽고

생태위기 원천은 '탐욕' … '고요한 소리' 고요한 파문



생태위기
-그 해법에 대한 불교적 모색
클라스 샌델 엮음
우천식 · 우광희 옮김
도서출판 초롱 · 고요한 소리 펴냄
1천원

'생태위기-그 해법에 대한 불교적 모색', 책의 표지를 보면 생태를 걱정한 책이고, 책 속으로 들어가면 책은 인류를 걱정하고 있다. 세계적인 불교환경학자 5인의 저작물로 엮어진 책은 환경오염, 그리고 자연자원의 지나친 개발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지구생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그 회복의 가능성과 해답을 불교에서 모색하고 있다.

책은 위기의 원천을 인간의 '탐욕'을 조장하는 생활 현장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사회의 당연한 귀결로, 경제가 정치까지 제치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면서 소비가 미덕이며, 성장을 위한 수요의 창출은 체제를 유지하는 동력이 됐다. 돈 버는 일, 즉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중심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고 소비를 권장하는 생활구조가 자연스럽게 탐욕을 키웠다는 것이다. 인류는 탐욕을 키운 가치관부터 검토해야하며 그 가치관의 중심인 탐욕에 대한 고찰은 부처님께서 이미 가르쳐주신 것이라고 말한다. 불교에서는 이미 중생을 괴롭히는 가장 근본적인 독소인 삼독(三毒 · 탐진치)을 가르쳐 왔다. 그 삼독 중의 하나가 '탐욕'인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문제는 간단해 진다. 생태의 위기는 탐욕에서 왔고 부처님은 탐욕을 중생에게 가장 이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탐욕을 내려놓으면 될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간단치 않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는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부자가 되는 것이 시민적 공의가 되고 경제성장이 국시가 된 구조에서 욕망을 줄여야 한다거나 더 나아가 탐 · 진 · 치를 넘어서야 한다는 의견은 다중의 지지와 실천력을 얻기는 고사하고, 시대적역행적 발상으로 호도되기 쉬운 현실이다. 책의 필자들은 오늘날을 지배하고 있는 물량주의, 기술일변도의 사고방식 등은 바로 이러한 탐욕의 외표라고 말한다. '탐욕'을 해결하는 일은 생태위기를 벗어나는 근원적인 해법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며, 그 가능성을 찾기 위해 책은 불교적 시각으로 문제를 조망한다.

책은 인간과 자연간에 지금보다 좀 더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의 영감의 원천으로 불교철학의 몇몇 측면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불교철학은 어떤 신(神)도 전제하지 않고 다만 인간의 개인적 통찰에 기초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과학적 사고가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에 도움이 될 것들을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종교들이 그렇듯이 불교라는 종교도 철학, 도덕적 기준, 종교의식 등을 포용하고 있어 매우 복합적이며, 그 모든 측면들 또한 다른 문화들과 오랫동안 접촉하는 가운데 영향을 받아 변형되기도 했다. 따라서 오늘날의 불교는 결코 단일한 개념이 아닐뿐더러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며 다양한 정황에 적용된다. 이 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불교는 불자출판협회(Buddhist Publication Society)가 발간하는 책자와 논문들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상좌불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책은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불교의 자연관을 빠알리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릴리 드 실바)

제2장은 최근 왕성하게 논의되고 있는 생태적 인식에 입각한 '대안' 개발연구와 연결해서 불교식 자연접근 방식을 조명해보려는 시도이다. 이 장은 보다 지속가능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모색하는 이러한 영감의 원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클라스 샌델)

제3장은 불교적 환경윤리를 모색하고 있다. (빠르마시리 드 실바)

제4장은 이상의 글들에 비해 보다 행동지향적인 글로 생태개발의 가능성을 불교의 입장에서 모색한 예를 소개한다. (시그문트 크발뢰이)

제5장은 '자연에 대한 불교적 인식 프로젝트'의 발기인이자 각국 조절자이며 미국의 환경 보호론자인 낸시 내쉬의 프로젝트 소개 글이다. (낸시 내쉬)

끝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제공한 달라이 라마의 환경선언문을 싣고 있다. 이 선언문은 1986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그리고 그 해의 주제인 평화와 환경 '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발표된 것이다.

책은 '고요한 소리'의 법륜 시리즈 스무 번째다. '고요한 소리'는 근본불교 대장경인 빠알리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불사를 감당하고자 발원한 모임으로, 먼저 스리랑카의 불자출판협회(BPS)에서 간행한 훌륭한 불서 및 논문들을 국내에 소개하고 있다. 책은 근본불교 · 불교철학 · 심리학 · 수행법 등 실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다루는 연간물(連刊物)이다. 고요한 소리는 그 동안 법륜 시리즈를 비롯해 '보리수잎 시리즈' 마흔여덟 권과 '금구의 말씀 시리즈 한 권을 출간했다. 책의 출판비용은 뜻을 같이 하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되고 있으며, 판매비용은 전액 빠알리경전의 역경과 그 준비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된다. 책이 생태위기를 중심으로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와 실천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법륜 시리즈-
1. 부처님 그분 - 생애와 가르침
2. 구도의 마음, 자유 - 칼라의 경
3. 다르마팔라 - 불교중흥의 기수
4. 존재의 세 가지 속성- 삼법인(무상 · 고 · 무아)
5. 한 발은 풍진 속에 둔 채-현대인을 위한 불교의 가르침
6. 옛 이야기 - 빠알리 주석서에서 모음
7. 마음, 과연 무엇인가 -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
8. 자비관
9. 다섯 가지 장애와 그 극복 방법
10. 보시
11. 죽음은 두려운 것인가
12. 염수경 - 상응부 느김편
13.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가 - 재생에 대한 아비담마적 해석
14. 사리뿟다 이야기
15. 불교의 초석 - 사성제
16. 칠각지
17. 불교 - 과학시대의 종교
18. 팔정
19. 마라의 편지
20. 생태위기-그 해법에 대한 불교적 모색

※고요한 소리 돕는 방법 / 국민은행 006-01-0689-346 (사)고요한 소리 (02)739-6328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고

노자와 다석-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류영모 번역 | 박영호 풀이 | 교양인 펴냄 | 2만5천원



톨스토이와 슈바이처는 〈노자(도덕경)〉를 읽고 예수와 일치된 노자의 사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슈바이처는 노자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톨스토이는 〈노자〉를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일까지 시도했다. 81장으로 이루어진 〈노자〉는 오늘날 수많은 판본과 번역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다석 류영모의 번역은 〈노자〉를 우리말로 풀어쓴 선구적인 업적으로 꼽힌다. 다석은 노장(老莊) 연구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20세기 초반에 이미 깊이 있는 강해로 이름을 떨쳤다. 책은 유교 불교 노장 사상과 기독교를 하나로 꿰뚫어 독창적인 사상 체계를 세운 다석의 〈노자〉 번역을 바탕으로 삼아 그의 제자 박영호가 풀이를 덧붙인 것이다.

춘추 전국 시대에 지어졌다고 전해지는 〈노자〉는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었으며, 동서고금의 수많은 대가들이 〈노자〉에서 세상의 이치를 얻어 철학적 사유를 확장했다.

〈노자〉의 사상은 한 마디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위는 '도는 언

〈노자〉,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
톨스토이, "인류철학의 원천" 극찬

제나 무위이지만 하지 않는 일이 없다.'의 무위이고, 자연은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의 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노자〉의 사상은 모든 거짓됨과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는 사상이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문학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로 노자를 꼽았으며, 헤겔은 노자의 사상을 그리스 철학을 능가하는 인류 철학의 원천이라고 극찬했다. 특히 서양의 노자로 불리는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노자〉를 독일어로 옮기는 작업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노자의 '도(道)'를 '모든 것에 길을 내주는 길'이라 풀이했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글자 하나가 하나의 사상을 담고 있는 〈노자〉는 동양의 경전 중에서 가장 심오하여 쉬이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고유명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해석자에 따라, 또는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글의 의미가 달라진다. 다석은 대체로 직역으로 옮겼는데, 이 방식에는 원문을 읽는 이에게 그대로 전해 독자가 낱말이나 글자 하나가 지니고 있는 깊고 넓은 사유의 세계를 맘껏 거닐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다석의 〈노자〉는 한문이 지니는 해석의 다양성을 헤아린 탁월한 풀이이며, 우리말로 철학하기의 지평을 넓힌 전범(典範)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9 ~ 6/4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틱낫한 명상	틱낫한	불광출판사
4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6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7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민족사
8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9	가려엮은 아함경 (재가자 편)	허정	지혜의나무
10	걷기 명상	조성래	알아차림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대주 선사의 경쾌한 선기를 느껴라

대주선사어록 강설-상 · 하
대주혜해 지음 | 한암대원 강설 | 불광출판사 펴냄
상권/ 3만2천원 하권/ 1만8천원



간화선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한국불교와 그 뿌리인 돈오의 정맥을 확인할 수 있는 대주혜해 선사의 어록을 정리하여 엮은 〈대주선사어록 강설〉이다. 사상적으로 남종선인 하택신회의 선사상을 계승하고 있으며, 돈오선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해 깨달음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주 스님이 마조 스님께 절을 올리니 마조 스님이 묻는다.

"무슨 일로 왔느냐?"

"저는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마조 스님이 말했다.

"여기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한다는 말이냐?"

대주 스님이 입을 떼지 못하자 다시 마조 스님이 말했다.

"제 집의 보장은 돌아보지 않고 내돌아다니면서 무얼 하려하느냐?"

선 수행의 핵심은 가르침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선지식에 있다. 더구나 돈오 수행은 스승의 가르침이 없으면 위험하기 그지없는 난행이 아닐 수 없다. 수행 과정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유혹과 오판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롭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책은 그런 점에서 수행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수행자들에게 매우 요긴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대주 스님은 마조 스님의 한마디에 깨닫는다. 부처님이 들어 보인 연꽃 한 송이를 보고 가섭 존자가 미소로 답했던 순간부터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다름 아닌 '교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주 스님에게 마조 스님(스승)이 없었다면, 마조 스님의 그 한 마디가 없었다면 대주스님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책은 대주 선사의 어록으로, 곳곳에서 번득이는 선기(禪機)와 함께 과연 깨달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를 느낄 수 있다. 〈대주선사어록〉은 깨달음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눈여겨 볼 만한 텍스트다. 때문에 여러 선지식들이 해설 또는 주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정리한 〈대주선사어록〉은 우리 시대 선문(禪門)의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한암대원 선사의 재해석이다. 대부분의 선사 어록이 입적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 후인들에 의해 모아지고 편집된 데 비해 〈대주선사어록〉은 대주 선사 자신이 직접 집필한 까닭에 오류나 가필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큰 장점이 있다. 더구나 책의 서두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대주 스님은 마조 스님의 제자이며, 책은 그 두 분이 살아 있을 때 저술되었고, 마조 스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책이다.

〈대주선사어록〉은 그리 길지 않다. 더구나 한 편 한 편이 독립되어 있어 어느 쪽을 펼쳐서 보더라도 문맥이 엉키지 않고, 그 자체로 완결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맥락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간결한 문장 속에 깨달음에 이르는 정수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상권에는 '돈오입도요문론' 47 단락을 실었으며, 하권에서는 '제방문인참문' 40개 단락이 실려 있는데, 각처에서 찾아오는 경 · 율 · 논 · 종장들이 스스로 승복하도록 만든 대주 선사의 경쾌한 선기를 느낄 수 있다. 평정심의 도, 성인의 행, 참부처님의 아들, 오욕의 독, 진여의 정 등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한다.

박재완 기자

"형상 허망함 알면 그 자리서 여래 증득"



행복한 금강경 이야기 1, 2

설우스님 지음 | 사유수 펴냄 | 1권 1만6천원, 2권 1만4천원

"〈금강경〉은 중생이 본래 행복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선경(禪經)입니다. 우리가 이 경전에서 부처님과 수보리가 묻고 답하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지금 중생의 모습이 본래 부족함이 없는 여래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됩니다. 끊어야 할 번뇌가 실로 있지 않음을 바로 보고, 따라서 번뇌에 물들지 않으며, 보살의 닦음에도 머물지 않고, 깨쳐도 깨침으로 인해 얻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실다운 수행입니다."

40여년을 선방 수좌로 지내다 청주 법인정사와 창원 진불선원을 창건하고 대중포교에 매진중인 현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이자 승가청규위원장인 설우 스님〈오른쪽 사진〉. 스님은 경전을 올바르게 공부하면 세간과 출세간법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 속에서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게 된다고 강조한다.

이런 스님이 평소 〈금강경〉에 대해 법문한 책을 두 권으로 묶어 펴냈다. 제목은 〈행복한 금강경 이야기〉이다. 이전에 나온 〈금강경〉책들은 교리를 중심으로 엮어놓았다면 이 책은 불자들이 일상생활서 마음공부하고 마음 쓰는(用心) 입장에서 썼다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스님은 "마음공부를 하는 불교는 관심(觀心)을 어떻게 실용화시키는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래서 불자들 입장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고 쉬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출가 한 뒤 줄 곧 선방으로 들어가 30여년을 정진했다. 참선하느라고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어른 스님들이 책을 못보게 하셔서 30년동안 책 한 권 읽은 적이 없다"며 "하지만 초심자는 화두의 본질을 공부하기 위해선 책을 봐야 하며, 수행자는 늘 양쪽(교선)을 잘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 진불선원과 법인정사에서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게 강의한 내용을 엮었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금강경〉은 행복깨닫게 해주는 '선경'
포교현장서 펼친〈금강경〉 법문 묶어
대승보살 정신 나타난 '사종심' 중요



스님은 〈금강경〉의 모든 구절을 좋아하지만 핵심은 바로 '범소유상(凡所有相)이 개시허망(皆是虛妄)이요, 약견제상(若見諸非相)이 비상(即見)이면 즉견여래(即見如來)라' 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구게(四句偈)는 〈금강경〉 사구게 가운데서도 가장 완벽하게 반야사상을 드러낸 것이라 해서 표준사구게다.

이 구절의 의미를 풀이하면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을 상이 아닌 줄로 보면 곧 여래를 볼 수 있다"란 것이다.

총 2권인 이 책은 제 1분 '법회가 열리게 된 인연'을 시작으로 제 32분 '응신, 화신은 참되지 않는다' 까지 32개의 법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스님은 16분인 '능정업장분'(能淨業障分)을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눈여겨 보라고 강조한다. 이는 직역 하면 능히 업장을 깨끗이 한다는 말로 〈금강경〉을 읽으면 반야지혜가 생기고 지금까지 짊어지고 산 어두운 무명을 사구게 정신을 이해하고 무주상보시와 반야의 지혜를 받아들여 마음의 문이 열리면 반야가 바로 무명과 업보를 업신여긴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무명업보를 업신여기니까 마침내 다 없어지고 반야만 남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의 세계라는 것이다.

이어 스님은 〈금강경〉에서 대승보살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사종심(四種心)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강조했다. 사종심은 광대심(廣大心), 제일심(第一心), 상심(常心), 부전도심(不顚倒心) 등이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해제철마다 강의 요청이 들어 와서 선방 스님들을 대상으로 강의 하다 접하게 되는 조사스님들의 선어록중에는 주옥같은 명법문들이 많이 있다"며 "앞으로 초심자들도 생활속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선어록을 발간하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

진짜 '나'와 대면… 용서 · 사랑 생겨

자기돌봄

타라 브렉 지음 | 이재석 옮김 · 김선경 엮음
생각정원 펴냄 | 1만3천원



이 책은 잠시도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내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달아나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의 쳇바퀴를 멈추고(멈춤), 순간순간 깨어 있으면서 내 마음을 관찰하고(깨어있기, 마음 챙김), 진짜 '나'를 인식하여(통찰), 마침내 나를 사랑하고 온 세상을 껴안기(포용,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다.

저자는 외부가 아닌 나의 본성을 깨달음으로써 지속적인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이자 대표적인 불교 명상가다. 그는 워싱턴 통찰명상 공동체를 창립했으며, 35년 넘게 위빠사나 명상을 위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서양의 심리학과 동양의 불교명상을 결합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현대인들에게 큰 공감과 위로를 주고 있다.

그의 두 번째 책인 이 〈자기 돌봄〉은 전작인 '받아들임'의 개념을 보다 실천적으로 제시하는 자기 사랑법이다.

미국의 수련자와 수행자들을 위한 위빠사나 강연을 보다 쉽게 풀어쓴 이 책은 마음챙김 이론의 정의와 더불어 멈춤-살펴보기(관찰)-보듬기(인식)-껴안기의 네 단계를 두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즉,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멈추고 그 순간에 갈등하는 자신을 관찰한다.

관찰을 통해 진짜 '나'와 대면하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마침내 타인과 세상을 껴안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로 인해 자신에게 생기는 부끄러움과 분노, 미움과 절망, 슬픔과 외로움을 저자는 모두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RAIN' 명상을 통해 자신에게 생기는 수치심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RAIN'에서 R은 '인식한다(Recognise)'이며, A는 '허용한다(Allow)'는 뜻이다. 인식과 허용은 단지 '아, 지금 여기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군'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벌어지고 있는 나쁜 일들에 감정을 동일시하지 않고 생각을 잠시 멈출 때 거기에는 선택과 자유의 기회가 생긴다. 바로 RAIN의 시작점이다. **김주일 기자**

정견정립, 혜능의 핵심 가르침

육조단경

김태완 지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5천원



중국의 선종사를 3기로 나누어 보면, 1기는 좌선수련을 위주로 하는 선법, 3기는 간화와 묵조의 선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위치하는 2기는 조사선으로서 이 선법의 요지는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심전심, 불립문자이다.

2기는 선(禪)이 혜능에 의해 인도의 색채를 탈피하고 중국화되는 시기로서, 그 이후 중국, 한국, 일본에서 전개된 선불교의 원형이 완성되는 시기이므로 현재 우리나라 선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시기였다.

그런 면에서 혜능은 중국선이라는 새로운 선문을 처음으로 연 개조(開祖)라 할 수 있다. 이 선문은 좌선수련이라는 점수법(漸修法)으로부터 선문답을 통한 돈오로 변했다. 또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으로 돌아가며, 수행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기존의 접근법으로부터 '일체가 다 진실하며, 정과 혜는 둘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변화했다. 혜능이 새롭게 연 이러한 선은 이후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된 선불교의 기본 토대가 되며, 특히 임제종의 간화선으로 계승된다. 그러므로 혜능의 선을 이해하는 것은 중국선을 이해하는 길잡이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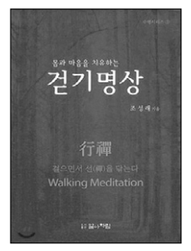
육조혜능은 오직 견성을 말한다. 불성, 자성, 본성은 불이중도의 다른 이름이고, 선은 불이중도를 깨달아 언제나 불이중도의 눈을 가지고 삼라만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선정, 해탈, 열반, 반야, 보리 등 불교의 모든 용어들은 단지 불이중도인 견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말하는 것일 뿐, 제각각 차별되는 이름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불이중도인 견성이 있을 뿐이다.

이 책은 원문의 목차에 따라 전체를 10개의 장으로 나누었고, 각 장마다 번역문을 앞에, 원문을 뒤에 배치하였다. 또 원문은 표점을 하여 읽기 쉽도록 도왔다. 서문과 발문도 모두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를 정립하는 것이다. 견해가 어긋나면 수십 년을 공부해도 헛수고가 되는 반면, 견해만 바로 세우면 문득 말끝에 진리를 깨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선불교의 중심에 자리한 육조혜능의 가르침은 바른 견해를 세우는 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지침서이다. **김주일 기자**

걷기명상은 발동작과 발의 느낌 계속 알아차림 하는 것

걷기명상

조성래 지음 | 알아차림 펴냄 | 1만2천원



위빠사나 부산 금정선원 조성래 원장(55) 원장은 35년간 선수행을 해온 자타가 공인하는 위빠사나 전문가이다. 1978년 〈육조단경〉을 접한 뒤 화두선과 묵조선을 거쳐, 현재는 위빠사나 선을 닦고 있다. 선방에서 하루 8시간 이상씩 꼬박 5년을 참선에 몰두하기도 했다. 이런 그가 7년 전부터는 걷기 명상에 빠졌다. 선방에 앉아 참선을 꾸준히 해봤지만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들면 혼침이 떨어져, 멍하거나 졸음상태에 머물러 있기가 일쑤였다고 말한다. 이 문제를 해결못하면 더 이상 공부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몸부림쳤다.

하지만 어려웠다. 새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그 새 수행이 바로 걷기명상이었다.

조 원장은 "선가에서는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이 모두 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히 있거나 모든 행위가 다 선(禪)이란 것이지요. 이 말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걷기명상을 하며 그 의미를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고 걷기명상을 예찬한다. 이런 저자가 그동안 자신이 수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걷기명상〉을 펴냈다.

걷기명상은 경행(經行) 혹은 행선(行禪)이라고 한다. 걸으면서 발동작과 발의 느낌에 의식을 집중해 그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이다. 현재 세계적인 명상수행가인 틱낫한 스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기만 있을뿐 두드러진 전문가나 서적은 많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이 책은 걷기명상의 이론과 실제, 생생한 체험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걷기명상의 역사, 불교 사상과의 관계 등의 연구 결과도 기록해 놓았다. 저자는 "걷기명상을 할 때 마음은 언제나 발에 가 있다. 의식을 발에 집중해 마치 코끼리가 걷듯이 천천히 걸으면서 매순간 발동작과 발의 느낌을 놓치지 않고 모두 알아차리겠다는 마음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심자에게는 정적인 좌선보다 동적인 걷기명상이 훨씬 쉽고 효과적이란 설명이다.

조 원장이 권하는 걷기 명상법은 이렇다. 걷기 명상을 할때는 코끼리

걷기명상의 이론과 체험 담아
초심자는 명칭 호명 필요

가 걷듯이 천천히 걸으면서 발동작과 발의 느낌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선 걷기명상에 들기 전에 먼저 발뒤꿈치를 붙이고 똑바로 선 채 약 10초 정도 자신의 호흡을 느껴봄으로써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리고 의식을 집중해 발을 주시한다. 그런 뒤에 먼저 오른발을 들어 앞으로 나아간다. 발이 나아갈 때 마음을 모아 나가는 발을 따라가며 계속 주시한다.

이때 발동작과 발의 느낌을 분명히 알아차림하면서 '오른발'이라고 명칭을 붙인다. 왼발도 방법은 동일하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있는 행위와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것, 그것에 명칭을 붙이는 것, 이 세 가지가 정확히 일치돼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특히 초심자는 명칭 붙이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명칭 붙이는 것은 알아차림을 명료화하고, 마음이 밖으로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저자는 위빠사나 금정선원을 개원해 초심자를 위한 걷기명상과 초기경전인 아함경을 강독하고 있다.



걷기명상 하는 법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중

좋은인연 대출안내
33년의 역사와 자산825억원의 형산새마을금고는 변함없이 전국의 많은 사찰과 좋은인연을 맺고 있으며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어 좋은 인연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대출이자 ☞ 1억 대출시 최고 58만원
❷ 대출기간 ☞ 5년 (만기시 연기 가능)
❸ 근저당설정비 ☞ 면제
❹ 대출지역 ☞ 전국 (제주도포함)
❺ 단체명의, 종단 소속사찰 모두가능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⑪ 선학원의 재건과 선의 대중화(1)

기복신앙 넘어… 선 대중화 발판 마련

용성 스님 등 초청, 법회 및 참선 수행
남녀선우회 조직… 부인선우회 법인화까지
참선으로 타력신앙 극복 · 자주적 인간 꿈꿔
술수좌대회 등 봉행… 선학원 외연 확대



1931년 3월 23일 선학원 큰방에서 개최된 제1차 전선수좌대회(全鮮首座大會)

1921년 민족불교를 회복하기 위해 창설한 선학원은 1924년부터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사찰령(寺刹令) 이후 불교계의 왜색불교화로 인한 왜곡과 변질이 일차적인 원인이었다. 당시 불교계에 대한 총독부의 간섭과 통제는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자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 씨앗까지도 고사(枯死)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그것은 선학원이 1922년 선우공제회(禪友共濟會) 조직을 통해 보다 안정적 기반 하에서 선의 부흥과 대중화를 모색했던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초창기부터 꿈꾸었던 법인화(法人化)의 노력은 총독부의 방해로 좌절되었고, 불교계의 부정적 인식과 소극적인 관심은 재정난으로 나타났다.

선학원은 이후 약 7년의 세월동안 사무소를 직지사나 범어사로 옮기면서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학원 설립의 취지나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겼던 교계의 사부대중은 그 침체를 가슴 아프게 생각했었다. 이와 같은 회한과 부활의 염원은 1931년 1월 적음(寂音)스님이 주석하면서 실현되었다. 창설초기의 어려움과 한계를 거울삼아 한국불교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적음스님은 우선 당대의 고승을 초청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대승경전에 대한 강의와 설법의 장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 수행 역시 적극 권장하였다. 1931년 창간된 〈선원(禪苑)〉 '선학원일기초요(禪學院日記抄要)'에 의하면 매월 평균 3~4회에 걸쳐 한용운(韓龍雲) · 이탄옹(李炭翁) · 백용성(白龍城) · 김남전(金南泉)을 비롯한 스님들의 반야(般若)설법과 유마경(維摩經) 강의 등 다양한 법회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인계 즉시 선학원의 대방(大房)을 거처로 하고 이탄옹 스님이 입승(入繩)을 맡아 20여 명의 납자와 신도들이 참선(參禪)을 시작한 것은 선학원 창설의 취지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듬해인 1932년에는 대방을 비롯한 각 방의 도배를 새로 하고 온돌을 보수하여 수행환경을 향상시켰다. 더욱이 이해 3월 1일에는 70여 명을 회원으로 한 남녀선우회(男女禪友會)가 조직되었고, 3월 21일에는 부인선우회(婦人禪友會)가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두 조직은 선의 대중화를 통해 선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였다. 이 가운데 부인선우회는 1931년 3월 2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고승법회를 통해 선 수행을 비롯한 교학(教學)에 대한 이해도 높여갔다. 특히 1932년 11월에는 그해 9월 만주사변 발발로 피해를 입은 만주지역 동포를 구제하기 위해 현금과 의복을 모아 보내기도 하였다. 이 부인선우회는 체계적인 신행단체로 거듭나 선학원이 재단법인으로 인가받은 이후에 '조선불교중앙부인선원(朝鮮佛教中央婦人禪院)'으로 거듭나기도 하였다.

우리 모든 신도들은 선 즉 참선(參禪)이 무엇인지 몰랐으며, 오로지 불교라면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것인 줄 알았으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세음보살만 외치면 이생에서는 아무 일없이 만사성취(萬事成就)하는 요소인줄 알았으며, 지장보살만 부르면 죽을 때는 무사히 죽고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면 죽어서 극락세계를 간다는 단편한 불교의 교리인 줄 알았었다.

1935년 간행된 〈선원〉4호에 소개된 글이다. 지극정성으로 염불(念佛)하는 것만으로 복을 받고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타력신앙(他力信仰)이 불교의 전부라고만 알고 있었던 것이 당시 불교계의 일반적 경향이었다. 밖으로부터 들어온 불교가 이 땅의 풍토 속에서 발전하고 성숙했던 시기가 지나고 탄압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했던 시기의 적나라한 신앙풍속도였다.

그러나 1931년부터 대중화된 선 수행을 통해 단순히 복을 빌기에 급급했던 부인(婦人)들은 "참선이 참다운 불교의 교리이며, 어두운 토굴에서 광명의 길로 인도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당시 부인계에서는 환희작약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에게 참선은 수행이면서 신앙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는 대신 참선을 통해 자주적 인간으로 변화한 것이다. 급기야 부인선우회는 1934년 안국동 41번지에 2층 가옥을 마련하여 〈조선불교중앙부인선원〉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一. 우리는 부처님의 정신을 체달(體達)하여 자선(自禪)을 선포실행하며 부인들을 인도 교양하고 견성성불(見性成佛)하기로 하자.

一. 우리는 참선의 진리를 철저히 연구하여 생사대사에 함께 해탈(解脫)하 자.

一. 우리는 중생제도를 하되 지옥중생이 다 할 때까지 제도하기로 하자.



1930년 대 선학원에서 열린 적음스님 입실건당 모습.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석우 적음 만공 용성 동암 스님.

당시 부인선우회의 강령(綱領)이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보다는 견성성불의 원(願)을 세운 것이다. 염불보다는 참선을 통해 해탈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매일 네 번씩 나누어 수행하며, 15일마다 선지식을 모셔와 설법을 들을 것을 정하기도 하였다. 선학원의 창설정신이 구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재건 초기 선학원은 내적인 변화와 함께 외연을 넓히기 위한 행보도 본격화하였다. 우선 1931년 3월 23일 전선수좌대회(全鮮首座大會)를 개최하여 당시 교무원(教務院) 종회(宗會)에 제출할 건의안을 작성하고, 3월 25일에는 적음스님이 종회에서 중앙선원(中央禪院)을 설치해 줄 것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교무원은 찬성은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고 한다.

한 사찰의 주지된 사람을 보면 선원에는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자들이 안거증서(安居證書)만 위조한 자도 있으며, 또는 안거증서도 없이 이력서에 기탄없이 안거횟수를 공공연하게 써서 사법(寺法)의 조문(條文)에 어긋남이 없도록 속이는 자가 많다. 이와 같이 선학(禪學)에 수양(修養)이 없는 자가 뭇 사람의 대표가 되고 본즉 사람들이 '선(禪)' 자 한자를 물어보아도 해석하여 대답할 자가 없다. 그리고 선을 모르니 선원(禪院)을 외호(外護)하고 선승(禪僧)을 존경하고, 선학을 부흥할 뜻이 생길 수 없다.

김태흡이 1932년 〈선원〉2호에 투고했던 '호선론(護禪論)'의 한 대목이다. 선학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수행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하지 못한 당시 불교계의 단면을 지적한 것이다. 2~3년 동안을 의무적으로 승당(僧堂)에서 선학을 연구하고 수행하는 일본 승려와는 달리 주지소임을 위해 사법(寺法)에서 주지자격으로 제시한 안거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하는 경우가 당시 우리 불교계의 세태였다.

한편 당시 선학원이 건의한 중앙선원의 설치는 일차적으로 선수행이 지닌 가치를 인식한 결과였지만, 민족불교 회복을 위한 자구책이기도 하였다.

당시 불교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대처승과의 차별화 의지였던 것이다. 즉 청정비구승들의 수행을 위한 사찰을 할애해달라는 요구는 선학원 창설 초기와 용성스님의 건백서(建白書), 그리고 해방이후 정화운동(淨化運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문제였다.

선학원은 중앙선원 설치건의와 함께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1931년 11월 16일 개최된 법어사 본산총회 때는 매년 600원의 선학원 경비보조를 청구하였다.

비록 범어사의 재정곤란으로 200원의 지원을 받는데 그쳤지만, 적음스님의 침술에 기반해 조직된 제약부(製藥部)의 수입, 그리고 남녀선우회와 부인선우회의 조직 확대로 운영과 수행의 기초가 튼실해졌다. 이밖에 선학원은 불서(佛書)의 간행과 보급, 기관지인 〈선원(禪院)〉지 창간 등을 통해 내적인 발전과 수행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삼보는 종단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삼보륜 마크의 뜻

1. 불국정토 불,법,승 삼보와 자연으로는 하늘,사람,땅,을 도안화 하였습니다.
2. 종렬 삼보는 한뜻,일심정성,소구소원,을 뜻하며 즉 끝없는 기도와 수련으로 우리 하나됨을 의미 합니다.
3. 세상천지도 내가 중심이되는세계, 그러나 앞서지않고 사회의 중심에 서서 균형,조화, 예의,희생,봉사,사랑, 실천을 뜻 합니다.
4. 나를 중심으로 매년,매월,매일, 낮과밤 변화의 회전을 뜻하며 생명력의 연속성을 뜻합니다.

법인단체등록필
고유번호:204-82-76850

종무법인
禪大韓佛教 曹溪宗
종단 가입문의 (02) 959-1825

"기적을 일으켜 주고있는"
생전예수재기도
이 기도가 자신의 운명과 운세를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7일 마다 한번씩 20분정도 집에서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준비 되어있는 기도문 내용을 방편 앞에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생전예수재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 기도로서 자신의 삶이 바뀝니다.

(1)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현재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특히 불치병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3)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주 막히고 진행이 잘안된다.
(4) 결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5) 결혼후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
(6)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7) 취업이 잘 안되고, 되어도 좋은 직장이 안된다.
(8) 무슨 시험이든 운이 약하게 작용하여 합격이 어렵다.
(9)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잘 안된다.
(10) 직장에서의 승진이 어렵다.
(11) 앞으로 남은 생의 삶은 정말 새롭게 잘 살아 보고싶다.
(12) 특히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이 기도를 필히하십시오.

이상의 내용에서 몇 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본 회에서 무료로 보내드리는 「생전예수재의 필요성」책자를 신청하여 읽어 보신 후 마음이 닿으시어 기도 신청을 하시면 바로 집에서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이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 보시고 신도들에게 펼치시고자 하시면 별도로 전화 주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육임CD프로그램
효 사 비 결
정확합니다
당면사 / 일생사 / 성부단정이
확실 합니다.
고복자 효사
02)738-8680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젊어서 마음공부도 하지 않았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네.
그들은 고기 없는 마른 연못의 늙은 왜가리처럼 앙상하게 뼈만 남았네.
그들은 내팽개쳐진 낡은 화살처럼 지난날을 떠올리며 눈물짓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사 주 역 학
역학도 배우고 스님 공부
하실분. 기초부터 친절지도
서울 구로동 지장사
02)856-7749
010-4581-6174

지리산 청학동 (미륵암 자비수양원)
황토방과 건강치료설비를 갖춘 수양원에서 식이요법 및 유기농 식단 등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께선 많은 연락바랍니다
* 또한 암자에서 참선수행 하실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 찾아주십시요
011-759-0183
010-8484-612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모든 고민은 네이버에서
"샤먼노트"를 검색해 보세요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록 명 법 특 강
전귀명은 부동산 투자성공하고
폭패파택살(김우중)은 부도나고 경문년에 오바마 대통령재선 천사통수격(박근혜)은 대통령됨. 마두대재는 창업성공 부자되고 봉황록귀는 부귀로 세계에 이름떨침.
범귀자 영장살자는 매사 중도좌절
명귀보궁 비살병투자는 남자친구한테 APT팔고 비재성자는 복권당첨됨.
쉽고 새로운 천년비법 최초공개!!
010-4022-2967
010-9469-7719

모든 영가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목선고통, 불안초조, 주의력 결핍, 약효가 없는분, 병명이 바뀌는 분,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 병원 치료가 어려운 분
43년 이상 된 염불 수행자
010-5912-2377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영통철학 1개월 완성
○ 개인지도
○ 교육 후 바로 상담 책임지도
○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010-2586-7938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범음범패 학인모집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선암 (부산 진시장 앞)
010-6569-1010

불사용(佛事用) 달마도 보급안내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 친필 달마도를 정성껏 저렴하게 그려 드립니다.
보급처 051)202-8770.
010-2953-8770
*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합니다.
부산청암달마원

불교의식(범음,범패)학인모집
실전위주 교육(재가불자가능)
불공의식.천도재,49재,점안식
천수바라,나비무
010-9263-8057
부산 은진사.인호,수법 합장

전법을 위한 생활불교 강좌
대 상 : 스님, 법사, 불교에 관심있는 분
기 간 : 6개월
월회비 : 5만원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6~8시
010-2493-2560

제의식에 필요한 사물 및 작법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북, 태징, 법고, 홍고, 작법)
02)532-0529

소승은 약사여래 가피로 각종 환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승입니다
서울,경기,충북지역
빈 사찰이나 암자 보시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010-2324-8011

향기도의 묘법
• 어떠한 소원도 이루게 해주는 기도
이기도법을 원하는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032)664-0048 / 011-741-0867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40~50세)
011-9514-3721

공양주 + 원주소임
가족같은 보살님 원합니다
(강원도 설악산 작은암자, 무경험자도 됨)
기도하고 수행하실 분 환영합니다
033)463-3150
보수금 절충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청주)
010-3691-586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남 아산)
010-6266-4669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총무스님 010-5511-7000

달마일장금(경) 강의 (스님만 / 공양. 숙식제공)
왕초보에서 고수로 3박4일(1일 8시간 / 총24시간 강의)
■ 강사 : 유천철학원 원장 011-838-1134
■ 장소 :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339번지 (여여암) (055)744-5300
■ 내용 : 포태법, 십이신살, 십이운성, 불귀법, 혼령잡는법
신도를 자연스럽게 천도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비방법
법복 안 손으로 짚어 1분안에 당신의 과거10년 미래10년을 꿰뚫는다.
첫날 오후2시~ 6시 수강 후 회비 입금가능 함

관 상 • 손 금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얼굴,손금만 봐도 어디 질병이 있는지 알수있다.(산소,조상,가족문제)
• 철학원,포교원,무속인,일반인
• 전국어디든지 출장 가능함
• 개인지도 나이관계 없음
스님 특별개인지도
010-4014-8822

기도스님(비구니) 모십니다
서울 길동 강동우체국 옆 지장사입니다.
법당을 책임지고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한분을 모십니다.
상담전화 02-488-0180
(야간)010-5344-909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가족세우기 (전문)지도자 과정
붓다의 가피명상 지도자과정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둠명상, 해독단식명상, 태교명상 원네스 명상
니르바나명상센터
문의전화 – 혜산 010-4114-6600
다음카페–니르바나명상, 네이버–원네스 행복한 가족 참조

풍수지리 명사 (샛별을 보고 득력)
명당은 땅팔자, 사람팔자가 많아야 발복이 됩니다. 기도는 본인하고 맞는 기도, 기도제도 본인과 맞아야 소원 성취가 빠릅니다.
명당에 묘자리를 잡아두면 병이 낫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사주팔자가 좋아도 묘터나 집터가 안 좋으면 건강, 사업, 출세도 안 좋습니다.
작명(상호, 이름), 천도재 대가, 명당 다량보유(와우형, 연소형, 매화낙지형), 명당을 잡아 준 사람은 좋은 꿈을 꿉니다.
소백산 스님 018-413-3377

불자정보 944호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주시 가흥2동 472번지 금 명 사
• 법당, 산신각,방 2개, 욕실, 주방
• 월세:1년에 200만원 (가격조절가능)
011-9370-751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군 남지면
• 평수: 500평(총 4필지)
• 완벽한 법당 시설,
• 즉시법회가능,
심야보일러
• 가액: 2억1천만원(절충가능
010-3130-7661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서구 대평리 시장 부근
• 3층건물 중 2층 40평, • 시설 최상급
• 삼존불, 십일면관음, 산신
• 주불아미타 3자동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방2칸, 상담실, 살림가능 (108불 인연불)
• 냉장고 大1대, 세탁기드럼
• 총 3천 5백만원 (보300–35만) 포함 조절가능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010-8339-552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 대지 120여평 • 임법당 20평
• 요사 15평 • 창고 7평
• 차량 마당 진입 가능
•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1억원(절충가능)
010-6308-732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 본사 소임관계로 급안내
• 평수 약 9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상담
• 방2, 종무소1, 서재1, 공양간1
• 즉시 법회 가능
010-8606-7918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남해안 소재 사찰
• 토지 : 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 납골추모관, 무량수전,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주차장 완비
• 가액: 4억 8천만원
• 읍내 유일 추모관 운영, 예상가는 8억 이상이나 건강상 이유로 급 안내
010-5444-080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대문구청앞
• 평수 50평
• 삼존불 108불, 산신, 칠성
• 방2, 상담실
• 보증금 1천 7백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2)394-74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포항시 해수욕장 앞
• 대지 약 700평, 건평 목조건물
• 1층 약 60평, 2층 약 60평
• 오존불
• 가액: 보증금 3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보시고 가격 절충
054)261-1104

사 찰 안 내
• 위치: 영주시 안정면 (영주시, 풍기읍에서 10분이내)
• 법당 15평 삼존불
• 요사채 30평 방2, 주방, 욕실 겸 화장실 스님방 별도
• 경관 화려하고 전전세 3년 남았음
• 연 150만원 ,시설비 1천 3백만원 조절가능
011-9572-4652

포교원(급)안내
• 위치: 안산시 월피동
• 평수: 26평
• 법당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3662-552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중방동
• 4층건물중3층 (45평)
• 시설비 700만원 월20만원
010-8979-6041
010-7795-55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
• 총평수 413평
• 대웅전, 목조기와 25평
• 요사채 25평, 컨테이너 1동
• 아미타삼존불, 약사, 지장, 산신, 용왕
• 산세 좋고 계곡물 사시사철 흐름
• 대출 8천만원 안고 가액은 차후 결정
010-8794-1257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임 법 당
• 대구시 동구 방촌동 861–98번지
• 평수 47평
• 주택 1,2층 방 7개 , 도시가스
• 불사 관계로 급 양도, 꼭 하실분만
• 가액: 1억 5천만원
053-983-3920
010-9367-8184(보살)
010-5485-3920(스님)

아담한가옥(암자터)
• 위치: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 경관 좋은 명당 길지
• 동산 내 6부 능선, 가옥 20평
•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상가 마을이 한눈에 다 보임
• 가액: 2천 3백만원
010-2878-3380

위치좋은 사찰
• 위치 : 경북 영천
• 법당 35평, 요사 35평
• 기도실 : 퀀션식으로 4개, 부지 1800평
• 그 외연못, 조경수 좋음, 과실수
• 가액: 7억 4백만원 (시세는 9억)
• 2차선 도로 접해서 관광버스 진입가능
• 북영천 IC 5분거리
• 영천시청 5분거리, 대구 30분거리
• 포항 30분거리 ,주인 직접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7429-4445

아담한암자안내
• 위치: 울산 야음동
• 건평 130평
• 한옥3채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010-2345-5558

신 축 주 택 지
• 위치 :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
• 산 14,000평 관리 농림
• 수도, 전기, 포장도접 12평 기초공사
• 허가득, 바로 건축 가능
• 조용한곳 , 혐오시설없음
• 급양도가 6500만원
010-3288-1317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지례면
• 마을안
• 법당 11평, 요사채 24평
• 땅 130평
• 가액: 5천만원
010-2101-2522

전 통 사 찰
전통사찰로써 목조단청 수행과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과 산사 교통편리함
(공찰관계로 양도 의향)
가액 : 9억
(서울 – 안양 – 의왕)
010-5466-3321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 재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비록 백 년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리석다면 고요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단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 법구경 –

삼 보 사 찰 안 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의정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70
- 시설비 약간

- 위치 : 경산,대구
- 법당 : 30
- 요사 : 50*2동
- 대지 : 400 공양간 說法殿有
- 가액 3억 8천

- 위치 : 포항
- 대지 : 350평
- 법당 : 26평
- 요사 : 3채방5개
- 가액 1억8천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종합운동장부근
- 시설 잘되어 있는 전통형사찰
- 대웅전(90㎡), 지장전, 삼성각, 전통목조
- 토지(대+전) 5,000㎡
- 양도가액: 8억 8천만원(융자있음)

010-7347-1010
이박사공인중개사

사찰(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 호원1동
- 대지 27평
- 법당 2층 조립식 약 20평
- 요사 1층 방 3개 화장실-세탁실
- 창고 – 소각장
- 부처님6분, 신중, 칠성, 산신, 영가단
- 교통편리 – 전철 10분, 버스 2분
- 주변에 주차할 수 있음
- 양도가액: 2억

010-8900-4874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수영구 망리동 부근
- 4층 건물중 3층, 옥상 사용 가능
- 시장 2분거리
- 법당 조성 장엄, 개원 2개월 됨
- 전세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 위치가 좋음

010-7459-2977

포교원안내

- 위치: 강북세무서 뒤
- 기업은행 앞 위치 최상
- 25평 •법당, 방, 주방 겸 거실, 상담실
- 에어컨 2대, 정수기
- 살림도구 일체,몸만 오면 됨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200만원(조절가)

010-3834-5800
010-9469-368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포교원전세
- 보증금 1억 8천만원
- 법당 20평
- 요사 30평,전철출구근접
- 시설비 2000만원
- 위치 : 경기
- 부지 : 종교1100평
- 법당 : 35평외 전각2채
- 요사 : 100평
- 양도 : 17억 5천만원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3억3천

- 위치 : 경남
- 법당 : 25(목조)
- 요사 : 120(목조)
- 부지 : 920평
- 가액 : 25억

사찰임대
- 위치 : 경남
- 법당 : 17평
- 산신각외 약사전
- 요사 50평
- 임대 : 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암 자 안 내

- 울산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 법당 25평, 방 小 8, 中1, 大1
- 산신각, 연못, 분수대 있음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429-5076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75평
- 전세 500만원 월 60만원
- 공양간, 찜질방
- 3층 75평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071-371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에서 50분거리
- 경춘고속도로 경유지점
- 청평댐 상류 홍천강변
- 대지 200평, 종교부지 382평 총 582평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슬레트 구 건물 18평
- 가액: 3억 3천만원

010-2665-9978
031)732-8887

포교원안내

- 위치: 안산 상록구 이동 터미널 근방
- 대로변, 4층건물 2층
- 30평 •보증금 1000만원/70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3111-9056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고창
- 종교용지 140평, 대지 550평 기타 2766평
- 법당 20평 1동 본관, 산신각, 요사채 등
- 가액: 5억 7천만원

010-8933-9937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40평, 요사채 60평 주지실30평
- 산신, 노천불, 대형버스운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양도가액: 12억

토 굴 안 내
- 총부지 : 970평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1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 주차 40대가능
- 가액 : 5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문산 IC 근교
- 부지 410평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60평
- 사찰앞으로 강물이 흐르고 뒤는 야산으로 경관이 아주 좋음 (마을 안에 있음)
- 가액: 은행융자 6천만원 안고
- 가액: 1억 9천만원

010-4068-1533

토굴터 된장효소 할수 있는 집

- 위치 : 영천시내에서 10분 내
- 대형 차 진입가능
- 전망 좋은 곳
- 505평, 9천만원

010-3505-6505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동구 내동 1번지
- 대구 동화사 근처
- 평수 366평
- 하천부지 포함 600평
- 가액: 2억 7천만원
- 하실 분만 연락바랍니다

010-3729-4108

토 굴 안 내

- 위치: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지
- 가액: 1억 2천만원(절충가능)
- 대지 100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스님방1칸 (종무소겸)
- 비구니스님에게 적합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9183-0654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 토굴안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 대지 400평, 건평 70평 (인법당)
- 뒤에 산, 교통편리
- 전철 온천 인접
- 텃밭, 주차완비
- 가액: 5억(조정가능) 전세2억

010-6559-0913

포교원·불교대학

- 위치 : 청주시내
- 3층건물 3층, 100평, 창고
- 최고시설, 심야전기
- 법당 50평 삼존불, 나한전, 탱화
- 주방, 큰방3개, 사무실, 샤워실
- 요사채 따로 25평, 큰방 2개, 주방, 욕실, 화장실
- 전세 5000만원, 시설비 상담
- 집기류최고,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5883-225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웅촌 기와집 2동
- 대지 120평, 법당 20평
- 산신각 6평
- 주방, 공양간, 친견실, 스님방 35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10-4855-7205

신축 사찰(급)안내

- 남양주시 청학동,별내신도시 인근 (서울상계동에서 차로15분거리)
- 종교용지,전,도로 합500평
- 건평:147평(대웅전,지장전,사무동)
- 2013.5월/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됨
- 2011년 신축 (주차장 있음)
- 양도가격:18억(융자 6억포함)

010-4299-53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 경찰서 뒤
- 3층 중 1층 포교원
- 총평수 40평, 법당 약 20평
-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500만원(조절가능)
- 주차 2대 가능

010-9376-7242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신축 사찰 안내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5천여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 전세 6천만원
- 양도 : 2억 5천(대출금 1억 포함)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허가난 절터 안내

- 위치: 전남 해남군 계곡면 소재에 뒤에는 암벽 병풍산이 둘러 있고 앞에는 큰호수가 있으며 조용한 수행처로 최고의 명당터입니다
- 평수 : 임야 약 3천 2백평
- 가액 : 평당 5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바람

010-4668-73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 신흥역 지하철 1번출구 바로 앞
- 4층건물의 3층, 시설완비
- 평수 3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마원
- 시설비 500만원

010-2665-9978
031)732-8887

지리산 청학동 사찰 양도

- 위치 : 청암면 묵계리(계곡접)
- 면적: 1815평, 법당 목조 30평, 산신각 목조 7평
- 요사채 25평, 창고1동, 해우소1동
- 난방, 심야전기 및 전기판매사용
- 수도(자가 및 마을공동겸용)
- 양도가: 13억원, 최상의 명당터 동향임

010-3403-3355
인연을 기다립니다

종 교 관 련 시 설 터

- 요양시설, 수련원, 선방, 포교원 등
-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자락)
- 평수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 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곳
- 문화관련 시설 등• 가액: 15억
- 신축도 가능합니다

011-372-7744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미륵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며 아늑하고 풍광이 수려한 보궁처
- 평수 1600평
- 가액: 1억 2천만원
- 스님 직접

010-8828-1188

절 터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군 비안면 소재
- 총1200평(대지200, 전1000)
- 요사채30평(방3,거실,창고, 화장실)
- 법당은 허가득함, •콘테이너 창고 2동
- 지하수는 수질이 좋아 약수로사용함,
- 아늑한 절터로 소문
- 가액 : 3억(답사후 절충가능)

010-3540-2755
010-4811-030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주택 독채
- 대지 80평, 포교원 월세
- 집2채, 방5개, 욕실, 거실, 화장실2, 입식부엌
- 마당에 정원석등 아주 넓음
-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700만원(불상별도)

010-5630-12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서울 송파구 문정동
- 문정역에서 약 3분거리
- 법당 : 원목탁자, 닷집, 108불
- 방3, 에어컨2대, 주차장
- 보증금 2천만원 월 145만원
- 시설비 無. 몸만 오실분
-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후 방문 선택

010-9259-0108

선 ~ 정토 터 안내

-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에 위치하나 지목이 밭(과수원)임
- 산 정상까지 묘, 송전철탑 등이 전혀 없음
- 구포란형(龜抱卵形)으로 백두대간이 보이며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주차장포함), 전기, 부지 정리 완료
- 2년생 금강송 9백그루(3억 상당) 무상 양도
- 총 5,266평(평당 6만 3천원)(금/토/일 중 방문예약)

016 - 573 - 2032

포교원(급)안내

- 대구 북구 대현동
- 4층건물중 4층(총65평)
- 법당(25평) 방2, 화장실 거실, 공양간(옥상사용가)
- 삼존불, 영단, 탱화 (산신, 용왕, 신중)
- 보증금 1천만원 / 월50만원
- 시설비는 이사비용정도

010-2542-222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 남김천 대로변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건물 : 기와형 32평, 개인 등기 필
- 대지 : 도지료 연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생활 편리함
- 가액 : 6천 3백만원 시설비 2천 4백 5십만원 절충가능

010-7295-1259

전원주택 및 사찰터 안내

- 위치: 경남 합천군 합천읍 미륵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며 아늑하고 풍광이 수려한 보궁처
- 평수 1600평
- 가액: 1억 2천만원
- 스님 직접

010-8828-1188

절 터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군 비안면 소재
- 총1200평(대지200, 전1000)
- 요사채30평(방3,거실,창고, 화장실)
- 법당은 허가득함, •콘테이너 창고 2동
- 지하수는 수질이 좋아 약수로사용함,
- 아늑한 절터로 소문
- 가액 : 3억(답사후 절충가능)

010-3540-2755
010-4811-030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주택 독채
- 대지 80평, 포교원 월세
- 집2채, 방5개, 욕실, 거실, 화장실2, 입식부엌
- 마당에 정원석등 아주 넓음
-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700만원(불상별도)

010-5630-12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서울 송파구 문정동
- 문정역에서 약 3분거리
- 법당 : 원목탁자, 닷집, 108불
- 방3, 에어컨2대, 주차장
- 보증금 2천만원 월 145만원
- 시설비 無. 몸만 오실분
-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후 방문 선택

010-9259-0108

선 ~ 정토 터 안내

-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에 위치하나 지목이 밭(과수원)임
- 산 정상까지 묘, 송전철탑 등이 전혀 없음
- 구포란형(龜抱卵形)으로 백두대간이 보이며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주차장포함), 전기, 부지 정리 완료
- 2년생 금강송 9백그루(3억 상당) 무상 양도
- 총 5,266평(평당 6만 3천원)(금/토/일 중 방문예약)

016 - 573 - 203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경북 과학대학 근방
- 부지 2500평, 건물 70평
- 방6개, 폭포수 가까이 있음
- 경관 화려함
- 고사리 약 800평
- 가액: 3억 7천만원 (융자 1억 6천 포함)

011-556-550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 상가건물 4층 전체 약 42평
- 법당1, 방2, 화장실, 엘리베이터
- 보증금 1500만원, 75만원
- 최고시설 시설 A급
- 답사후 절충가능(시설비)

010-6674-13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남구 용호동
- 시장통 사거리, 위치 좋음 1층
- 법당, 삼존불, 산신, 신중, 후불탱화 다 맞춤
- 방1, 다락2개,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약 20평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15만원
- 시설비 : 500만원 (가격 답사후 절충) 시설완벽

010-4747-8796

암자(토굴)안내

- 위치: 경주시 건천읍 건천 IC 7분
- 대지 730평, 법당1동 요사채 2동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아담한 암자로 수행하기 좋은 도량
- 가액: 상담후 꼭 필요하신분께 절충가능

010-4184-363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신흥동 시내
- 평수 31평, 상가건물
- 2층 단독계단, 3층 방
- 가액: 보증금 3백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위치 최상, 시설완벽, 철학가능

010-8675-3836
스님직접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영천시 북영천 IC 부근 (절골)
- 부지 1740㎡(527평)
- 법당 : 109㎡(33평) 철근콘크리트조 단청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신, 용왕, 약사, 지장, 십대왕
- 요사채: 132 (40평) 방3, 거실1, 다용도실 2, 차고, 창고, 야외화장실
- 가액: 2억 5천만원(답사후 조절가능)

010-2544-4848

암 자 안 내

- 위치: 부산 진구 부암동 최요지
- 법당: (미타, 약사, 관음, 지장) 호신불 150 공양실 1, 스님방1, 텃밭, 소대
- 시설완벽 주변좋음, 몸만 오시면 됨
- 버스정류장 3분거리
- 100平정도(개인) 보증금 1천8백만원, 월 33만원
- 비품 시설비 절충

051)803-1580

전원토굴 . 기도처안내

- 위치 : 경북울진 불영계곡 국도변위치
- 대지 230평, 건평 73평, 2채, 황토벽돌사용시공
- 방9개, 거실, 주방, 방마다 욕실, 주방설치
- 난방 심야전기보일러난방. 시세반값가격
- 가액: 1억 7천만원(은행융자 6천만원포함)
- 전세 월세도 가능 방문시 가액절충

010-8676-1848
010-5342-476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경북 과학대학 근방
- 부지 2500평, 건물 70평
- 방6개, 폭포수 가까이 있음
- 경관 화려함
- 고사리 약 800평
- 가액: 3억 7천만원 (융자 1억 6천 포함)

011-556-550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 상가건물 4층 전체 약 42평
- 법당1, 방2, 화장실, 엘리베이터
- 보증금 1500만원, 75만원
- 최고시설 시설 A급
- 답사후 절충가능(시설비)

010-6674-13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남구 용호동
- 시장통 사거리, 위치 좋음 1층
- 법당, 삼존불, 산신, 신중, 후불탱화 다 맞춤
- 방1, 다락2개,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약 20평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15만원
- 시설비 : 500만원 (가격 답사후 절충) 시설완벽

010-4747-8796

암자(토굴)안내

- 위치: 경주시 건천읍 건천 IC 7분
- 대지 730평, 법당1동 요사채 2동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아담한 암자로 수행하기 좋은 도량
- 가액: 상담후 꼭 필요하신분께 절충가능

010-4184-3630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하이면
- 평수 : 약 78평
- 슬라브 2채, 화장실2, 방3, 현대식주방
- 모든시설완비, 2층 기초 공사 완료
- 가액: 1억 2천만원(절충가능)
- 산밑 조용함

010-3477-6638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 평수 : 72평
- 법당 : 불상, 소불, 탱화 방3, 화장실2
- 가액: 9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41)841-5772

포 교 원 안 내

- 대구시 동구 불로동
- 대지70평 •인법당(1,2층)30평
- 요사채 화장실 •주차시설 인공원주차가
- 가액 2억 5천원만

- 동구 신암동 예뿐토굴7평
- 보증금50만원 월12만원
- 시설비 600만원

010-4534-6697/010-2067-0075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4〉 '마음의 날씨' 변화와 관계 맺기

존 카밧진 (의학부 교수 · 미국)

자각은 새 세상으로 향하는 활짝 열린 통로



당신은 이미 전체 속에 있다

병원 내 MBSR 수업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수련에 임한다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때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그들이 종종 보여주는 강인함과 통찰에 영감을 받고 수련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혼자라 하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는 어디서나 이러한 영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집에서 혼자 명상을 할 때라도 당신은 바로 그 시간에 당신과 비슷한 수백만 명이 명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과 영감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은 이미 전체이지만, 또한 당신이 잘 모를 수도 있는 더 큰 전체성의 일원이기도 하다. 당신은 결코 혼자일 수가 없다. 당신은 이미 더 큰 전체 속에 있다. 당신은 인류 속에 있다. 당신은 삶 속에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순간, 이 호흡 속에 있다.

우리가 우리 경험의 본래적인 온전성을 인식하기보다 경험을 구분하고 쪼개는 분별심에 무의식적으로 사로잡힐 때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느낌과 앎의 습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우리로 하여금 자각(알아차림)의 광활함과 명료성, 일체성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이러한 마음의 검토되지 않은 습관들이다. 비록 마음챙김이 호흡과 함께 매 순간 우리의 '코 아래'있다 해도 말이다. 우리는 언제라도 마음챙김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현존에 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무시한다면, 그리고 단호하게 멈추어 바라보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마음챙김은 쉽게 사라지고 만다. 마음챙김은 이렇게나 단순한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의심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될 때 우리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다음 것을 향해 (그것이 무엇이든) 최고 속력으로 질주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거나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혹은 그 이야기가 지울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슬픔과 학대, 무시의 경험이 아로새겨진 것이라면 우리 내면의 이야기는 부적절하고 무가치한 자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미련한 자기에 관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일말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챙김이 도움을 주는 부분은 매우 단순하다. 바로 내면의 이야기란 것이 순전히 우리의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내면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허구적인 구성물이자 조립물이다. 한동안 그 이야기는 매우 멋지고 설득력 있으며 흥미로울지 모른다. 그러다 어떤 때는 아주 끔찍하게 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권태로울 정도로 그저 그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모두 우리 마음 속에서 '지어낸'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야기를 넘어선 존재

이미 알아차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의 이러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자신의 과거에서 동원하는 온갖 근거들로 인해 쉽게 강화되고 만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온갖 근거들을 언제라도 갖다 대면서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바쁘다. 그 근거는 예컨대 자신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거나 하는 등의 근거들이다. 어떤 경우든 그 근거들을 우리가 특정 순간에 혹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자신에게 이야기해왔던 것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몰입적인 이야기의 '실타래'를 더욱 엉키게 만들 뿐이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실타래는 보통 우리가 전혀 자각(알아차림)하지도 못한 채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주고받는 생각이라는 실로 엮이기 때문이다.

토론토 대학의 최근 연구 결과는 경험에 대한 서로 다른 자기 참조 기능에 대응하는 뇌의 연결망 역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서사적 초점(Narrative Focus, NF)이라는 뇌의 연결망은 우리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이야기를 지어낼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다. 이때 우리는 종종 반추(되새김)나 걱정을 동반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한편 경험적 초점(Experiential Focus, EF)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연결망은 우리가 현재 순간의 경험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활성화된다. 이때 우리는 이야기 연결망이 내리는 평가가 없이, 몸 안에, 다시 말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감각 체험 안에 온전히 존재하게 된다. 이 연구는 MBSR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경험적 초점 연결망의 활동성이 증가하며 이야기 초점 연결망의 활동성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마음챙김 훈련이 뇌가 경험을 처리하는 방식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마음 챙김 훈련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자신의 삶을 경험하는 방식에, 그리고 그에 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경험적 초점이 서사적 초점보다 우월한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통합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서사적 초점이 지배적일 때 (특히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 그것은 자신과 우리에게 가능한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상당히 제한시킬 수 있다. 서사적 초점은 우리의 일반적인 기본 설정 모드라고 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서사적 연결망은 때로 '기본 연결망(default network)'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가장 활성화되는 대뇌피질의 영역이 바로 서사적 연결망이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우리가 섣불리 평가와 판단을 내리지 않고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마음챙김으로 자신의 몸 체험에 온전히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의 기본 설정은 경험적 초점으로 더 많이 이동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이 현재 경험 속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별심은 자각 방해…섣불리 판단말고
현재순간 온전히 경험하는 연습해야

내면의 렌즈로 자신의 안녕점검 · 탐색
타인위한 연민 · 자애를 자각의 장에 초대

지금 일어나는 현상 알아차리기

마음챙김 명상의 초심자들은 자신이 명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마음챙김 명상에서 마땅히 체험해야 할 바를 체험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

"내가 마음챙김 명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가장 짧은 답변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관계없이 당신은 마음챙김 명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당신이 그것을 싫어한다 해도 또는 그다지 '명상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금 당신의 경험은 완벽하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재 순간이라는 교과과정이다.

판단하지 않음은 지성 · 친절의 행위

이제는 특정한 낭만적인 '영적' 이상에 부응하면서 살지 못하는 자신을 혼내거나 폄하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인지 모른다. 그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단지 알아차리는 것은 어떨까? 공식적인 명상을 하는 동안 호흡을 망각하고 '명상을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생각할 때라도 '망쳤다'고 판단하는 당신의 생각 자체를 알아차려보는 것은 어떨까? 그 생각 역시 하나의 판단이며 또 하나의 내면의 주석에 불과하다. 실제로 당신이 '망쳐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잘못된 부분은 없다. 그것은 선택한 대상에 주의를 지속적으로 기울이지 않고 있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마음이 만들어낸 판단일 뿐이다. 아마도 이런 일은 앞으로도 수백만 번, 수십 억 번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없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마음이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이런저런 일에 푹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는 적어도 잠시 동안 자각(알아차림) 속에 머물 수 있다. 또 이처럼 반복적으로 자각(알아차림)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선택의 기회는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있다. 우리는 과도한 단순화와 이분법적 사고, 흑백논리,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생각과 판단에 빠지지 않으면서 우리 앞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분별력(discernment)이라고 한다. 판단을 유보한 채 판단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우둔한 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성적인 행위이다. 그것은 또한 자신에 대한 친절의 행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토록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며 비난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앎의 체현

우리가 엄청난 스트레스에 짓눌릴 때, 정말로 모든 것이 엉망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앎을 체현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불안과 권태, 참을성 없음, 성마름, 슬픔, 절망, 분노, 시기심, 탐욕, 고양, 자존감 또는 자존감 결여, 혹은 주변 환경으로 인해 언제라도 곤두박질치고 마는 수많은 정서적 반응에 압도당할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러한 마음속의 미풍(때로는 폭풍)은 그 순간 우리 자신의 본성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마음의 날씨 변화, 몰려드는 먹구름, 때로 우리마음을 좌우해버리는 마음의 난기류 등 지금 우리의 자각의 장(場)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상과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종종 소홀히 대하는 자신의 이러한 측면을 탐구하는 끝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소위 '긍정적 정서'라는 것과의 더 큰 친밀감을 함양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런데 긍정적 정서란 사람이 가진 다양한 정서 목록의 일부로서, 그것이 반드시 유쾌한 상황과 관련된 느낌을 말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는 자신이 안녕한지, 즉 잘 존재하고 있는지, 심오한 번영감을 경험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다. 또 우리 삶의 완전한 드러남 속에서 기쁨과 환희, 공감과 만족이라는 정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색해볼 수도 있다.

우리는 마음속의 폭풍과 구름이 없는 순간에 그곳을 스쳐 지나가는 기쁨의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어쩌면 기쁨과 안녕이 이미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거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면의 렌즈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인지 모른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마음챙김이 손짓하는 부드러운 받아들임의 태도를 통해 이러한 내면의 능력과 인격을 계발하고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수행할 때 우리는 정말로 힘겨운 순간에도 이러한 내면의 능력과 인격을 점차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타인을 위해 기쁨을 느끼는 것

기쁨, 안녕감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위한 연민과 자애의 마음도 우리 가슴과 마음의 고유한 흐름으로서 이미 여기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어쩌면 단지 이제까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주의를 받지 못했으며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끝없이 쏟아지는 일에 사로잡힌 혼란스러운 마음, 그 무성한 수풀에 가려져 있었던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주의 깊에 찾아보면 우리는 타인을 향한 연민과 자애의 마음을 (우리 자신을 향한 연민과 자애의 마음과 함께)실제로 인식할 수 있으며 그것을 자각(알아차림)의 장으로 초대할 수도 있다. 가장 어려운 작업은 연민을 받을 가치가 있는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잘 믿기 어렵겠지만 이러한 마음의 성질 모두 우리 내면에 거주하는 친숙한 주민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거나 제대로 살펴보지 않지만, 만약 하나의 실험으로서 열린 가슴으로, 그리고 실재를 탐구하는 태도로 자신의 경험에 접근한다면 그러한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때 자각(알아차림)은 우리의 정서적 삶의 전 영역과 관련해 존재의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활짝 열린 통로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가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이 말이다.

이글은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존 카밧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천개 문장 외우기 보다 행해야 도 얻어"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24)

게송 하나밖에 모르는 반특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반특이라고 하는 비구 하나가 새로 출가했으나 품성이 미련했다. 부처님께서는 5백의 아라한으로 하여금 날마다 그를 가르치게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게송 하나도 알지 못했다. 나라 안의 모든 사부대중 중에 그의 미련함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엾이 여기시어 그를 불러 게송 하나를 일러 주셨다.

"입을 지키고 뜻을 껴안으며 몸으로 범하지 마라. 이렇게 수행하는 이라야 세간을 넘어설 수 있다."

반특은 부처님의 인자한 은혜를 느꼈고 기쁜 마음이 열리어 한 번에 게송을 읊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이 다 늙어서 이제야 비로소 게송 하나를 외웠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것이므로 기특하게 여길 거리가 못 된다. 이제 너를 위하여 그 뜻을 해설해 주겠다. 첫째 몸으로 짓는 세 가지와 입으로 짓는 네 가지와 뜻으로 짓는 세 가지로 연유하는 것이니, 그것이 일어나는 바를 보고 그것이 사라지는 바를 살펴야 한다. 삼계와 5도(道)가 바퀴 돌듯 쉼이 없으니, 그로 말미암아 도를 얻어서 열반이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

그를 위하여 한량없는 미묘한 법을 따로따로 나누어 따져 말씀해 주시자, 마음이 탁 트이면서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이때 5백 명의 비구니는 따로 정사에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비구를 보내어 너희들을 위하여 경법을 말하게 하리라. 내일은 반특의 법문이 있을 것이다."

여러 비구니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미리 웃음을 띠면서 말했다.

"내일 오면 우리들이 미리 그 게송을 말하여 그가 부끄러워서 한 마디 말도 못하게 하자."다음날 반특이 가자 비구니들은 모두 나와서 예를 갖추고 서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웃었다. 반특은 이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스스로를 낮추며 말했다.

"박덕하고 재주 없어서 아직도 도를 얻지 못했습니다. 완악하고 무딘 면에만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 배운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게송만을 알고 대략 그의 뜻을 알 뿐입니다.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그 게송을 읊어보겠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들어 주십시오."

이때 여러 젊은 비구니들이 미리 게송을 읊으려 했으나 입이 열리지 않았다. 비구니들은 놀라고 드려워하면서 자신들을 책망하며 머리 조아려 허물을 뉘우쳤다.

반특은 이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몸과 뜻으로 말미암아 연유하는 바와 죄와 복의 안팎과 하늘에 오르고 도를 얻음과 정신을 엄하게 단속하여 생각을 끊고 정(定)에 드는 법들을 낱낱이 분별해 주었다. 그러자 바로 그 자리에서 비구니들은 그의 설법을 듣고 그의 신이함에 놀라며 모두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뒷날 국왕 바사닉이 부처님과 스님들을 정전의 모임에 청했다. 부처님께서는 반특의 위신을 나타나게 하려고 발우를 주시면서 뒤를 따라가게 했는데 문지기가 그를 알아보고 막으며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당신은 사문이면서도 게송 하나도 확실히 모르지 않소? 무엇 하려고 청을 받아 온 것이오? 속인인 나도 오히려 게송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사문인 당신이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당신에게는 보시를 하여도 아무 이익이 없을 것이니 문 안에 들일 수 없소."

그래서 반특은 문 밖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전각 위에 앉으셨고 물을 돌리기를 마치자, 반특은 발우 가진 팔을 펴서 멀리서 부처님께 드렸다. 왕과 신하들, 그리고 부인과 태자, 그리고 사부대중들은 팔이 들어온 것은 보이는데 그 형상은 보이지 않으므로 괴이하게 여기면서 부처님께 물었다.

"이는 어떤 사람의 팔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현자 반특 비구의 팔이다."

왕은 말했다.

"도를 얻었습니까?"

"아까 내가 발우를 가지고 따라오게 하였더니, 문지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팔을 뻗어 나에게 발우를 준 것뿐입니다."

바로 반특을 청하여 들어오게 하고 왕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듣건대 존자 반특은 본 성품이 우둔하여 이제야 겨우 게송 하나를 알았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연으로 도를 얻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배움이란 반드시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요.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현자 반특은 한 게송의 이치만을 알지만, 그 정밀한 이치에 정신을 몰입하고, 몸과 입과 뜻을 고요히 하여 마치 천금같이 했습니다. 사람이 비록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한갓 의식과 생각만을 잃을 뿐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삽화 · 강병호

그리고 세존께서는 이내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비록 천개의 문장을 외운다 하더라도 / 글귀의 이치가 바르지 않으면 / 하나의 요지(要旨)보다 못한 것이니 / 듣고서 생각을 없애야 된다. // 비록 천 마디 말을 외운다 하더라도 / 이치를 모르면 무슨 이익이 되랴. / 하나의 이치보다도 못한 것이니 / 듣고 행하여야 제도될 수 있다. // 비록 경전을 많이 외운다 하더라도 /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이익이 되랴. / 하나의 법 글귀라도 이해해서 / 행하여만 도를 얻을 수 있다."

이 게송을 같이 들은 2백 명의 비구들은 아라한의 도를 얻었고, 왕과 여러 신하, 그리고 부임과 태자들은 기뻐했다. (〈법구경〉 제1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㉔



칭찬이 칭찬 불러

며느리 자랑대회

도반들의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사람이 자기 며느리 자랑을 했다. 듣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자기 며느리 자랑을 했다. 이야기 속에 함께 있다 보니 나 역시도 내 며느리 자랑을 하게 됐다. 나중엔 도반 모두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서로 며느리 자랑을 하게 됐다.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이야기는 며느리들이 모두 훌륭하다는 얘기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칭찬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도반들은 며느리와 사이가 좋은 것 같아서 신기하고 흐뭇했다.

우리 도반들이 조금 특별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도 고부간이 예전처럼 힘든 사이기만 하다는 인식은 많이 사라진 시대라고 생각한다. 사회구조도 그렇고, 개개인의 인식도 많이 변해서 고부간의 갈등 수위나 형태가 많이 완화되고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우리 절 신도님 중에 윤 보살님은 아들만 다섯을 두었는데, 틈만 나면 아들 며느리 자랑으로 입에 침이 마르질 않는다.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으니 사돈

고부갈등… 옛날 말
말한마디로 행복해질 수 있어

끼리도 사이가 좋을 수 밖에 없다. 사돈하고 함께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 윤 보살님을 안 지가 아주 오래 되었지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며느리 칭찬을 하시며, 며느리 생일날에는 며느리를 위해 기도도 올리고 불공도 올리며 축원한다.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다. 참으로 부러운 가족이며 모범적인 가정이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도 화목한 가정에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며 할머니를 무척 따르는 것 같다.

또 다른 보살은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안과의사이고, 하나는 변호사다. 이분도 앉으나 서나 며느리 자랑이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길을 걸을 때도 꼭 팔짱을 끼고 웃으며 이야기 하며 다정한 모습으로 나들이를 한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고 시어머니는 그 돈을 며느리 이름으로 절에 보시 한다. 평소 며느리는 시댁에 자주 들러 이것저것 살펴드리고 보태드리고 하는 것 같았고, 시어머니 역시 그랬다. 서로가 먼저 사랑을 주려고 하니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지 않느냐며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 자랑하기 바쁘다.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흔히들 잘난 아들은 며느리의 남편이고 못난 아들은 자기 아들이란 말이 있지만, 시어머니들이 기꺼이 며느리를 칭찬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잘 할 수 있는 것은 각자 오랜 세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나도 며느리 자랑이 하고 싶어 한마디 했다. 험담도 그렇지만 칭찬도 하려고 드니 이것저것 생각지도 않던 것들이 생각났고, 말이 쉬 끝나지 않았다. 서로 며느리 자랑으로 한참을 이야기 하다 보니 서로 자기 며느리가 최고라고 편을 들고 있었다. 그러다 서로의 모습을 보고는 크게 웃었던 기억이다. 가족에 대한 소중함은 바로 이런 것일까. 시중에 떠도는 좋지 못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유행어는 누가 잘못 퍼뜨린 루머라고 생각이 들 정도이다. 어둠을 뚫고 나오는 아침 햇살처럼 우리 모두의 집집마다 아름답고 행복한 웃음이 전염되길 축원해 본다. 며느님들을 사랑하는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행복한 성토를 하고 있으니 며느님들도 함께 행복하길 빌면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도반의 법문

"좋은 말을 하면 입이 예뻐지고
좋은 것을 보면 눈이 예뻐지고
좋은 행동을 하면 몸이 예뻐진다."

아침에 도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다. 기분 좋은 문자 메시지였다.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말 한 마디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수도 있고, 말 한 마디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작은 칭찬 하나가 실의 빠진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거친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부르기도 한다.

아름다운 꽃이나 예술 작품을 보면 마음도 맑아지고 여유로워지지만, 나쁜 행동을 보거나 불행한 일들을 보면 기분이 좋지 못하다. 남의 나쁜 행동을 보게 되면 내 행동에 신경을 쓰게 되고, 남의 좋은 모습으로 보면 내 마음 속에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 행복해진다.

모두 알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평소에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아침 일찍부터 날아온 문자메시지는 법문이었다. 거창한 법석 위에서만 법문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점점 자기 안에 갇혀 사는 시대다. 서로의 모습을 살피고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 도반이 보내준 세 줄의 문자메시지는 내 안에 갇혀 사는 나를 꺼내주었다. 문자메시지를 되새기며 생각했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 적이 있을까? 누군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 행복해 한 적이 있을까?" 또 나의 말 한 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없을까? 오늘 6월 1일의 새 달을 만나 결제하는 마음으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일을 생각하고 행동 할 것을 또 한 번 다짐 해 본다. 아무도 몰라도 나만이라도 나를 인정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부산 연꽃모임회장

초절전형 슈퍼에너텍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대환영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5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3,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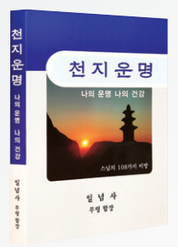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천지운명

불자 여러분들에 건강과 운명이 수록 되어 있는 책 !
부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 주는 책 !



서산대사께서 입적하기 직전 읊은 시
나의 운명 나의 건강. 108가지 민간요법
108가지 약초 담그는 법
108가지 꽃 효소 만드는 법
치유와 깨달음의 미학, 달마도

무령지음 | 신국대판 | 474페이지 | 정가 50,000원

이 책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졌고, 첫 페이지에는 서산대사께서 입적하시기 직전에 "읊은 시"와 "권효가"가 들어있으며 우리들의 운명과 건강이 자세하게 설명 되어있습니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 즉, 효소 담그는 방법, 여러 가지 약재를 만드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운명"은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볼 수 있게끔 띠별로 각각 수록되어 있어, 모두 둘러 앉아 서로가 서로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정말 신비로운 책입니다.

스님의 108가지 비방 소승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약초 쓰는법" "약초 담그는 법"을 12년 동안 중국을 오가며, 연구하여 정성으로 불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시는 각 사찰 스님들께는 30%로 할인을 해드리면서, 꼭 스님분들이 알아야하는 비방법을 써서 전국 사찰 스님께 소정에 값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꼭 스님 분들만 알고 계셔야 불자님들이 답답하고 힘들때, 묘방으로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책으로서 다음 회에 드리려고 합니다. 전화번호와 사찰명을 잘 알아 두었다가 꼭 주문하세요. 각 사찰 스님분들께서는 이 책을 잘 읽어 보시고 불자들에게 많은 포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24-119번지
대선불교조계종 일념사 무령 합장
전화 032)655-1356 / 팩스 032)664-1356 / H P 010-6674-1356
입금계좌 : 170972-51-038226 농협 110-113-445631 신한



대행 스님

자기 주처가 완전히 섰다면 마음 빼앗길 일 없어

질문자1(외국인 여): 만약 어떤 다른 사람이요, 자기에 대해서 나쁜 생각과 나쁜 에너지를 계속 내뿜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생각이 계속되니까 몸도 좀 아프고 그런 영향을 계속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큰스님: 그거는 모두 사람의 사량이에요. 사량에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체가 없는 내 마음은 이 허공과 같아서, 즉 말하자면 그쪽에서 마음내는 것도 영이고 내 마음 가진 것도 영이에요. 영에다 영을 넣으면 몇이 되나요? 수많은 영을 영에다 집어넣어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없애는 방법이에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한 번 더 하는데, 마음은 체가 없어서 어떠한 말을 했든지 어떠한 에너지는 뺏어 가더라도, 정신력은 뺏어 가더라도 그건 못 뺏어 가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 자기의 주처가 완전히 섰다면 절대로 뺏어 가고 뺏어 올 수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음이 이런 물질이라면 되는데 물질이 아니고 형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모든 거를 그 형상이 없는 나한테, 공에다가, 즉 말하자면 공심에다가 모든 거를 놓고 '너만이 그렇게 안 하게 할 수 있어. 그 사람도 그렇게 안 하게 할 수 있어.' 한다면 그게 그대로 무효가 돼 버려요. 그건 자기가 생각에 그렇게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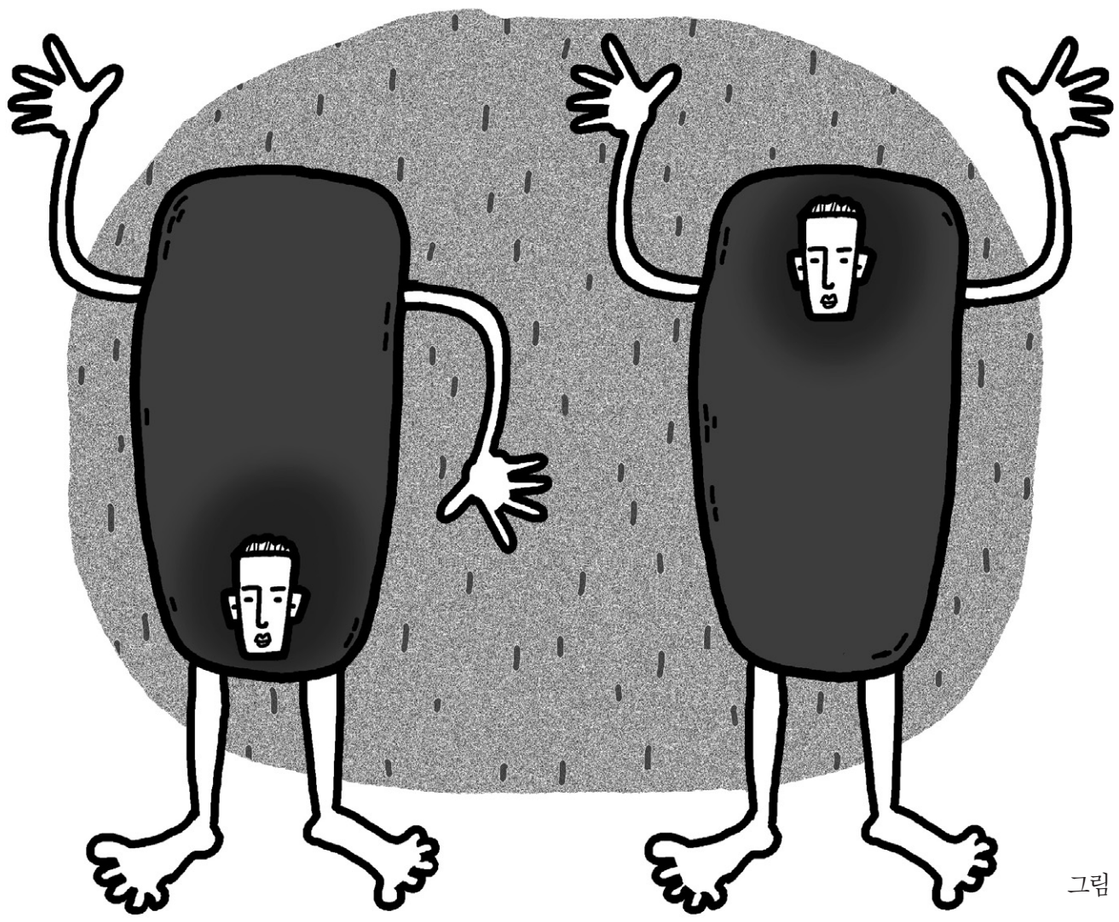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2(여): 스님께서 심성과학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마음에서 다 창조를 하나요?

큰스님: 그렇죠. 마음이 떠나고는 절대 이거는 허용되지 못하니까요. 이 마음으로 인해서 보는 것도 보고, 동시에 보고 듣고 말하고 몸을 움죽거리고 이러죠. 근데 그 마음이 말입니다, 자유스럽게 살라고 그 많은 말들을, 그 많은 생각들을 다 자유롭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생각지 못하고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마음 빼놓고 뭐 있을까요? 허허허.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세계, 지금 우리가 사는 데 중세계, 하세계 이렇게 삼 세계가 같이 돌아가고 있죠.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높아지고 차원이 얕아지고 차원이 아주 저 밑으로 떨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모습도 그렇게 나오죠,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도 각자 자유권을 얻기 위해서 누가 그거를 말해 주기 이전에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죠? 누가 대신 잠을 자 주고, 누가 대신 먹어 주고, 누가 대신 똥을 눠 주고, 누가 아파 주고, 누가 죽어 주고, 누가 깨닫게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얘기했죠? 그건 자기 차원에 따라서 입력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내가 산다. 내가 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먹었다.' 이렇게 말씀들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몸뚱이 속에도 생명체들이 잔뜩 들어 있는데 어떻게 물을 먹었는데 내가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더불어 같이 먹었죠.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체들은 나에게 또 작용을 해 줘요. 그러니까 항상 더불어 에누리가 없어요. '내가 주면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건전하게, 즉 말하자면 둥글게 좀 밝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대로 입력이 된 거니까 그대로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난 이거 할 수 없다. 나는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요거는 할 수 있는데 요거는 할 수 없다.' 이런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못하죠. 여러분한테 자유스럽게, 마음도 말도 생각도 자유스럽게 줬는데도, 고등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쓰라고 했는데도 자유스럽게 쓸 수가 없죠, 여러분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몸이 움죽거리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요, 내 이 정신계의 보이지 않는 자기는 무한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 '진짜 너만이 이 몸을 푸르게 살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어 줄 수도 있고, 너만이 해결사가 돼 줄 수 있고, 아프면 의사도 돼 줄 수 있다.' 하는 거를 오직, 자기 이 몸이 싹이라면 자기 뿌리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을 편히 앉게 하기 위해서 걸상을 놔야 되는 건데 처음이 돼서…. 요다음에는 다리 안 아프시게 걸상을 갖다 놓겠어요. 하하하.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말을 하고 또 그게 맞고 그게 진리고 그게 사람 사는 본의라면 모두가 좋아요. 모두가 좋은 거예요. 인간하고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새하고도 말을 할 수 있고, 꽃하고도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소를 건지는 데는 내가 소가 돼야, 내가 소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소를 건질 수 있다고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소로 태어났으니까 소의 고기는 사람들이 먹어서 약으로 쓰고, 소의 영혼은 건져서 인간으로 형성시킨다.' 이거죠. 갖은 각색으로 천차만별의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고 한꺼번에 알 수는 없으니까 차차 아시도록 하고요,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질문자3(외국인 여): 스님, 조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큰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해 오던 게 모두 자기 몸 안에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리고 물 하나 마실 때도 같이 먹고요. 자기 조상하고도 같이 마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기 조상님들이 자기하고 언제든지 같이 하나요?

큰스님: 그건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이 조상이 모습만 없어졌다 뿐이지 영혼은 하여튼 있으니까요. 그 영혼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또 재생이 되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 밥 먹을 때에 조상뿐만 아니라 친절한 친구도 같이 공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공식! 그래서 공생, 공심 또는 공체, 공용, 공식입니다. 그래서 천당과 지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살고 있는 이 자리에 모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조상들이 돌아가시면, 자손들을 기르고 그러시는데 참 그 은혜와 도덕, 의리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흰 꽃 한 송이 와, 우주떡 하나, 이거는 케이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초, 향 그렇게 놓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올리는 거죠. 우리 부모가 그렇게 낳고 길러서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살게끔 해 준 은혜를 우리 자식들한테도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식들도 그걸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나 가톨릭교라고 해서 그 부모를 무시하고 그런다면 자기부터 무시가 되는 거니까요. 진리라는 건 끊어지지 않고 항상 돌아가는 것이 진리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생각을 잘해라. 말을 아무렇게나 그냥 해서 남을 섭섭하게 하지 말라. 한 가정에도 그래요. 자식들이 나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한 철 사는데 좀 웃으면서 자유스럽게 사세요

☞ 29면에서 계속

가서 안 들어온다거나 그냥 마음대로 속을 썩인다거나 이래도 욕을 하고 때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에서 고장난 거지 말로다가 하고 때리고 그런다고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고장난 건 마음으로 고쳐야 된다. 속담에 '이열치열' 이란 말이 있어요. 미국에도 그런 말이 있는진 몰라도요.

그래서 천 리를 나가 있어도, 만 리를 나가 있어도 마음을 끌어오면 육체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 도리를 완전히 알면 모든 걸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단어가 무슨 계급이 높고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미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아니 되는 게 없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싹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거를 대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도리를 모르면 나를 죽이겠다고 어떠한 방망이가 보이지 않는 데서 들어온대도 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언제나 정신계와 물질계가 동시에 돌아간다는 그 뜻을 아셔야 한다 이 소리죠.

만약에 지금요, 컴퓨터를 사용하고 전화를 사용하고 모든 거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세상에 전기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통신을 하고 어떻게 컴퓨터를 해서 남한테 알리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정신계의 통신처, 그 통신처가 바로 자기 주처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가 자기를, 자기가 알아서 자기 몸을 대치하고 배워서 나가는 데에 여념이 없어야 하고 또 그 가운덴 가정과 더불어 해야 하고, 그 다음엔 이 사회에 살아나가는 데에 더불어 해야 하고, 차차 그게 차원이 높아지면 배워지는 거죠.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다, 둘만 있다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많아서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죠,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어떠한 용도를 우리가 실행한다 하더라도 걸림이 없는 자체죠. 사람은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나쁘고 좋은 거를 미리, 이미 알고 있고, 너무 이렇게 해선 나쁜 일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살아나가는 데 어떤 거는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라는 이름이지 여러분이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의 이름이 종교예요, 그냥. 여러분이 다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성당이나 또는 부처님 법의 법당이나 이런 거는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계시다. 그런데 그 부처님의 모습과 우리들 모습이 둘이 아니다. 생명도 둘이 아니다. 마음도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높이 보지도 말고, 더 내려다보지도 말고 평등하게 너와 같이만 생각해라. 그러면 너무 친밀하죠. 자기가 자기 죽일 수는 없고, 자기가 자기 나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모든 게 평화롭고 즐겁고 자유롭죠.

이게 과거로부터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이것이 바로 자기가 산 대로니까 현실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업보성이나 유전성인과성 세균성 영계성, 이것이 모두 여기 입력이 돼서 있어요. 입력이 돼서 있는 거는 이 몸속에 있는 모습, 의식, 생명 이것들이 다 때에 따라서 어느 때에 내가 한 대로 때를 맞춰서 나오는 거죠. 안 그런 사람은 안 나오는 거고 그런 사람은, 입력이 된 사람은 그렇게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누리가 없어요, 자기가 한 대로니까.

나는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나도 가톨릭교에 예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요,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를 하러 들어가서 고해 성사를 하다가 말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신부님한테 갔다가 떠맡기면 그 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죄는 없어질 수가 없죠. 그때부터 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나는 내 길을 걸은 거죠. 사람이 이 도리를 모두 각자 알면 귀신이 수만 명이 닥친다 하더라도 겁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 마음이나 산 사람 마음이나 똑같아요. 악하게 했으면 악하게 들이덤비고 선하게 하면 선하게 하고, 오히려 도와주고. 그런데 이 공부는요, 이 마음이 체가 없기 때문에 '공' 이에요, 공. '주인공' 이 주처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체가 없는 영을 수만 명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 거죠. 나만 여직 말했잖아?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 모습과 우리들 모습이 둘이 아니다.
생명도 둘이 아니다. 마음도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높이 보지도 말고 내려다보지도 말고
평등하게 너와 같이만 생각해라.
그러면 자기가 자기 죽일 수 없고 자기가 자기 나쁘게 할 수 없으니
모든 게 평화롭고 즐겁고 자유롭다.

질문자4(외국인 남): 가톨릭 교회에서 꽤 윗사람이 미국 정부에다가 제안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제 제일 세졌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전 세계의 모든, 미국까지 포함을 해서요, 핵무기를 전부 다 없애자는 제안을 했다 합니다. 그럼 불교나 불자들도, 스님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고 있으신지요?

큰스님: 동의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질문자4(외국인 남): 만약에 그 핵무기를 없애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조직이 있어서 조직에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큰스님: 그거는 조직을 해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정신계, 이 마음들이 항상 바깥으로 주님을 찾지 않고 바깥으로 부처님을 찾지 않고 내 안에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모든…. 이 불법에서는 관(觀)이라고 합니다. 관법을 실천한다면 모든 건, '해 주시오.' 가 아닙니다. '너만이 할 수 있다.' 죠.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한다면…. 전 세계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만약에 이 주인공 자체가 원자라면 여기에서 그 한생각이 입자로 화해서 모든 거를 조절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 사람마다 동의하게 만들거든.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지금 우리 한국에도 IMF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어디 한국만 그렇겠습니까? 돌아가면서 딴 나라도 그럴 수 있고, 장담을 못하죠. 그런데 가만히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말씀한 거, 이 부처님이 말씀한 거 이것을 지금 죄 틀리게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내가 못났든지 잘났든지,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 먼저, 주처가 나에게 있는 거지 어떻게 나 빼놓고 주님이 있어요? 나 빼놓고 부처님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모두 자기와 같이 생각하는 줄 알고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마구니와 같으니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편집하는 사람들이 좀 지혜가 있으면 '아, 저 예수님 모습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둘 아니게 이렇게 믿어라 하는 건데…. 나는 어떤 분이든지, 어떤 미생물이든지 어떤 돌이든지, 어떤 나무를 막론해 놓고 나와 같이 생각하지 딴 거라고, 딴 생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생명은 다 똑같으니까요. 개미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과 같으니까요.

그럼 질문하실 분 또 하세요.

질문자5(외국인 남): 우리가 어떻게 그 높은 경지, 자기의 본성을 아는 경지까지 갈 수 있는지요? 마음을 다 비우고 갈 수 있는지 물어보고요, 그리고 참나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큰스님: 어떻게 다 비우고 거기 경지까지 가느냐고요? 허허허. 우리는요, 지금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져요. 그냥 짊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죠? 차를 타고 가도 가는 대로 없어지고 또 가지 않은 데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이 보죠? 듣는 것도 고정된 게 없이 듣죠? 만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움죽거리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모두가 고정된 게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나툴 뿐이에요, 이렇게. 넘어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했어요. 그러니까 초월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영화하는 데 탤런트들과 같은 거예요. 탤런트가 죽는 역할을 할 때에 영화를 찍는다 이러고 하니까 그 죽는 역할을 하지, 만약에 그냥 죽는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그 탤런트 안 하죠. 죽는 역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게 그대로 끝없이 그냥 찰나찰나, 우리가 걸음 걷듯이 찰나찰나 화해서 그냥 돌아갈 뿐이에요, 지구가 그냥 초월해서 돌아가듯이.

질문자6(남): 그러면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 하고 있는 자체를 그대로 보고 있으면 우리는 말씀하시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 많이 벗어났나요?

큰스님: 이렇게….

질문자6(남): 벗어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걸 감상한다고 할까요? 검토하고 그럼으로써 자연적으로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건가요?

큰스님: 우리가요, 차를 타고 갈 때, 예를 들어서 걸음을 걸을 때도 걷지 않으면 된다 하고 걷지 않으면 되는 거고,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가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죠, 자기가 운전기사니까, 살아나가는 데에. 인간은 모두 자기가 살아나가는 데 선장, 배 타는 데 선장 있죠? 선장과 같은 거죠.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아리송하고요. 하하하. 그런데 지금 살아나가는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살아나가는 자체가 그러해요. 인간이 한 철 살다가 또 모습을 바꿀 건데, 탤런트와 같은 건데 이왕 탤런트의 역할을 한 철 하려면 좀 찌푸리지 않고 웃고 살 수 있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 배우는 사람들이요, 그래도 한국에선 이렇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네들은 누구한테 묻고 자시고 안 그래요. 그 도리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나니까 그냥 뛰어넘어요, 그냥.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그냥 밀고 나가요. 그걸 왜 믿느냐 하면요, 보이지 않는 데 자기가 자기를 응하고 이끌어 나가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믿고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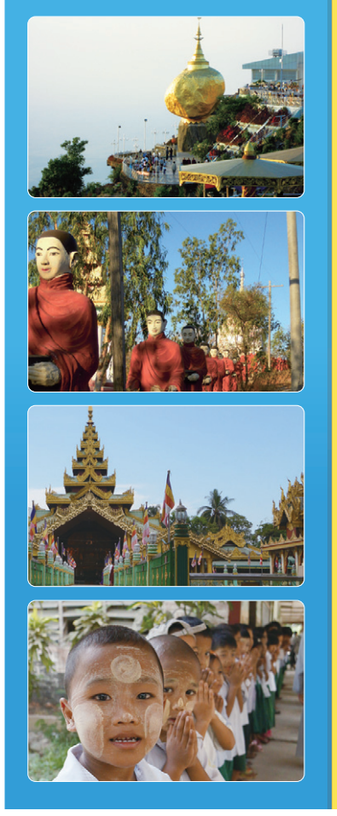
그래서 이렇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 과거 자기와 현재 자기가 알게 돼 있어요. 불가에서는 그거를 견성이라고 하고, 또 기독교나 그런 데서는 성령을 입었다고 하죠. 허허허. 그런데 그것이 타의에서 믿으면 타의의 영계가 들어와서 내가 그 성령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건 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 되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리송합니까, 그래도? 아이 그래, 아리송할 거예요.

질문자6(남): 지금 관하는 법을 더 배우고 싶고요, 참자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자기가 지금 더 알고 싶으면 지금 말하는 거 움죽거리는 거, 자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자기가 있고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다고 그랬죠. 얼른 쉽게 말해서 자동차 바퀴가 있으면요, 그 가운데 심봉을 딱 끼워 놓은 것과 같은 거죠. 심봉은 정신계고, 바퀴는 지금 현실 몸과 같은 거고. 그런데 그것이 힘을 배출해 주고 이 바퀴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퀴가 작용을 하는데 왜 자기가 어디 있느냐고 합니까? 그래서 이게 말로 해서, 말로 배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차와 운전수를 진짜로 믿어요. 자기 차는 자기 운전수를 진짜로 믿어야 돼요.

※위 법문은 1998년 6월 19일 국외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에스쿳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아시아나항공(OZ) 수요일 출발!!
마하연 추천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품격	99만원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품격	139만원

■ 대한항공 / 아시아나 항공 미얀마 직항 성지순례

– 황금바위 짜익티오 미얀마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몽유와 / 만달레이 / 헤호	7일	요금문의
(110미터 와불과 38층높이 입불이 모셔진 몽유와 일정)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부산 출발 성지순례

• 양곤 (베트남항공, 타이항공 출발)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태국	5일	요금문의
•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4일	요금문의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마하연 추천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19만원
• 대만	5일	11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주) 마하연 투어 ☎ 02)365-7747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전문가이드동행 • 여행자보험가입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불자 세상보기

우리는 선우 6월 토요법석
세계 지성이 불교에 매료된 까닭

조성택 고려대 교수(우리는선우 이사장)는 6월 1일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서 열린 우리는 선우 6월 토요법석에서 '세계 지성인들이 불교에 매료된 까닭'을 주제로 강연했다. 조 교수는 이날 서양인이 불교에 매료된 까닭을 문명사적 배경과 인도의 종교문화와 붓다 출현의 의의를 들어 설명하고, 현대 한국불교가 극복해야할 장애물 네 가지를 강조했다. 〈편집자주〉



"깨달음·과거 집착 등…한국불교 발전 막아"

조성택
고려대 교수

불교, 깨달음 실천하는 종교

한국불교를 대승불교라 한다. 그러나 과연 조계종이 대승불교인지 궁금하다. 〈금강경〉에서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應無所住 以生其心]고 했지만 한국불교는 그렇지 못하다.

현재 한국불교에 걸려있는 장애물 네 가지가 있다. 첫째가 깨달음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있다. 많은 불교 개론서, 포교원에서 나오는 불교입문서를 보면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라 돼 있다. 누구든 불교를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라 생각하듯 우리에게 그만큼 일상화 돼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불교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종교다.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깨달음이 저 멀리 있는데 좇아가고, 바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이다. 깨달음을 실천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음의 실천은 팔정도의 삶에 있다. 팔정도는 부처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지만 부처가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선원에 30~40년 앉아 있다고 불교가 아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따로 골방에 앉아서 하기보다 지금 여기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깨달음만이 불교의 목적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프로야구 보듯 깨달음 관전하는 재가자들

재가자들은 깨달음 자체에 대해 굉장히 냉소적이면서 스스로를 '머리 깎은 스님들도 30~40년 있으면서 못깨닫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음을 서로 관전평한다. 우리 스님이 더 깨달았다, 너희 스님은 덜 깨달았다…. 프로야구 보는 것과 같다. 이것이 스님들에게 엄청난 부담이다. 그러니 스님들은 알쏭달쏭한 법문을 하게 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된다. 언어라는 것은 소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스님들은 중얼중얼 하다가 "~알았느냐."하는데 우리는 무슨 소린지 모른다.

故노무현 대통령 49재때 여러 종교단체에서 집전을 했다. 종교가 어떻게 사회적 메시지를 주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다른 종교들은 명확하게 자기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불교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다 "~니라"하는 것이 전부였다.

한국불교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신비화 시켜놓든지, 엄청 높은 곳에 올려놓고 재가자는 쳐다만 보고 좇아가게 해놓고 스님이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 재가자들은 관중이 돼 버린다. 불교에는 성직자란 말이 없다. 모두가 수행자다.

석굴암·원효 대사만 불교인가

두 번째 장애물은 불교에 대한 자랑이 전부 과거만을 말하는 것이다. 석굴암의 위대함, 원효 스님 사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현재를 갖고 이야기 하는 불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불교는 우리 스스로 불성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가 아닌 과거만을 말한다. 과거 전통을 재현하는 것이 불교처럼 돼 버렸다. 불교는 전통이 아니라 현재다. 전통이긴 하지만 현재에 있는 전통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불교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생각이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종교다. 왜 우리는 과거만 쳐다보고 과거지향적인 것만 생각만 하는 것인가.

초기불교만 근본불교라는 생각 지양해야

세 번째 문제는 근본불교에 대한 생각이다. 근본불교라는 말이 1990년대부터 한국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조계종단에 실망한 분들이 〈아함경〉이나 빨리경전 등 초기불교경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초기불교를 근본불교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불교는 성경과 달리 본래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종교가 아니다. 초기경전이 부처님의 직설일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도 세계불교학자들 가운데 '근본적인 것만이 불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초기근본불교주의자다. 이런 생각은 불교를 대단히 근본주의적으로 이끄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

위빠사나, 간화선 모두 부처님 가르침

마지막 한 가지는 한국불교가 다불교적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티베트·미얀마·대만 불교 등 전세계 불교가 한국에 공존하고 있다. 미국, 유럽을 제외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불교가 들어 와있는 전통적 불교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이 상황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한국이 새로운 불교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못보게 된다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다.

부처님 가르침은 특정 전통이나 경전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전에 녹아있다. 때문에 우리는 위빠사나, 간화선 모두 부처님 가르침 맞지만 하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발언대

조계종 첫 사찰음식축제 의미

사찰 음식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13 사찰음식대축제가 6월 6일 서울 봉은사에서 개막돼 9일까지 4일동안 진행됐다.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사찰음식 축제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사찰음식의 발전에 대한 과제를 던져준 이날 대회의 의미와 사찰음식의 미래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주〉

"사찰음식 전통 전하는 일 이제 시작"



정산 스님
불교문화사업단장

21세기,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교적 가치에 입각한 삶의 지표와 생활방식을 갈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최근 국내 사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국내 유수의 사업체들까지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사찰음식에 대한 이런 국민적 관심과 애정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사찰음식의 정신과 문화, 전통을 올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아졌다. 사찰음식은 우리 조상들이 먹던 민족음식, 전래음식의 원형에 가깝다. 그 것을 현대적으로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서구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음식으로 보급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사찰음식에 매진하는 이들의 바람이다.

사찰음식대축제는 '소식 캠페인 선포식'이라는 또 하나의 의미 깊은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소식 캠페인은 '웃을 소(笑), 작을 소(小), 채소 소(蔬)라는 세 개의 주제를 통해 사찰음식이 지닌 감사와 나눔, 비움의 정신을 널리 알려서 내 자신과 우리 이웃, 나아가 지구환경 모두가 건강해지길 기원하는 운동이다. 일반인들이 사찰음식에 친근감을 갖고 생명존중, 친환경, 은혜의 뜻이 담긴 사찰음식문화에 젖어 들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사찰음식 대중화 발돋움 기회 되길"



적문 스님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 연구소 소장

그동안 사찰음식축제는 각 사찰이나 지역별로 개최돼 왔다. 조계종 차원의 첫 사찰음식대축제는 이제 사찰음식 대중화의 시작에 불과하다. 생활 속에서 사찰음식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일관되게 진행돼야 한다.

첫 술에 배부르겠냐만은 이번 대회 개막식이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 열린 것과 무더운 날씨로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사찰음식을 경험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종단에서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회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사찰음식이 일반 시민들의 밥상에도 오르는 날이 머지 않을 것이다.

최근 사찰음식대회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사찰음식대축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마련돼 인상깊었다. 어려서부터 사찰음식과 채식 등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채식 등이 바로 불교문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찰음식 꼬마요리왕 선발대회 등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사찰음식은 이제 단순히 조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수행과정과 결합시켜 보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社說

현실 감각에 맞는 승가청규 기대

앞으로 조계종 스님들은 육식·도박·유흥주점 출입 금지, 고급차나 고급호텔 이용 금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주거할 수 없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가 6월 4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제정에 관한 제안을 의결했다. 조계종은 승가 청규(淸規, 청정한 규칙)에 대해 선원청규, 총림청규 등 특정 분야의 청규가 아닌 종단의 전 스님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보편적 청규라고 설명했다.

청규는 자성과 쇄신 결사의 5대 가치인 수행, 생명, 평화, 나눔, 문화 분야로 나눠 행복한 공동체 정신의 회복, 참회와 수행을 통한 자정,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규범은 승려가 구두·등산화·운동화 등 고가 제품을 착용하는 것을 삼가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소유하지 말 것을 권했다. 사찰음식과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질병, 요양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육식을 허용했다. 또 값비싼 고급 음식점이나 호텔 출입, 주식·펀드 투자, 호화 스포츠도 삼가도록 했다. 지나친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회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피력할 때는 개인적 견해보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도록 했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못박았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도박, 유흥주점 출입·음주 등과 같은 막행막식 행위는 종법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결의 내용을 별도 안으로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은 종무회의 의결, 종정스님 보고 및 교시 등 절차를 거쳐 청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청규들을 좀 더 보완해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청규가 아니라 실질적인 규약이 되길 바란다.

불교환경운동, 새 틀이 필요하다

여름의 문턱에 서 있는 6월이지만 이미 날씨는 한여름 못지않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물난리와 이상저온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모두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소비로 나타난 문제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어떨까? '녹색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공염불이다. 애초 '갈색' 토목 개발에서 '녹색'을 말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었다.

사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불교환경운동은 전성기를 맞았었다. 새만금 반대를 위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의 삼보일배와 지율스님의 목숨을 건 다섯 차례의 단식·도법스님의 생명평화 탁발순례는 우리 사회에 '환경'이라는 화두를 던져줬다. 정토회 에코붓다의 '빈그릇 운동',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친환경 공양미 운동' 등 대안적 실천 운동의 불을 지핀 것도 이 시기이다.

하지만 2013년 현재 한국 불교환경운동의 현주소는 '침체 일로'다. 불교계 대표 환경단체였던 불교환경연대는 그 동력을 완전 소진했고 '빈그릇 운동'은 대중의 관심과 뒷심을 받지 못하고 사그러들었다, 2005년부터 준비한 '불교환경의제 21'은 아직도 조계종 환경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운동의 침체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문제는 대중의 공감대를 얻고 이를 통해 실천을 꾀하는 아래로 부터의 운동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이를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사실 환경 운동은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문제로 불교의 대사회 운동의 핵심으로 자리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없는 비판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가 자연을 돌봐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고 능력이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는 1986년 환경의 날 발표한 달라이라마의 환경선언문을 다시 곱씹어 볼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기도와 회향은 중요함
우울증, 알콜중독, 비만 악몽 가위눌림
대학입시기도, 사업성공
치매, 암 중풍 예방 기도
조상영가 태아영가천도
조상숭배 실천대회
조상님 산소에 가서 잡초 잡목제거
여름방학 수련회 (3박 4일)
초,중,고등학생 부모, 일반인 참가
촛불을 잘 밝혀야 기도가 잘 됨
소원양초 대표 임익준
010-3815-7162 (주문환영)
천부경 수맥탐지특강
풍수지리 정태철 (법사.지사)
010-2797-1633
부산 - 제주, 부산 - 일본오사카
수륙천도재 하실 분 신청바람
대불정능엄신주 특별지도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대전·서울·부산·대구

공 고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호법감찰선원에서 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법감찰선원
봉사단
선원장 구룡 합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탈종공고
• 사 찰 명 : 천운사
• 법 명 : 무령
• 주 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226-4 동호빌딩 4층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장 법하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오색공단등


칼라(보카시)연등


공 단 등


영 가 등



팔각봉축접등





왕생극락접등





주 름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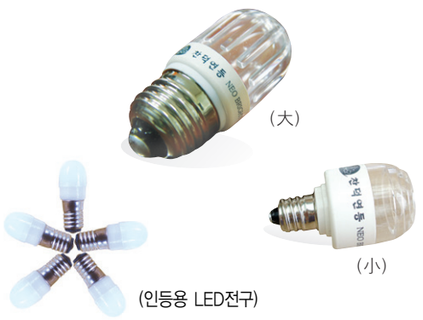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용주사 LED 인등


윤장대 인등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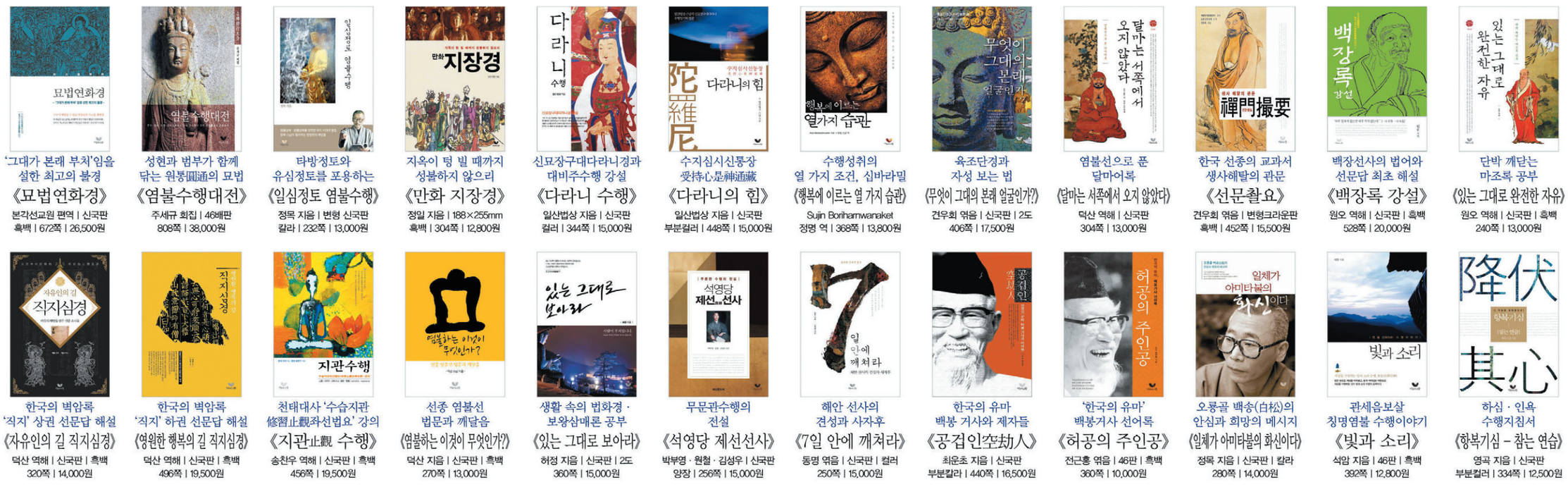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자유와 행복을 여는 지혜의 문'

비움과소통에서 펴낸 佛書들 (전국 서점에서 판매)



'그대가 본래 부처'임을 설한 최고의 불경
《묘법연화경》
본각선교원 편역 | 신국판 흑백 | 672쪽 | 26,500원

성현과 범부가 함께 닦는 원통圓通의 묘법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회집 | 46배판 808쪽 | 38,000원

타방정토와 유심정토를 포용하는
《일심정토 염불수행》
정목 지음 | 변형 신국판 칼라 | 232쪽 | 13,000원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으리
《만화 지장경》
정일 지음 | 188×255mm 흑백 | 304쪽 | 12,800원

신묘장구대다라니경과 대비주수행 강설
《다라니 수행》
일산법상 지음 | 신국판 컬러 | 344쪽 | 15,000원

수지심시신통장 受持心是神通藏
《다라니의 힘》
일산법상 지음 | 신국판 부분컬러 | 448쪽 | 15,000원

수행성취의 열 가지 조건, 심바라밀
《행복에 이르는 열 가지 습관》
Sujin Boriharnwanaket 정명 역 | 368쪽 | 13,800원

육조단경과 자성 보는 법
《무엇이 그대의 본래 얼굴인가?》
견우회 엮음 | 신국판 | 2도 406쪽 | 17,500원

염불선으로 푼 달마어록
《달마는 서쪽에서 오지 않았다》
덕산 역해 | 신국판 304쪽 | 13,000원

한국 선종의 교과서 생사해탈의 관문
《선문촬요》
견우회 엮음 | 변형크라운판 흑백 | 452쪽 | 15,500원

백장선사의 법어와 선문답 최초 해설
《백장록 강설》
원오 역해 | 신국판 | 흑백 528쪽 | 20,000원

단박 깨닫는 마조록 공부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
원오 역해 | 신국판 | 흑백 240쪽 | 13,000원

한국의 벽암록 '직지' 상권 선문답 해설
《자유인의 길 직지심경》
덕산 역해 | 신국판 | 흑백 320쪽 | 14,000원

한국의 벽암록 '직지' 하권 선문답 해설
《영원한 행복의 길 직지심경》
덕산 역해 | 신국판 | 흑백 496쪽 | 19,500원

천태대사 '수습지관 修習止觀좌선법요' 강의
《지관止觀 수행》
송찬우 역해 | 신국판 | 흑백 456쪽 | 19,500원

선종 염불선 법문과 깨달음
《염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덕산 지음 | 신국판 | 흑백 270쪽 | 13,000원

생활 속의 법화경 · 보왕삼매론 공부
《있는 그대로 보아라》
허정 지음 | 신국판 | 2도 360쪽 | 15,000원

무문관수행의 전설
《석영당 제선선사》
박부영 · 원철 · 김성우 | 신국판 양장 | 256쪽 | 15,000원

해안 선사의 견성과 사자후
《7일 안에 깨쳐라》
동명 엮음 | 신국판 | 컬러 250쪽 | 15,000원

한국의 유마 백봉 거사와 제자들
《공겁인空劫人》
최운초 지음 | 신국판 부분칼라 | 440쪽 | 16,500원

'한국의 유마' 백봉거사 선어록
《허공의 주인공》
전근홍 엮음 | 46판 | 흑백 360쪽 | 10,000원

오룡골 백송(白松)의 안심과 희망의 메시지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정목 지음 | 신국판 | 칼라 280쪽 | 14,000원

관세음보살 칭명염불 수행이야기
《빛과 소리》
석암 지음 | 46판 | 흑백 392쪽 | 12,800원

하심 · 인욕 수행지침서
《항복기심 - 참는 연습》
영곡 지음 | 신국판 부분컬러 | 334쪽 | 12,500원

비움과소통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 **청소년 · 군포교 · 49재 등 법공양시 특별 할인!** **문의:** 02-2632-8739 buddhapia5@hanmail.net